

태권도

TAEKWONDO

VOL. 170_2018

10/11

COVER STORY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결산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IV

SPECIAL REPORT

재미있는 태권도를 하자 II

NATIONAL TEAM

2018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

SPECIAL INTERVIEW

1988 서울 올림픽 영광의 주인공, '작은 거인' 이승국

PEOPLE

서상렬 세계무덕관연맹 총재

PLAYER OF THE MONTH

『태권도』 선정 8·9월의 선수 강민성







제11회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개최 알림



대 회 명	제11회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대 회 일	2018년 10월 20일(토)~21(일)/2일간
장 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7
종 목	겨루기(개인전), 품새(개인,단체전), 태권체조, 종합 시범

제1회 전국 실버 태권도 경연대회 개최 알림

대 회 명	제1회 전국 실버 태권도 경연대회
대 회 일	대회일: 2018년 10월 7일(일)/1일간
장 소	충청북도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충북청주시 청원구 사천로 18번길 81
종 목	품새(개인전), 종합 시범(단체전)

2018

KTA 지도자 전문교육과정

기간 2018. 10. 27.(토) ~ 28.(일) **장소** 태권도원

- KTA 교육박람회의 심화과정
- 1과목 선택(1인 1강좌) 후, 1박 2일간 집중 연수 실시
- 도복, KTA 우수강좌 수강, 수료증 등 다양한 특전 제공

- 참가자격 : KTA 등록도장 관장 및 관장이 추천한 자 ※ 미성년자 제외
-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2일(금) 까지 ※ 기간내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 문 의 :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사업부 02-420-4271 (ARS 연결 시 3번)

CONTENTS



태권도
TAEKWONDO

VOL.170

10/11

COVER STORY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결산

014 결산 ① 한국 태권도, 아시안 게임에서
숙제를 남기다

018 결산 ② 키워드로 되돌아본 아시안 게임,
무엇을 남겼을까?

022 결산 ③ 품새! 올림픽 스포츠로 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

024 결산 ④ 자카르타를 수놓은
영광의 얼굴들

EDITOR'S LETTER

011 L선수를 위한 변명...
선수는 실력으로 말한다

PROLOGUE

012 중추의 만월에 인 단상, 영가로 이어지다

SPECIAL REPORT

재미있는 태권도를 하자! II

026 KTA, 재미있는 태권도로
재도약 기틀 마련 앞장서려

028 '재미있는 태권도' 본격 추진 KTA,
1차로 각 위원회 의견 수렴

030 KTA TF팀, 지루함 덜고 박진감 더한
경기규칙 개선안 제시

NATIONAL TEAM

032 2018 타오위안(桃園) 월드 그랑프리
황경선 후계자로 거듭난 이다빈,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꿈꿔요"

036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
한국 태권도, 미래의 갈 길을 구한다

PHOTONEWS

054 태권도 시범을 넘어 모범이 되고 있는
국기원 최고 9단 시범단

PEOPLE

056 서상렬 세계무덕관연맹 총재
"태권도의 정체성은 수박도에서 찾아야"

ISSUE

060 태권도 전자호구 시스템은
풀기 힘든 숙제일까?

062 현실 외면한 과잉 입법,
태권도장 '적신호' 켜졌다

COMPETITION

066 2018 타이베이(臺北) 품새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뉴 페이스' 돌풍 몰아친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

068 제48회 협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대회
역사와 전통 자랑하는 태권도의 장,
열전 펼쳐지다

070 제2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대항 대회
누가 '산소(酸素)도시' 태백서 호령했나?

OUR FAMILY

072 <7>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새바람 부는 BTA,
웅비의 신바람도 일어나다

075 <8>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지성인의 요람으로서 미래 인재 양성 주력

선/발/공/고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시범공연단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전 세계 태권도의 중추국 협회로서, 국내외 태권도 시범을 통한 태권도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 전파와 아울러 21c 새로운 태권도를 창달·선도하기 위해 『KTA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공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A와 함께 새로운 시범 문화를 선도할 2019년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공연단 단원을 모집하오니,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공연단의 긍지와 열정을 희망하는 젊은 태권도인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선발 개요

- 선발 구분 : 2019년도 KTA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공연단 단원
- 일시 : 2018년 11월 17일(토) 09:00~
- 장소 : 태릉선수촌 태권도장
- 선발 인원 : 00명

응시 자격

- 국기원 3단증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2019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내외 시범 파견 및 매주 훈련 참여 가능자

접수

- 접수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14일(수)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reg.koreataekwondo.co.kr → 시범단 오디션신청)
-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개인특기 종목 소개서(2종목 이내) - 접수 시 '주특기 소개'란에 기재
- 선발 전형 중 상해 관련 서약서 1부 - 붙임의 '서약서' 작성 및 서명 후 접수 시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학력, 시범 경력 등은 온라인 신청 시 기재한 내용으로만 평가되니, 해당 내용 모두 기재 바람

전형 방법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17일(토) 09:00~/태릉선수촌 태권도장
- 검정 항목
 - 기본 발차기
 - 품새 :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전형 당일 1개 지정)
 - 개인 특기종목 : 개인 선택 2종목 이내에서 시연
 - 면접
- 준비 사항
 - 복장 : 태권도복 착용(단증 및 신분증 지참)
 - 보조자 : 참가자가 직접 대동
 - 격파물 : KTA에서 지급하는 물품 사용
- 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 합격 발표 후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취소

기타 사항

- 국가대표 시범공연단의 특전
 - 해외 및 국내 시범 파견(국가대표 시범공연단으로서 국위 선양)
 - 임명장 수여
 - 정기 훈련 및 시범 공연 파견 시 상해보험 가입
 - 소정의 훈련비 및 파견 경비 지급
 - 각종 용품 지원

CONTENTS



046



050



086

태권도
TAEKWONDO

VOL. 170

10/11

SPECIAL PROJECT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IV

038 변화를 좇는 자가 위기를
호기로 변환할 수 있다

040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

044 태권도장 전문가가 보는
한국 태권도 위기의 본질

046 도장 탐방 <4> 아리랑 태권도장
한국 성인 태권도의 개척자,
자부심 바탕으로 도장 운영

SPECIAL INTERVIEW

050 1988 서울 올림픽 30주년 기념
1988 서울 올림픽 영광의 주인공,
'작은 거인' 이승국

PHOTO ESSAY

078 기대를 저버린 고급 자전거 생산국 대만
중주국에서조차 비인기 종목이 된 태권도

080 그가 빛날 때,
'영원한 반려자' 태극기가 휘날린다

HISTORY

082 한국 태권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4>
올림픽 정식 종목을 향한 몸부림,
태권도의 서울 올림픽 비사

085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4>

LEGENDARY PLAYER <3>

086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선희
“스포츠 강사로 ‘장애인 체육’에
열정 쏟고 있어요”

VISION & TREND

090 한민족 전통 무예 시리즈 <3>
불교의 전통 몸 수행법 선무도(禪武道)

PLAYER OF THE MONTH

094 『태권도』 선정 8·9월의 선수 강민성
강민성, 희곡 '4전5기'를 쓴다

TRAINING

096 사진으로 배우는 태권도 기술 <4>
앞차기 3단계, 돌려차기 3단계,
옆차기 3단계, 가위차기

PROPOSAL

100 위기의 태권도,
생활체육으로 발전 서둘러야
101 경기 규칙 개정과
재미있는 태권도 <하·끝>

OUR WORLD

102 YOUNG'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KTA & NEWS

105 KTA 동정 &

FAMILY NEWS

108 시도 협회 통신문 마당

MISCELLANY

110 RECORDING ROOM

112 CALENDAR

114 PUZZLE

김재훈 태권도장

해외 근무 사범, 인턴 채용, 국내 성인반 희망 도장 모집

전 세계 8개국 42개 도장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김재훈 태권도장에서 해외 정규 사범 및 인턴을 채용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성인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희망 도장을 모집합니다.



해외 근무 정규 사범 조건

1. 초봉 급여: 세후 15,000RMB 2개월 인턴 기간 급여의 80%
2. 복지
- 1) 보너스: 월 급여 100% 이내에서 4회(설날·추석·연말·여름휴가)로 나누어서 지급
- 2) 한국 비행기 왕복 티켓 2회
- 3) 회사에서 비자 비용 모두 지원
- 4) 숙소 지원: 아파트 형태의 하우스에서 룸 세어(공과비 제외)
- 5) 주 1회 중국어 교습(최초 1년 동안)
- 6) 점심 제공
3. 자격 조건: 직책에 적합한 국기원 단증에 추가하여 창현류 천지에서 계백까지 교육받은 사람

국내 태권도 성인반 운영 희망 관장

국내에 있는 본인 도장에서 김재훈 태권도장 시스템을 연수받고 성인반 운영을 희망하는 분은 김재훈 총관장님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태권도 성인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되는 창현류 형 및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한국의 중앙 센터인 일산 도장에서 사범 연수 과정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담당자에게 신청하고 김재훈 총관장님과 개인 면담 약속을 잡습니다.
총괄 담당: 일산 김재훈 태권도장 오성희 사범
이력서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고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Ohseonghee@gmail.com
010-9209-6914(문자)
김재훈 총관장님과 개인 면담: 11월 17일~21일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 부국장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 서울 편집국 부국장
자문위원	▲ 도장 = 장권(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최훈민(가천대학교 강사) ▲ 학교 = 김중현(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 경기·심판 = 김경일(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 이종관(대한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 지도자 = 권오민(코치협의회 회장) 김종기(겨루기 국가대표팀 감독) ▲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국가대표 시범단 단장) ▲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 각 분야별 가나다순
객원 기자	양택진 태권도신문 취재부 차장 류호경 태권도신문 취재부 기자
제작 실무	김충환 전략사업부 부장 직무 대리 김영필 전략사업부 과장 강경훈 전략사업부 대리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강성현(세종)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 경희대학교 = 김민서 김수진 박진주 박해진 정혜나 ▲ 계명대학교 = 정준우(교육대학원) ▲ 용인대학교 = 안정현 이태성 ▲ 전주대학교 = 공찬욱
등록 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TEL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18년 4월 5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제작	(주)명진 C&P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힘찬 날갯짓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태권도』를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살아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



L선수를 위한 변명... 선수는 실력으로 말한다

글 서완석

9월 초 한 선수의 작은 일탈이 태권도계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했죠. 국가대표 L선수가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도 없었을 뿐더러 본인도 순순히 시인해, 음주 측정치에 따른 면허취소와 벌금만 내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흔하디 흔한 그저 그렇게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란 꼬리표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야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같은 기사는 적발된 이튿날 경찰기자에게 포착돼 기사화됩니다. 단순 음주운전 기사는 웬만한 유명 인사 아니면 기사화되지 않죠. 경찰기자들이 그냥 실수로 놓쳤거나 L선수가 별로 유명인이 아니어서,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과거 경찰기자로 그 일을 해본 필자는 기사 작성 매커니즘을 잘 압니다. 일주일 후에 보도됐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음주 적발 며칠 뒤 L선수의 일탈행위를 인지한 어떤 곳에서 특정 언론사에 제보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보도가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에서 그를 추방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는 장학금도 끊었습니다. 해당 팀은 수 개월치 급여도 삭감했습니다. 불똥은 이제 대한태권도협회(KTA)로 튀었습니다.

KTA는 논란 끝에 그에게 1개월간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1개월밖에 안 되냐는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KTA가 징계를 논하기 전에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 그랑프리 대회에 그는 스스로 불참했습니다. 출전이 금지된 1개월 안에 비중이 큰 전국 체전과 또 다른 그랑프리 대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랑프리 대회는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트가 40점이나 되는 굵직한 대회입니다. 우승이 유력했던 L선수의 불참은 그만의 손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수준의 선수로 키

우기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했던 협회와 국가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는 얼마만큼 징계와 벌칙을 받아야, 사회는 수감할까요. 온 사회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L선수를 물어뜯을 만큼 그 선수의 잘못이 큰 것일까요. 그렇다고 L선수의 잘못을 옹호하자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협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협회는 선수를 발굴, 육성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가장 큰 존재 이유입니다. 국가대표란 이유로 공권력에다 직장, 대한체육회에서 3중 처벌을 받은 그에게 협회마저 중징계로 철퇴를 내려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너무도 잔인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준 아버지처럼 KTA는 '징계'를 논하기 앞서 '선수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L선수가 국가대표여서가 아니라 평범한 선수였어도, KTA는 따듯이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바는 없으나, L선수의 불행을 확대재생산해 이득을 보려는 측이 있다면 이 또한 비신사적인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L선수의 행위를 확산시키는 것은 한국 태권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L선수의 부재 동안 누군가가 이득을 얻겠지만, 이는 정정당당한 승부로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알렉산더 대왕은 야간에 기습전을 펼치자는 부하의 진언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승리를 흠치기 싫다."

이번 사태로 얻은 수확이 있다면 적어도 태권도 종주국 국가대표 선수는 일류 연예인에 버금가는 공인(公人)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선수들은 공인이기에 이제부터는 사생활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L선수의 일로 다시 한 번 태극마크의 엄중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중추의 만월에 인 단상, 영가(靈歌)로 이어지다

글 최규섭 사진 SHUTTERSTOCK

중추(仲秋)다. 유달리 무더웠던 지난여름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의 한가운대를 지나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장단 맞추듯 어서 가라고 여름을 재촉하던 색바람의 사랑스런 간질임도 시간의 저편으로 스쳐 갔다.
동실 뜬 저 만월(滿月)이 정겹다. 갈바람이 안기는 선선함은 한가위 보름달을 완경하는 마음에 정취를 더한다.
새삼스레 가을이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한가위의 마력(魔力)에 빠져들을 어찌할 수 없다.

하늘이 맑고 높푸르게 보인다.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이 떠오른다.
하늘이 맑으니 물도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추천(秋天: 가을 하늘)과 추수(秋水: 가을 물)가 이럴진대,
토지라고 다를 리 없다. 가을에 온갖 곡식이 무르익음이 당연한 까닭이다. 추수(秋收), 곧 가을걷이가 뜻하듯
수확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는 계절이다. 불현듯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다.

절로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성숙 또는 난숙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을이라 그런가 보다. 봄이면 싹이 트고
가을이면 결실하는 자연의 신비에, 새삼 옷깃을 여민다. 정성과 노력을 들이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린 나날이었던가?
한 해를 공들였기에 풍작은 자연스럽기만 하다. 가을을 금추(金秋)라 일컬은 선인의 혜안에 다시금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글어 가는 대풍이 눈앞에 선하다. 어디선가 귀뚜라미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귀리 귀똥 귀뚜리 / 임 그리는 그 노래 / 사리사리 사르락 / 임이 오는 그 소리 / 아, 이 한 밤 / 아, 너와 나 /
이 마음을 어이하리 /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 귀뚜리 노래여 / 귀리 귀똥 귀뚜리 / 임 그리는 그 노래 /
사리사리 사르락 / 임이 오는 그 소리 / 귀똥이 노래여.// (하락)”(『야상곡』 정원섭 시)

청명한 빛이 온 누리를 가득 채웠다. 고난의 오늘을 잊게 하고 희망의 내일을 기약케 하는 맑고 밝은 빛이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연의 너그러운 마음이 빛어낸 깨끗하고 선명한 빛이다.
“어제를 반추해 오늘을 꾸리고, 오늘을 내일의 거울로 삼으라.”라고 일깨운다. 어제의 좌절은 오늘의 영광,
오늘의 영예는 내일의 치욕이다. 이같이 순환의 고리로 이어짐을 뚜렷하게 들려준다.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비가 찾아왔다. 사부작사부작 다가왔다. 생장을 돕는 서우(瑞雨)였으면 좋겠다. 한껏 대풍가를 부르라고 고무하는
감우(甘雨)였으면 더 좋겠다. 나이가 반갑게 맞이해 손안에 움켜잡는다. 배어드는 감촉에 젖어든다.
상서로운 비와 단비가 오묘하게 어우러졌으니 넉넉한 됴새가 쉽게 그려진다. 기원하는 가을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
맑고 푸른 우리네 가을의 정기를 아울러서 다짐하는 영가(靈歌)다. “한국 태권도여, 영원하소서!”





결산 ①

한국 태권도, 아시안 게임에서 숙제를 남기다

글 양택진 사진 류호경(자카르타)

2018년 8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플레나리홀에서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경기가 닷새(19~24일, 일수 기준) 동안의 각축을 끝내고 막을 내렸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포함되며 네 개의 금메달이 걸린 품새에서, 한국은 금 2·은 1·동 1개를 획득했다. 또 열 개의 금메달이 걸린 겨루기에서, 우리나라는 금 3·은 4·동 1개를 따냈다.

지난 8월 8일 출국을 앞두고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태권도 선수단(겨루기·품새) 미디어 데이에서, 김종기 겨루기 국가대표팀 감독은 남녀 총 10개 체급에서 여섯 개 이상의 금메달을 장담했다. 그러나 금메달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막상 손에 받은 성적표는 딱 절반 수준이었다.

적어도 겨루기에 국한하면 지난 대회에 훨씬 미치지 못한 성적이다. 4년 전에 홈 코트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은 16개 체급 중 12개 체급에 출전해 금 6·은 2·동 2개를 차지한 바 있다.

‘효자 종목’으로 여기며 한국의 선전을 기원한 국민에게, 태권도는, 특히 겨루기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한국은 1986 서울 대회에서 겨루기가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최초의 3연패를 달성한 이대훈(대전광역시체육회),

화려한 경기로 국민의 눈을 호강시키며 인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한 이다빈(한국체육대학교), 그리고 전 세계 경량급 황제답게 가장 안정된 경기로 역시 2연패를 이룬 김태훈(수원시청) 등의 빼어난 활약으로 아시안 게임 태권도사(史)의 한쪽을 장식할 만한 이정표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항저우(杭州)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풀어야 할 숙제를 받아 들었다.

집중력 부족과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겨루기 국가대표팀은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다.

남자 +80kg급 16강전에서, 이승환(한국가스공사)은 사에이드 라자비(이란)에게 연장전 골든 포인트로 패했다. -80kg급 결승전에선, 이화준(성남시청)이 니키타 라팔로비치(우즈베키스탄)를 상대로 3회전 종료 1초를 남기고 감점을 받으며 2위에 머물렀다.

여자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57kg급 결승전에서, 이아름(고양시청)은 뤼쑹시(중국)를 상대로 종료 직전 주먹 공격으로 결승 득점을 만들어 내는 듯했지만 상대 원발에 버져 비터 득점을 내주고 역전패했다. -67kg급 결

이대훈



남자 -80kg급 준결승전에서, 이화준(왼쪽)이 상대의 머리를 공격하고 있다.

승전에선, 김잔디(삼성 에스원)가 줄리아나 알-사데크(요르단)에게 3회전 종료 20여 초를 남겨 두고 얼굴 공격을 당하고 점수를 빼앗겨 1:5로 지는 쓴맛을 봤다.

집중력 부족은 중요 승부처에서 한국 선수들의 패배와 디졸브(Dissolve)되며 사전에 분석된 예상을 뒤집지 못한 결과로 드러났다. 이승환과 라자비, 이화준과 니키타 라팔로비치, 이아름과 뤼쥙시의 승부는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고비로 예견된 승부처였다. 남자 -63kg급에 출전한 조강민(한국체육대학교)은 미르하셈 호세이니(이란)와 치른 준결승전이 관건이었는데, 역시 고배를 마셨다.

국제 대회 상대 전적과 상대 선수의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분석은 해당 경기에서 한국 선수의 열세 전망이 우세했다. 결국 한국은 집중력 부족의 약점을 드러내며 이런 예상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해부당한 데다 수 싸움에서도 졌다

반면 중국-이란-태국 등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승리를 챙겼다.

여자 -49kg급 강보라(성주여고)와 올림픽 랭킹 1위인 파니팍 왕빠따나킷(태국)이 맞붙은 8강전 경기가 그 좋은 예다. 지난 5월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서 왕빠따나킷을 몰아붙이며 완승(12:7)했던 강보라는 이번 대회에선 8:27로 크게 졌다. 2014 유스 올림픽과 2015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왕빠따나킷은 이 체급 올림픽 랭킹(432.89점-이하 9월 20일 현재) 1위에 올라 있는 명실상부한 절대 강자다. 그랬던 왕빠따나킷은 뜻밖의 패배에 눈물을 흘리며 설욕을 다짐했다고 한다.

호치민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고 크게 당황했던 최영석 태국 감독은 강보라를 철저히 해부한 듯싶었다. 강보라의 역동적 접근전을 수 싸움에서 완벽하게 차단했고, 승부처인 3회전서 전략의 수정을 가져오지 못하며 흔들린 강보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득점을 올려 큰 점수 차로 승리했다. 반면 한국은 올림픽 랭킹 1위를 한 차레 이겼다는 안도감에 빠져 플랜 B를 마련하지 못하고 카운터를 허용하고 주저앉았다.

한동안 해외로 진출한 한국인 겨루기 지도자의 위상은 저하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 감독을 비롯해 김진영 중국 코치와 김길태 베

트남 감독 등에 더해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인 지도자가 한국을 해부하고 있다. 여기에 여전히 태권도 강국인 이란과 이번 아시안 게임 남녀 각 체급에서 고르게 메달을 획득한 우즈베키스탄 등도 한국을 분석하며 도전하고 있다.

‘원 팀(One Team)’이 되어야 한다

체급별로 출전하는 겨루기는 분명히 개인 경기다. 그런데 대강 보아 넘기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하나의 팀(One Team)’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전체 사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회 내내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은 우리 국가대표팀 응원 모습이다. 한술밥을 먹는 동료가 경기할 때, 한국 국가대표는 2~3명씩 군데군데 따로 앉아 있었다. 이 같은 장면은 쉽게 눈에 띄곤 했다. 다른 국가대표팀과 비교해 크게 대비되는 장면이었다.

이런 현상은 평소 훈련 내지는 분위기와 별개의 일이 아니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2013년에 강화 훈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담 지도자 체제로 국가대표팀을 운영해 왔다.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를 대비해 2~3명씩 선수를 묶어 한 명의 코치가 훈련과 선수촌 생활 및 세컨드를 집중적으로 맡는 형태다. 선수 숫자에 비해 지도자 숫자가 당연히 적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가 현재 및 과거 소속 관계, 평소 유대 관계 등에 따라 2~3명의 선수를 맡아 지도하고 있다.

전담 지도자 제도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선수와 지도자가 평소 생활부터 훈련 과정을 거쳐 경기에 출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결속력이 커진다. 또한 대회에서, 선수가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 전담 지도자의 능

력이 검증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커진다. 그러나 전담 지도자 제도가 강화될수록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대표팀 내 구획화다. 구획화가 극단적으로 강화되면, 자신이 맡지 않은 대표팀 내 선수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에 코칭을 하거나 상대 선수를 함께 분석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유대감을 높이기 어려워진다. 한국 대표팀 내 독립된 소규모 대표팀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담 지도자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구획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야말로 대표팀 전체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구심점의 존재다. 통찰력 있는 관찰을 통해 적시에 개입하고 보완함으로써 극단적 구획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체 한국 대표팀의 사기를 적절히 끌어올리는 구심점 역할이야말로 전담 지도자 시스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다.

한국이 그동안 전담 지도자 제도의 장점에만 치중해 하나의 팀이 아닌 '하나의 팀 내 여러 팀'이 아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이제 답을 찾아야 한다

2018 아시안 게임 겨루기 경기에서, 한국은 10명의 선수 중 8명이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당초 메달 목표에 대한 자신감이 과했던 태권도, 국제 태권도 경기력의 지형에 비추어 그리 나쁜 성적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2020 올림픽과 2022 아시안 게임에 대비해 다시 준비하면 되고, 그 저력을 한국 태권도는 여전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만 놓여 있었을 뿐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대책과 보완책을 따져 볼 좋은 기회기도 하다.

우선 남녀 국가대표팀의 분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훈련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관리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감독 체제 아래 남자부와 여자부를 분리해 여러 갈래로 구획화할 수 있는 국가대표팀을 두 개의 큰 틀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한국스포츠개발원 및 대한체육회의 과학부와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차체에 이를 공식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특징적 현상은 승패를 넘어선 과정의 아름다움에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KTA, 한국 겨루기 국가대표팀에 있어 국제 대회 메달 획득과 국위 선양은 내려놓을 수 없는 숙명이자 비켜 갈 수 없는 본령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



2018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경기 끝난 뒤, 최창신 KTA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한국 겨루기 선수단이 함께했다.



새 품새 연기를 마치고 들어오다가 돌연 주저앉은 김선호(가운데)를 객택용 코치가 부축해 벤치로 돌아오고 있다.

결산 ②

키워드로 되돌아본 아시안 게임, 무엇을 남겼을까?

자카르타=글 최규섭 사진 최규섭, 류호경, 전문희 제공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을 밝히던 성화가 마침내 꺼졌다.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렸새(이하 날수 기준) 동안 전 아시아인을 아우르고 타오르던 횃불은 소임을 마치고 4년 뒤 2022 항저우(杭州) 아시안 게임을 기약했다. 우리나라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대회 초반부에 펼쳐져 각축의 열기를 드높이는 축매제로 작용했다.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불꽃을 튀긴 태권도에선, 어떤 화두가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 종주국 한국에 명암을 엿갈려 안긴 두 가지 키워드 - 부상-평천하 -를 갖고 이번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경기를 되돌아봤다.

부상

2018년 8월 19일 오후 4시 30분(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플레나리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남자 단체전 결승전의 막이 올라갔다. 한국과 중국이 새 품새와 자유 품새를 연기해 자웅을 겨루는 마지막 장이 펼쳐졌다. 두 나라는 먼저 새 품새 가운데 '힘차리'를 힘차게 표현했다.

주위상-후밍다-덩팅핑이 짝을 이룬 중국이 먼저 경연에 나섰다. 이욱고 한영훈-김선호-강완진이 호흡을 맞춘 한국이 갈고닦은 솜씨

를 뽐냈다. 넘치는 듯하면서도 절제된 힘을 바탕으로 하나로 어우러진 몸놀림에, 플레나리홀을 가득 메운 관중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

1분 35초의 제한 시간 내에 연기를 마친 세 명의 태권 도령이 무대에서 물러났다. 그 순간, 갑자기 김선호가 쓰러졌다. 벤치로 걸어 들어가다가 주저앉는 모습에, 관중석 곳곳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객택용 품새 코치가 무척 놀라 뛰쳐나왔다. 김선호를 부축해 들어가는 객 코치의 표정에선, 당혹스러움이 역력히 나타났다. 한영훈과 강완진의 얼굴에도 그늘이 비쳤다.

그럴 만했다. 전개된 상황으로 봐선 김선호가 남은 자유 품새를 연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듯싶었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내딛는 아주 작은 동작조차 어려운, 그만큼 몸놀림이 도저히 힘든 심한 부상처럼 보였다. 더구나 균형과 회전을 요하는 곡예적 요소로 구성된 자유 품새 아닌가. 선수를 대체할 수 없는 규정상 누가 봐도 다음 수순은 기권패가 필연이었다.

사실 김선호는 정상적 몸 상태가 아니었다. 지난 6월 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개인전) 선발전 때 다친 골반이 완전하지 않았다. 그때에도 새 품새를 연기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미 단체전 멤버 티켓을 탄 바 있는 김선호는 아시안 게임 출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투혼을 불살랐다. 김선호의 꺾이지 않는 근성을 높이 평가한 코칭스태프(곽택용·전민우)는 그를 구성원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새로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완치되지 않은 골반뼈가 언제든 다시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책략이었다. 김선호에 맞춰 한영훈과 강완진이 발차기 높이를 낮추도록 했다. 물론 가능한 한 더 높이 찰수록 심판에게 선명한 인상을 심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높게만 차려다가는 김선호의 부상이 도질 수 있었다. 코칭스태프는 작은 데에 집착하다가 자칫 큰일을 그릇 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선호는 다시 일어섰다. 수개월 동안 들어

온 공이 자신 때문에 물거품처럼 스러진다고 생각하니 결코 물러날 수 없었다. 쓰러져도 코트 위에서 누우리라 각오를 다지며 걸어 나왔다. 불과 몇 분 만에 빠진 골반뼈를 다시 낀 선수답지 않은 곳곳한 모습이었다. 결연히 전장에 나선 용사에게, 관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 자유 품새가 끝났다. 다행히 김선호는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태극 트리오가 환상적 연기를 마치는 순간, 벤치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곽 코치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우승을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최종 점수가 나왔다. 8.480:8.020. 금빛 연기의 주인공은 한국이었다. 더구나 상당한 차이였다. 장수와 용사는 함께 어우러져 환호했다. 부상을 딛고 올린 개가여서, 더욱 뜻 깊게 올린 승전고였다. 김선호가 부상 투혼의 서장을 열었다면, 이대훈은 불꽃 투혼의 마침표를 찍었다.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움켜쥔 이대훈의 드높은 기개에, 그 누구라도 감탄을 토할 수밖에 없

었다. 당대 세계 으뜸의 솜씨는 두말할 나위 없다. 꺾이지 않는 투혼은 비단 위에 꽃을 더했다[錦上添花·금상첨화]. 아시안 게임 3연패의 금자탑은 박도를 일궈 쌓은 반전의 대풍이었다. 오른발을 거의 쓸 수 없는 치명적 약점도 정상을 밟겠다는 이대훈의 집념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사지 가운데 삼지(三肢)만으로 이론 등정이었다. 겨루기 남자 -68kg에서, 이대훈은 용솟음치는 위세를 떨치며 국제 대회 연속 행진을 이어 갔다. 적수를 찾을 수 없으니, 가히 천하무적이라 할 만한 행보다. 이대훈은 부상으로 오른발을 거의 쓰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카르타로 떠나기 사흘 전인 지난 8월 12일, 훈련 도중 오른발 인대를 다쳤다. 그럼에도 이대훈은 내색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칫 태극 전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만형의 깊은 마음 씀씀이었다. 신도 그의 사려 깊은 행동에 감복했는지 값진 금메달을 안겨 줬다. “대훈이는 정말 좋은 선수다. 무엇보다도 불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오른쪽)이 부상을 딛고 3연패의 위업을 이룬 이대훈을 껴안고 축하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다친 오른발 인대 부위.

표 1. 역대 아시안 게임 금 획득국 및 비율

년도	개최지	순위	나라	금	전체	비율 (%)	출전 제한
1986	서울	1	한국	7	8	87.5	없음
		2	이란	1		12.5	
1994	히로시마	1	한국	4	8	50	4체급
		2	이란	1		12.5	
		3	타이완	1		12.5	
		4	쿠웨이트	1		12.5	
1998	방콕	1	한국	11	16	68.8	남녀 각 6체급(개최국 제외)
		2	타이완	3		18.8	
		3	베트남	1		6.3	
		4	이란	1		6.3	
2002	부산	1	한국	12	16	75	남녀 각 6체급(개최국 제외)
		2	타이완	3		18.8	
		3	이란	1		6.3	
2006	도하	1	한국	9	16	56.3	남녀 각 6체급(개최국 제외)
		2	중국	3		18.8	
		3	이란	1		6.3	
		4	타이완	1		6.3	
		5	요르단	1		6.3	
		6	카타르	1		6.3	
2010	광저우	1	한국	4	16	25	남녀 각 6체급
		2	중국	4		25	
		3	이란	3		18.8	
		4	태국	2		12.5	
		5	타이완	2		12.5	
		6	요르단	1		6.3	

※ 은메달·동메달까지 포함한 순위임.

표 2.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메달 레이스

구분	남자			여자			
	차례	나라	금 은 동	차례	나라	금 은 동	
겨루기	1	이란	4 0 0	1	한국	3 2 0	
	1	한국	3 0 2	2	중국	2 2 2	
	3	우즈베키스탄	1 3 0	3	타이완	1 1 2	
	4	중국	0 2 1	4	태국	1 0 2	
	5	타이완	0 1 2	5	캄보디아	1 0 0	
		태국	0 1 2	6	이란	0 2 1	
	7	카자흐스탄	0 1 1	7	일본	0 1 0	
	8	필리핀	0 0 2	8	필리핀	0 0 3	
		타지키스탄	0 0 2	9	베트남	0 0 2	
	10		몽골	0 0 1		마카오	0 0 2
			일본	0 0 1	11	쿠웨이트	0 0 1
			아프가니스탄	0 0 1		타지키스탄	0 0 1
			레바논	0 0 1			
		소계	8 8 16		소계	8 8 16	
	종합 2	차례	나라			금 은 동	
		1	한국			6 2 2	
2		이란			4 2 1		
3		중국			2 4 3		
4		우즈베키스탄			1 3 0		
5		타이완			1 2 4		
6		태국			1 1 4		
7		캄보디아			1 0 0		
8			카자흐스탄			0 1 1	
			일본			0 1 1	
10		필리핀			0 0 5		
11		타지키스탄			0 0 3		
12			베트남			0 0 2	
			마카오			0 0 2	
14			몽골			0 0 1	
			아프가니스탄			0 0 1	
			레바논			0 0 1	
			쿠웨이트			0 0 1	
		총계			16 16 32		

타는 투지가 놀랍다. 게다가 걸출한 솜씨는 물론 겸손함까지 갖췄다. 근성과 기량과 인성이 서로 조화를 이뤘으니, 어찌 대단한 선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10 광저우(廣州) 아시안 게임 때 이대훈의 금 결실을 이끌었고 이날도 세컨드를 맡아 작전을 지시했던 전문희 겨루기 코치의 평가는 결코 허투루 하는 허언이 아니다.

셀 수 없는 국제 대회 우승의 달콤함을 누렸던 이대훈도 이날의 감각이 새롭게 다가오는 듯했다. “아시안 게임에서 세 번 잇달아 금메달을 땀지만, 이번 대회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정상으로 가는 길도 겹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가장 험난했다.”

이 말에서 엿볼 수 있듯, 이대훈은 마지막 판에서 다소 고전했다. 준결승전까지 훨훨 날았으나, 결승전에선 힘겨운 몸놀림을 보였다. 아미르모함마드 바흐스칼호리(이란)를 맞아 1회전에서 1:4로 뒤졌다.

2회전이 끝났을 때도 6:7로 열세였다. 이 고비에서, 이대훈은 마지막 불꽃 투혼을 불태우며 끝내 12:10으로 전세를 뒤집고 극적 우승의 과실을 맺었다.

이대훈은 이로써 메이저 대회 출전 연속 우승 기록을 8로 늘렸다. ▲ 2016년 월드 그랑프리에서 시작된 승승장구 행보는 ▲ 2017년 월드 그랑프리 세 걸음, 세계 선수권 한 걸음,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한 걸음 ▲ 올 월드 그랑프리 한 걸음을 거쳐 ▲ 이번 아시안 게임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졌다.

천하에 우뚝 선 이대훈도 마음 깊숙이부터 타오르는 열망이 있다. 올림픽 금메달은 늘 “어서 와 꺼안아 달라.”라고 이대훈을 유혹한다. 2년 전, 2016 히우 지(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때 금메달이 확실시됐지만 동메달에 그쳤던 쓰라린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하며 훈련에 정진하는 이대훈이다. 2년 후인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지리라 보고 있다. 왜? 언제

든 도복을 걸어서 떼 놓지 않는 성실성이 야망의 달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평천하

2018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태권도 판도에 큰 변화의 물결이 일지는 주목거리였다. 한국이 종주국 위엄을 되찾고 평천하의 기세를 떨칠지, 아니면 전국 시대 구도가 여전히 맹위를 보일지, 막이 내리고 그려질 모양새에 지대한 관심이 쏠렸다. 모두가 숨죽이고 형세의 흐름을 지켜봤다, 과연 갈라진 천하를 평정하고 패왕(霸王)으로 등극할 제후가 나올까를.

조짐은 없었다. 오히려 기운은 더 미약하고 쇠잔해졌다. 아직까지는 전국 시대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절대 강자가 없음이 다시금 엿보였다. 비록 어느 정도 그 기미가 눈에 띄었을지라도, 패자(覇者)의 웅자를 갖췄다고 단언하기에는 무언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이 정상에 오르긴 했어도 유아독존의 자부심을 뽐낼 만한 힘을 쌓았다고 하기엔, 미진한 구석이 있었다.

12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은 아시아 태권도계에서 지존으로 군림했다. 태권도가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1986 서울 대회 이래 이때까지, 한국은 천하의 주인공이었다. 한국이 구축한 왕국에 무모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나라는 없었다.

원년 무대에서, 한국은 여덟 개의 금메달 중 일곱 개를 움켜쥐며(표 1 참조) ‘태권 천하’의 서장을 열었다. 아시아 태권 판도의 87.5%에 이르는 초강자의 면모를 한껏 뽐냈다.

1990 베이징(北京) 대회 때 모습을 감췄던 태권도는 1994 히로시마 대회 때 다시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아시아 최고 순도의 금을 양산했다. 금 네 개. 얼핏 겉모습만 보면 초라하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남자 8개 체급이 치러진 이 대회

엔, 결쇠가 있었다. 개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4개 체급에만 출전토록 제한하는, 단순히 한국의 독식을 의식한 빗장이 걸렸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를 비웃듯 홀로 정상을 내달렸다. 획득 가능한 금메달을 100% 따내며 오히려 역대 으뜸의 결실을 올렸다.

이 독보적 형세는 지난 세기를 넘어 금세기 초반, 곧 2006 도하 대회까지 끊임없이 재현됐다. 이때도 한국은 금 아홉 개로 절반이 넘는(56.3%) 점유율을 보이며 결코 붕괴되지 않을 듯한 제국의 위세를 자랑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듯, 영원한 왕국도 패왕도 존재하기 힘들다. 한국이 쌓은, 철옹성 같았던 왕국을 마냥 앉아서 지켜보기엔 못 제후의 야심이 무척 컸고 자존심 또한 허락지 않았다. 합종한 그들의 거센 도전에, 한국이 이론 통일천하에도 균열이 갔다.

2010 광저우(廣州) 대회에서, 전국 시대의 막이 열렸다. 안방에서 권좌를 넘본 중국에, 한국은 한쪽 자리를 내줬다. 한국은 똑같이 25%(금 네 개)의 지분을 차지한 중국이 양웅(兩雄)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씁쓰레하게 바라봐야 했다. 처음으로 천하의 50%를 장악하지 못한 한국은 제왕에서 제후로 내몰리는 수모를 당했다. 이란(세 개·18.8%), 태국·타이완(이상 두 개·12.5%)도 상당한 권역을 차지하며 천하 쟁패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4년 뒤에도 양상은 비슷하게 펼쳐졌다. 2014 인천 대회에서, 한국은 다소 영역을 확대했다. 전체 16개 체급 중 12개 체급 출전이 가능했던 이 대회에서, 한국은 여섯 개의 금을 쟁취해 37.5%로 판도를 다소 넓혔다(표 2 참조). 홀로 제1제후가 되긴 했어도, 패왕이라 하기엔 역부족의 영토였다. 또한 남자 8개 체급에선, 이란에 열세(3:4)를 나타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권토중래하려던 야망은 다시 4년 뒤로 시기를 늦춰야 했다. 도리어 금메달 획득국이 일곱 개로 늘어남으로

써, 천하는 더욱 어지럽혀졌다.

2018 대회에서도, 한국은 통천하 재건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 선보인 품새를 석권하며 '태권 한국'의 기치를 높이 들려 했으나, 신은 외면했다. 이번 대회는 겨루기 열 개(남녀 각 5체급), 품새 네 개(남녀 각 두 개), 모두 열네 개의 금메달을 내걸고 제후들을 유혹했다. 겨루기 출전 체급 제한이 풀린 점을 바탕으로, 한국은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고 이를 자신했다. 그렇지만 자만심에서 기인한 우리만의 셈법에 지나지 않았다. 35.7%(겨루기 세 개, 품새 두 개)의 영토를 장악하는 데 그쳤다(표 3 참조). 지배율은 4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 인천 대회 때 이란에 내줬던 남자부 우승을 되찾으며 종합 패권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다소 낮이 부끄럽다. 금을 따낸 나라가 여덟 개로 늘어난 사실이 대변하듯, 군웅이 할거하며 빗어진 씩스러운 결과다.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외연을 넓히면, 전국 시대란 표현으로는 벅차다. 거의 춘추 시대라 할 만하다. 비록 단 한 개의 동메달을 땀을 지어낸 이들을 포함하면 14개국이 메달국 반열에 올랐다. 특히 품새 옥좌를 둘러싼 각 축전은 절정에 달했다. 10개 체급의 겨루기에선, 11개국이 메달국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권역이 훨씬 작은 품새(네 개 범주)에선, 9개국이 쟁투에 뛰어 들었다. 품새가 얼마나 각국에서 인기를 모으며 전략 종목으로 육성되고 있는가를 방증하는 현상이다. 그만큼 저변이 넓고 수준이 상향 평준화의 지경에 올라섰음이 엿보인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 아시아 태권도 판도는 어떤 모양새를 나타낼까? 한국이 통천하의 기개를 되찾을지, 군웅의 각축이 뜨거울 전국 시대가 그대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는 4년 뒤 그날이다. ㉓



품새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연기를 뽐낸 데피아 로스마니아르(인도네시아)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터뜨린 채 국기를 펼쳐 들고 코트를 돌고 있다.

표 3. 2018 아시안 게임 메달 레이스

구분	남자			여자		
	차레	나라	금은동	차레	나라	금은동
겨루기	1	한국	2 1 1	1	한국	1 3 0
		이란	2 1 1	2	중국	1 0 2
	3	우즈베키스탄	1 2 0		태국	1 0 0
	4	중국	0 1 0	3	타이완	1 0 0
		요르단	0 0 3		요르단	1 0 0
	5	카자흐스탄	0 0 3	6	우즈베키스탄	0 1 2
	7	일본	0 0 1	7	카자흐스탄	0 1 1
		타이완	0 0 1		이란	0 0 1
				8	일본	0 0 1
					레바논	0 0 1
					필리핀	0 0 1
소계			5 5 10	소계	5 5 10	
품새	1	한국	2 0 0	1	인도네시아	1 0 0
		이란	0 1 0		태국	1 0 0
	2	중국	0 1 0	3	한국	0 1 1
		타이완	0 0 1	4	이란	0 1 0
	4	태국	0 0 1		말레이시아	0 0 1
		필리핀	0 0 1	5	필리핀	0 0 1
		베트남	0 0 1		타이완	0 0 1
소계			2 2 4	소계	2 2 4	
종합 1	1	한국	4 1 1	1	태국	2 0 0
	2	이란	2 2 1	2	한국	1 4 1
	3	우즈베키스탄	1 2 0	3	중국	1 0 2
종합 2	차레	나라	금 은 동			
	1	한국	5 5 2			
	2	이란	2 3 2			
	3	태국	2 0 2			
	4	우즈베키스탄	1 3 2			
	5	중국	1 2 2			
	6	요르단	1 0 3			
		타이완	1 0 3			
	8	인도네시아	1 0 0			
	9	카자흐스탄	0 1 4			
	10	필리핀	0 0 3			
	11	일본	0 0 2			
		베트남	0 0 1			
	12	레바논	0 0 1			
		말레이시아	0 0 1			
총계			14 14 28			

결산 ③

품새! 올림픽 스포츠로 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

자카르타=글 배진남 연합뉴스 스포츠부 차장 사진 류호경

태권도 품새가 새 길을 열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 개막 바로 이튿날인 8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 플레나리홀에서는 태권도 품새 경기가 열렸다. 이날 하루 남녀 개인·단체전에서 총 4개의 금메달을 놓고 출전한 선수들이 뜨거운 열기를 토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몸놀림은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좌우하기에, 선수와 관중이 느끼는 압박감과 긴장감은 오히려 겨루기를 능가했다는 평가까지 쏟아졌다. 그동안 등한시됐던 품새는 활성화의 길을 찾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마디로 '품새의 재발견'이었다.

관중 사로잡은 품새,

금 구도도 최적

품새가 아시안 게임은 물론 대륙별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8년,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승인한 첫 품새 대회인 용인대학교 총장기대회가 국내에서 치러진 이후 20년 만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이 2006년 9월 서울에서 제1회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후로는 12년 만의 경사였다. 태권도계가 겨루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할 기회도 되리라 기대하며 오랫동안 모두 함께 공들여 마침

내 결실을 본 것이다.

그동안 같은 무예 스포츠인 일본의 가라테는 구미테와 가타, 중국 우슈는 산타와 투로 등 태권도의 겨루기와 품새에 해당하는 종목이 모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치러져 왔다. 따라서 스포츠로서 품새의 성장도 절실했다. 이에 아시아태권도연맹(ATU)은 WT, 국기원, KTA 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경기용 새 품새 개발과 경기 규칙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남자 개인전(강민성)과 단체전(한영훈·김선호·강완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여자 개인전(데피아 로스마니아르), 태권도 신흥 강국 태국이 여자 단체전(콧차완 촌촌-펜까냐 파이산끼야-오나위 시리사히트) 금메달을 각각 나눠 가졌다. 우리나라는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과 여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보태 전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이 전 종목을 휩쓸 경우 이를 백안시할 다른 국가의 반응을 예상할 때, 품새의 미래를 밝게 할 가능성을 높인 금메달 구도였다.

품새의 아시안 게임 데뷔에 대한 반응은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 아시안 게임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것은 품새의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노력해 온 태권도계에는 행운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62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 만에 다시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인도네시아는 스포츠 강국은 아니다. 그러나 태권도, 특히 겨루기보다는 품새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나라다.

태권도 수련 인구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는 품새 종목에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는 물론 최근 세계 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자를 배출하고 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때 겨루기에서는 동메달 하나를 땔지만, 품새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



품새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연기한 한국의 김선호·한영훈·강완진(왼쪽부터). 일사불란한 발차기에, 관중은 탄성을 자아냈다.

각각 하나씩을 챙겼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품새는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금메달을 노린 종목이다.

인도네시아는 기대대로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땀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었다. 아울러 이전까지 은메달 6개와 동메달 8개가 전부였던 인도네시아 태권도가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으로 캔 금메달이기도 했다. 금메달을 딴 데피아 로스마니아르는 한국 정부가 국기원을 통해 해외에 파견한 지도자인 신승중 사범의 지도를 받아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다.

개최국의 성적은 대회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태권도 품새는 대회 초반 인도네시아 내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날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플레나리홀을 직접 찾아 경기를 관람하며 3시간 가까이 머물다 갔다. 조코위 대통령은 워업장을 찾아 선수를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시상까지 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경기를 지켜본 조정원 WT 총재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태권도가 이렇게 흥미로운 스포츠인지 몰랐다. 앞으로 더 관심을 두겠다.”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번 대회의 막이 오르기 전, 콕택용 한국 품새 국가대표팀 코치는 “품새에는 태권도의 화려한 겨루기 기술을 비롯해 시범·격파 기술이 다 녹아 있다. 아름다우면서도 파워풀한 경기예, 태권도를 잘 모르는 이들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현지 관중의 반응은 콕 코치의 예상과 어긋나지 않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관람객은 품새의 매력에 뜨겁게 반응했다. 물론 품새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그러나 어쨌든 한 동작만 실수해도 바로 탈락할 위험성이 높은 토너먼트 방식의 긴장감에 540도 뒤후리기와 아크로바틱 발차기 등 새 품새의 고난도 기술까지 더해지자, 관중은 쉽게 코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선수들이 펼



품새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최동아·박재은·곽여원(왼쪽부터).

치는 몸놀림 하나하나에, 관중의 희비도 함께 엇갈렸다. 단체전의 경우 준결승부터 선보인 자유 품새에서 팀별로 준비한 배경 음악을 바탕으로 세 명의 선수가 마치 K-팝 스타의 ‘군무’ 같은 동작을 선보이자, 경기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세계 태권도의 평균화로 기존 공인 품새의 경우 변별력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실수 요소가 많은 새 품새와 자유 품새가 이를 보완하는 모습이었다.

불만 수용과 단점 보완으로 앞길 밝혀야

그러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태권도의 근간을 해칠까 우려해서다. 세예드 모함마드 폴라드가르 이란태권도 협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폴라드가르 회장은 “태권도는 분명 무도다. 그럼에도 새 품새가 시작되면서, 선수들이 이제 체조 기술을 배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스포츠로서 중요성도 있으나,

모든 경기가 근간을 지켜 나갈 때 태권도만의 색깔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유 품새 도입으로, 태권도 용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술이 속출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폴라드가르 회장은 품새가 정식 종목이 되면서, 겨루기는 4년 전 인천 아시안 게임보다 6체급이나 축소돼 태권도에 걸린 전체 금메달 수가 16개에서 14개로 줄어든 점도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들도 채점 규정을 좀 더 정교하게 마련하고 품새 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그래도 올림픽 정식 종목까지 도전해야 할 품새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은 품새도 당당히 스포츠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무대였음은 틀림없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결산 ④

자카르타를 수놓은 영광의 얼굴들

자카르타=글 최규섭 사진 태권도신문 제공

겨루기



◀ 김태훈 남자 -58kg급 금

1994년 8월 15일생

수원시청

32강전 부전승/16강전 황천 샤오이(중국) 40:2 승/8강전 황엘도스 이스카크(카자흐스탄) 11:9 승/4강전 황스즈키 세르지오(일본) 24:11 승/결승전 황니아즈 플라토프(우즈베키스탄) 24:6 승

“힘들게 차지한 아시안 게임 출전 티켓 순간을 곱씹으면서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초반 두 경기에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기복이 심한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으나 다행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를 믿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의 하나가 된 힘이 거둔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이대훈 남자 -68kg급 금

1992년 2월 5일생

대전광역시체육회

32강전 부전승/16강전 황무하마드 무하마드(인도네시아) 26:5 승/8강전 황아벤 알칸타라(필리핀) 26:5 승/4강전 황에라 실 카이르베크(카자흐스탄) 32:10 승/결승전 황아미르모함마드 바크쉬칼호리(이란) 12:10 승

“아시안 게임 3연패를 이룬 그 순간은 평생 남을 행복한 추억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대표팀 만행으로 출전한 첫 대회에서, 후배 모두와 함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기에 쓰라림을 밀거름 삼아 앞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신 모든 코칭스태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이다빈 여자 +67kg급 금

1996년 11월 7일생

한국체육대학교

16강전 부전승/8강전 황람 체링(부탄) 24:0 승/4강전 황가오판(중국) 25:8 승/결승전 황칸셀 데니스(카자흐스탄) 27:21 승

“아시안 게임 2연패를 이룬 그날, 기쁨과 함께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강훈련과 부상을 딛고 준비했던, 다른 어떤 때보다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진감 넘치고 공격적 플레이로 팬들에게 재미있는 태권도를 선사하기 위해 더욱 맘을 쏟아내겠다’고 다짐을 거듭합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화준 남자 -80kg급 은

1996년 2월 16일생

성남시청

32강전 황소남 왕추크(부탄) RSC 승/16강전 황마흐디 코다바크쉬(이란) 24:22 승/8강전 황사무엘 토마스 하퍼 모리슨(필리핀) 27:18 승/4강전 황놀란 미르자바예프(카자흐스탄) 17:16 승/결승전 황니키타 라팔로비치(우즈베키스탄) 18:21 패

“저에게 첫 국제 무대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심 기대했던 금 과녁에 명중하지 못해 아쉬긴 해도, 얻었던 바가 더 큰 대회였습니다. 좋은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찾았습니다. 늘 깨어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땀뿐이니까요.”



◀ 하민아 여자 -53kg급 은

1995년 11월 9일생

삼성 에스원

32강전 부전승/16강전 황하른수진 판나파(태국) 28:12 승/8강전 황류카이치(중국) 10:4 승/4강전 황라에티아 아운(레바논) 12:1 승/결승전 황포우아 10:29 패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은메달입니다. 선수 생활 처음으로, 경기(8강전) 도중 부상(종아리 파열)까지 당했지만 지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기회가 다시 올진 모르겠으나, 포기하지 않고 제 힘으로 기필코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날을 빨리 맞이했으면 합니다.”



◀ 이아름 여자 -57kg급 은

1992년 4월 22일생

고양시청

32강전 부전승/16강전 황티 두 히엔 람(베트남) 14:8 승/8강전 황카쉬쉬 말리크(인도) 17:8 승/4강전 황비파완 시리폰팜(태국) 12:10 승/결승전 황휘중스(중국) 5:6 패

“부상과 거리가 멀었던 저에게 야속함마저 일게 한 이번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내내 부상 악령에 시달리며 훈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출전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1초를 넘기지 못해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친 뒤 며칠 밤을 뜯어내 지새워야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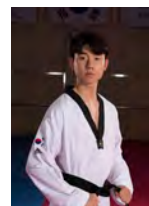
◀ 김잔디 여자 -67kg급 은

1995년 7월 24일생

삼성 에스원

16강전 황아사울레 에르카시모바(카자흐스탄) 35:9 승/8강전 황달렌 마에 아폰(필리핀) 29:0 승/4강전 황니고라 투르순쿨로바(우즈베키스탄) 14:4 승/결승전 황줄라나 알-사데크(요르단) 1:5 패

“많은 훈련량, 중주국을 대표한다는 부담감,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고 간절하게 준비했던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꿈을 이루지 못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결에서 저를 따뜻하게 지켜보며 응원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전진하는 김잔디가 되겠습니다.”



◀ 조강민 남자 -63kg급 동

1996년 6월 4일생

한국체육대학교

32강전 부전승/16강전 황하마드 마브루크 알마브루크(카자흐스탄) 22:10 승/8강전 황이브라힘 자르만(인도네시아) 36:25 승/4강전 황미르하세 호세이니(이란) 29:37 패

“처음엔 뜻했던 금메달을 따지 못해 무척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곱씹을수록 동메달도 매우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스럽게 감격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이번 아시안 게임이 저에게 앞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구름판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하니 묘한 희열마저 느껴집니다. 거듭 태어나는 선수로 팬들에게 각인되고 싶습니다.”

훌륭하다. 자랑스럽다. 절로 꺼안고 싶다. 어찌 그런 마음이 일지 않을쏘나? 자카르타에 한국 태권도를 화려하게 수놓은 태극 도복의 주인공들 아닌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에서, 이들은 중가의 자존심을 곧추세우며 감격의 순간을 연출 또 연출했다. 태권도 경기가 열린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플레나리홀을 가득 메운 관중은 그들의 빼어난 솜씨에 환호작약했다.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불꽃을 튀긴 겨루기, 절제와 화려함이 어우러진 품새, 그야말로 닻새(8월 19~23일. 일수 기준) 동안 펼쳐진 장관이었다. 한국 태권도를 이끌어 가는 태극 도령과 태극 낭자가 빛어내는 박진감과 황홀함은 모두의 넋을 빼앗았다. 감동과 영광의 그 순간을 자아냈던, 빛나는 얼굴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

품새



◀ 강민성 남자 개인전 금
1998년 10월 2일생
한국체육대학교
16강전 **홍수크타비 파나시트(라오스)** 8.240:7.650 승/8강전 **홍수 웨이 안(말레이시아)** 8.350:8.200 승/4강전 **홍풍폰 수비타아라크(태국)** 8.700:8.490 승/결승전 **홍쿠로쉬 바크티아르(이란)** 8.810:8.730 승

“두렵고 무서웠던 감정이 어느 순간 새롭고 기쁘게 다가옵니다. 힘들었던 훈련이 주던 괴로움은 사라지고, 한 팀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던 선생님과 동료들과 함께했던 그때 그 시간이 그리기만 합니다. 결과보다도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순간을 같이한 모든 분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한영훈 남자 단체전 금
1993년 11월 28일생
가천대학교
16강전 **부전승/8강전 홍인도네시** 아 8.680:8.390 승/4강전 **홍베트** 남 8.420:8.320 승/결승전 **홍중국** 8.480:8.020 승

“무척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있기까지 옆에서 또 멀리서 지지하고 응원했던 모든 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다시 오지 않을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듯합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앞날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더욱 훈련에 정진해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 김선호 남자 단체전 금
1998년 8월 30일생
웅인대학교
16강전 **부전승/8강전 홍인도네시** 아 8.680:8.390 승/4강전 **홍베트** 남 8.420:8.320 승/결승전 **홍중국** 8.480:8.020 승

“부상한 몸으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건 저의 과욕이었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채찍질보다는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북돋은 분들이 있었기에,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좋은 결실을 보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느꼈던 감정을 잊지 못하기에, 아니 잊으면 안 되기에,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강완진 남자 단체전 금
1998년 11월 3일생
경희대학교
16강전 **부전승/8강전 홍인도네시** 아 8.680:8.390 승/4강전 **홍베트** 남 8.420:8.320 승/결승전 **홍중국** 8.480:8.020 승

“아시안 게임은 어릴 때부터 꿈꿔 왔던 무대입니다. 그 꿈을 이루며 금빛 연기를 펼쳤다니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행복한 추억입니다.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 준,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결실에 결코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맘을 아끼지 않는, 늘 깨어서 미래를 개척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 곽여진 여자 단체전 은
1994년 3월 18일생
강화군청
16강전 **홍이란** 8.120:7.950 승/8강전 **홍베트남** 8.240:8.130 승/4강전 **홍필리핀** 8.020:7.110 승/결승전 **홍태국** 8.200:8.210 패

“아시안 게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대였습니다. 아시아인의 눈길이 쏠린 무대에서, 갈고닦은 솜씨를 펼쳤던 그 감동의 순간은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경험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비록 뜻했던 바를 한 걸음 앞두고 이루지 못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은 여자 단체전 은
1999년 4월 15일생
가천대학교
16강전 **홍이란** 8.120:7.950 승/8강전 **홍베트남** 8.240:8.130 승/4강전 **홍필리핀** 8.020:7.110 승/결승전 **홍태국** 8.200:8.210 패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저에게만 매우 뜻깊은 무대에서, 태극 도복을 입고 연기를 펼쳤다니 지금도 꿈을 꾸는 듯합니다. 아주 값진 경험을 얻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때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가슴속 깊숙이 간직하고 미래의 바탕으로 삼아 품새 발전에 한몫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아 여자 단체전 은
2000년 1월 12일생
경희대학교
16강전 **홍이란** 8.120:7.950 승/8강전 **홍베트남** 8.240:8.130 승/4강전 **홍필리핀** 8.020:7.110 승/결승전 **홍태국** 8.200:8.210 패

“품새가 처음으로 채택된 이번 역사적 아시안 게임에서, 종주국을 대표해 연기했다는 점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꾸기 힘든 값진 경험은 저의 앞날을 밝게 할 자양분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일깨워 결실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전해 그 짜릿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 윤지혜 여자 개인전 동
1997년 10월 5일생
한국체육대학교
16강전 **홍심 라차나(캄보디아)** 8.310:7.700 승/8강전 **홍라오옌산(대만)** 8.520:8.300 승/4강전 **홍테피아 로스마 니아르(인도네시아)** 8.400:8.520 패

“지금도 마음속 한쪽엔 그날의 여운이 짙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닌 기량을 다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만은 어느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았기에 미련은 없습니다. 이번에 쌓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훗날의 제 인생에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대교체의 조류에 밀려나지 않는, 그래서 결코 율지 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KTA, 재미있는 태권도로 재도약 기틀 마련 앞장서려

글 서완석 사진 류호경

재미있는 태권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가고 있다. 일본 가라테, 중국 우슈 때문만은 아니다.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태권도는 기본기에서 한참 벗어났다. 점수를 따내기 위한 변칙 기술이 판친다. 도장에서 가르치는 기본 동작은 정작 대회에서 외면받기 일쑤다. “저게 무슨 태권도 발차기냐.”라는 자조적 푸념도 이젠 식상할 정도다.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발을 벗고 나섰다. 종주국 협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KTA는 1961년 창립 이후 중앙도장(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WT) 탄생의 산파역을 다했다. 이제 경기규칙 개정도 전자호구 개선 문제도 KTA가 중심이 돼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KTA 산하에는 1만여 개의 도장이 있다. 현장에서 묵묵히 태권도 보급에 힘쓰는 수많은 관장, 사범, 지도자가 있다. KTA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해 태권도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려 한다.

‘재미있는 태권도’ 본격 추진 KTA, 1차로 각 위원회 의견 수렴

글 서완석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8월 13일, 경북 구미 박정희체육관. 제48회 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첫날 경기를 마친 뒤, 최창신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 회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KTA 간부 외에 대회운영본부의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영상판독위원회, 기록위원회, 질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한 이례적 회의였다.

최 회장은 “태권도 경기가 갈수록 흥미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는

대회 현장을 지키는 분과위원장들이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을 듯싶다. 이제 종주국 협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태권도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엘리트 선수 출신 위원들과 토론해 위원회별로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달라.”라고 위원장들에게 주문했다.

KTA는 각 위원회 의견을 비롯해 사무국 내

TFT 의견 등을 모두 수렴해 연내로 자체 경기규칙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짓고 내년 일부 대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각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재미있는 태권도를 위한 제안 내용이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경기규칙 개선, 전자호구 개선, 심판 역할 개선 등 세 부문으로 압축됐다.

경기규칙 개선점

분과 위원들은 '재미있는 태권도'의 정의를 "태권도 기본기를 통한 신체 동작과 기술 체계의 역동성이 최고도로 발휘돼 미디어가 제 발로 찾아오는 경기"로 이해했다. 이를 위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예시예종 등 사회교육적 가치와 철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분과위원들은 경기 규칙이 보다 단순 명료 하면서 누가 봐도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경기 규칙을 원했다. 경기 중 심판의 감점 부여 행위로 경기가 자주 중단되는 것으로는 관중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역전과 재역전이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규칙 개정과 막판 소극적 경기자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했다. 이 밖에 감점 적용 규칙이 너무 까다롭고, 기술 발차기 후 넘어지는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 감점도 경기의 흥미를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봤다. 이와 함께 해마다 경기 규칙이 바뀌는 탓에, 선수·지도자·심판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다음은 경기규칙 개선과 관련된 분과위원들의 제안 내용이다.

- ▲ 주먹 공격 빈도를 높이기 위해 발기술과 연계 동작이 나오도록 주먹 공격의 다양성 인정.
- ▲ 기술 발차기로 인해 두 발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얼굴 공격 가격 시 상대 선수가 다운되면 경기 종료.
- ▲ 강한 타격에 의한 다운 시 카운트 후 몸통은 2점, 얼굴은 3점 가산점 각각 부여.
- ▲ 소극적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면 감점 부여 후 상대 선수에게 10초 공격권 부여.
- ▲ 종료 직전 고의로 경기장을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 2점 이상의 감점 부여.
- ▲ 상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앞발을 드는 커트 행위에 대해 감점 부여로 공격 유도.
- ▲ 큰 기술 유도를 위해 회전 발차기에 더 많

은 보너스 점수 부여(몸통 3점, 얼굴 5점).

- ▲ 기술 발차기 후 득점이 표출되면 넘어져도 감점에서 제외.
- ▲ 발 공격에 의해 헤드기어 완전히 벗겨지면 득점 인정.
- ▲ 선수끼리 겨야는 행위 강력 제재(재봉선 안쪽으로 손이 넘어가면 감점).
- ▲ 3회전이 아닌 5분 단회전.

전자호구 개선점

전자호구 문제점은 경기규칙 개선책과 무관하지 않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맞물려 있다. 분과 위원들은 상당수 선수와 지도자들이 전자호구 득점을 복불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태권도 경기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 함에도 전자호구가 길을 막고 있고, 전자호구 시스템에 맞춰 변칙 기술이 횡행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과 위원들이 주장하는 전자호구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 ▲ 공격 기술의 각 부위별, 강도별 차등 득점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 득점이 까다로운 몸통 회전 돌려차기는 15도 이상 돌려차기 공격을 하면 득점이 되도록 몸통 파워값 조정.
- ▲ 뒤 차기 공격 시 힘 전달축인 뒀꿈치 접촉 강도의 특징 표출을 위한 전자호구 보완.
- ▲ 전자호구에 고유 번호를 지정하고 관리해 경기의 신뢰성 확보.
- ▲ 변형된 발차기 방지를 위한 반자동 전자호구 시스템 채택.
- ▲ 득점의 파워값을 낮춰 많은 득점으로 경기 흥미 유도.
- ▲ 발등 보호대 뒀꿈치 센서를 바깥쪽으로 치우치게 해 소위 '제기차기' 득점 방지.
- ▲ 강도에 따라 타격 파워값에 차등 점수 적용(기술 발차기는 2배).
- ▲ 헤드기어 뒷머리 센서 제거.

심판 관련

현재의 전자호구 시스템은 기계가 우위에 있고 인간은 보조역에 불과하다. 과거 고의든 아니든 불공정 판정을 일삼던 인간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기계에 판정을 맡겼다 해도 불공정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선수와 지도자가 전자호구에 의한 판정에 대해 '호7기3', 혹은 '복불복'이라며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래도 판정 시비가 사라진 것은 인간의 자의에 의한 편파 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체에 전자호구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판정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 분과위원들이 차선책으로 주장하는 건 반자동시스템이다.

- ▲ 기계와 심판이 함께 채점하는 반자동 방식 전자호구 선호(타격 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부심 채점기에 진동이 전달돼 부심이 채점. 뒤 차기 발바닥 공격은 부심이 채점).
- ▲ 앞면은 영상 판독 없이 주심 권한으로 득점 인정.
- ▲ 심판의 감점 부여 행위로 경기가 자주 중단되는 점 개선.
- ▲ "갈려" 선언은 감점 행위가 명백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경기 흐름에 맡김.

분과위원들은 이밖에도 태권도 전문 TV 채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전광판에 득점이 표출될 시 효과 음향과 빛을 나타내 득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협회가 독자적 경기 규칙을 만들어 시즌이 끝난 뒤 축제 형식의 이벤트 대회를 개최해 세계태권도연맹 경기 규칙을 앞장서 이끌기를 기대했다. ●

KTA TF팀, 지루함 덜고 박진감 더한 경기규칙 개선안 제시

글 박상욱 WTN 기자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지난 3월 30일, 태권도는 법률로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됐다. 태권도는 국기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국가 차원의 더욱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창신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KTA) 회장은 이러한 환경 조성을 반기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혁신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한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변화의 첫걸음으로 ‘재미있는 태권도’ 만들기를 꼽았다.

재미있는 태권도 만들기 가치를 내세운 KTA는 발걸음을 빠르게 내디뎠다. KTA는 지난 8월 이상헌 사무1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태권도를 할 수 있을지를 골몰하고 있다.

TF팀은 추진 목적을 태권도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경기 규칙 개정 및 경기 운영 방안 마련에 두고 있다. 또한 추진 방향으로 기본(안)을 수립하고 이후 선수·지도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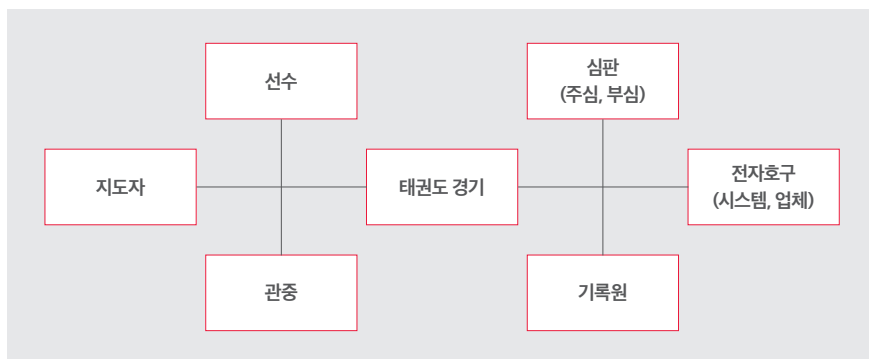
판·학계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차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지난 8월 6일 1차 회의를 열고 중점 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회의 결과, TF팀은 여섯 개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 태권도는 각 분야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자료 1 참조)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불어 현행 태권도 경기 규칙을 공유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문제점까지 도출했다.

TF팀은 ▲ 경기 운영(심판: 주심/부심) ▲ 경

기 규칙(선수 및 지도자) ▲ 경기 규칙(선수 및 지도자) ▲ 전자 호구(시스템 및 업체)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파악했다.

먼저 경기 운영에 대해, TF팀은 경고 감점으로 경기 흐름을 끊는 주심의 잦은 개입과 영상 판독 시 시간제한이 없어 경기가 느슨해짐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 경기 규칙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보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경기 규칙을 지적했다. 여기에 경고 감점 등 다양한 제약으로, 화려하고 큰 기술이 발휘



자료 1. KTA TF팀 작성

되기 어려운 점을 더했다. 더불어 1회전당 시간이 타 투기 종목에 비해 짧은 걸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포인트만을 얻기 위한 소극적 경기 운영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전자호구에 대해선, 센서의 강도가 적정하지 않아 기술 발차기가 아닌 단순 터치로 득점이 되는 것과 태권도의 고유 기술 체계를 벗어난 다양한 변칙 기술 발생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TF팀의 분석에 대해 국제심판과 KTA 상임심판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전자호구 도입 후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된 내용으로, 현행 경기규칙 중 태권도 경기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부분을 정확히 짚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태권도 경기를 반감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이를 개선하고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미시키는 게 다음 단계인 듯싶다.”라고 덧붙였다.

TF팀은 8월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세부별 과제 논의와 개선안을 마련했다. 2차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별 과제는 ▲ 경기규칙 ▲ 경기 운영 ▲ 전자호구 등으로 나뉘는 의됐다.

TF팀 위원들은 경기의 박진감과 관중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극적 상황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경기규칙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체급과 체급 사이 간격이 커 선수 보호 관리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술이 전개되기 어렵다는 데 의

견을 모았다. 경기 운영에 대해선, TF팀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사례를 통해 주심의 권한(감점 등)과 소임 범위 설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전자호구에 대해서도, 경기에 쓰이는 전자호구 제도에 KTA가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업체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TF팀, 태권도 파테르와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운영 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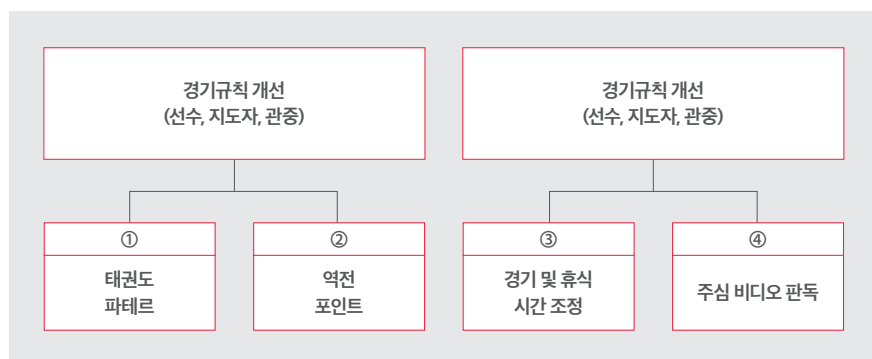
경기규칙 개선안으로, TF팀은 ▲ 태권도 Par-Terre(파테르) ▲ 역전 포인트 ▲ 경기 및 휴식 시간 조정 ▲ 주심 비디오 판독 운영 등을 내놓았다(자료 2 참조).

태권도 Par-Terre는 반칙 행위를 받은 선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공격권이 부여되고, 반복되는 반칙 또는 감점 행동 시 공격권을 박탈하고 수비만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공격권 부여 시 10초가 경과하면 파테르 종료 후 경기를 정상적으로 재개시킨다. 역전 포인트는 경기 종료 10초 전 경기를 역전할 수 있도록 특정 발차기에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기 및 휴식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TF팀은 기존 2분/3회전 시간을 1분 30초/4회전으로 변경하고, 기존 휴식 1분을 30초로 줄여 경기를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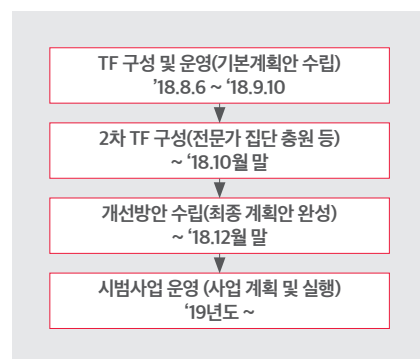
박진감 넘치게 하자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주심이 직접 비디오 판독 과정에 참여하여 판정 체계를 간소화하는 주심 비디오 판독 운영도 제안했다.

TF팀이 내놓은 경기규칙 개선안은 파격적이면서 신선하다는 게 한결같은 평가다. 태권도 Par-Terre는 타 종목을 벤치마케팅한 것으로, 공청회 등에서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나친 소극적 경기 운영과 반칙 행위 등을 지양하고 공격력 배가에 방점이 찍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역전이 가능한 경기 규칙 도입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경기 및 휴식 시간 개선 방안은 당장 도입해도 괜찮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운영안은 현 비디오 판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다. “경기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을뿐더러 일정 기간 심판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비디오 판독위원으로 해야 한다.”라는 여론에도 부합된다. 보다 정확한 판독과 비디오 판독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분석이 지배적이다.

TF팀은 기본(안) 수립 후 향후 계획으로 선수·지도자·심판·학계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차 TF팀을 10월 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KTA는 2차 TF팀이 최종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완성하면 내년엔 이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생각(자료 3 참조)이다. ●



자료 2. KTA TF팀 작성



자료 3. KTA TF팀 작성

황경선 후계자로 거듭난 이다빈,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꿈꿔요”

타오위안(桃園) = 글 서완석 사진 양택진



이다빈

장면 1

지난해 12월 4일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의 래디슨 호텔, 2017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펼쳐진 태권도 대회 중합 시상식인, 세계태권도연맹(WT) 갈라 어워즈 무대가 열렸다. 한국은 간판스타 이대훈이 남자 부문 '올해의 선수'로 선정돼 종주국 체면을 살렸다. 한국은 이어 2017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를 무난히 치른 공로로 '국가 협회상'을 거머쥐었고, 신설된 '최우수 국가대표팀' 초대 수상국이 됐다. 2017년 세계 선수권대회와 그랑프리 전 시리즈에서 압도적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협회상과 최우수 국가대표팀상을 받으려 단상에 오른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장의 마음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바로 여자 부문 '올해의 선수'로 뽑힌 비안카 위크던(영국) 때문이었다.

이틀 전 열린 2017 WT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67kg급 결승에서, 위크던은 한국의 이다빈을 꺾고 이 체급 최강임을 과시했었다. 위크던은 무주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을 비롯해 2017년 그랑프리 3개 시리즈와 파이널까지 전관왕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무적의 여자 선수'로 군림했다. 2013년 그랑프리 시리즈가 개최된 이래 한 해 전관왕은 위크던이 남녀 통틀어 처음이었다. 수상자 기념 촬영을 위해 위크던 옆에 섰었던 최 회장은 "“우리는 언제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시샘 반 부러움 반의 착잡한 심정이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장면 2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8년 9월 20일 타이완(臺灣) 타오위안(桃園) 시립체육관. 2018 월드 그랑프리(WG) 3차 시리즈 여자 +67kg급 결승전이 열렸다. 지난해 그랑프

리 파이널과 마찬가지로, 결승전 출전 선수는 위크던과 이다빈(22·한국체육대학교)이었다. 위크던은 2회전에서 코트디부아르의 복병 아미나타 트라오레에 9-8의 아슬아슬한 역전승을 거둔 뒤 어렵지 않게 결승까지 왔다. 한국의 기대주 이다빈은 2016 히우(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국의 정수인을 준결승전에서 만나 난타전 끝에 24:23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지난해의 설욕을 버리고 있었다.

올림픽 랭킹 10위에 불과한 이다빈은 그동안 1위 위크던을 두 번 만나 모두 패한 아픔이 있었다. 위크던을 넘어서지 못하면 세계 정상을 밟을 수 없기에, 이다빈으로서는 일생을 건 경기였다. 오로지 위크던만을 생각하며 이 대회를 준비했고, 마침내 기회를 잡은 것이다.

1회전은 탐색전 끝에 2:2 무승부였다. 고무적인 점은 앞선 경기까지 주 득점원이었던 위크던의 앞발 옆구리 연속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다빈의 수비 동작이 효과적이었다. 2회전에 접어들자, 이다빈의 공격이 활발해졌다. 몸놀림은 가벼웠다. 앞선 준결승전에서,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최창신 정수인과 악전고투를 치

렀기에, 체력 회복이 승부의 관건이었다. 하지만 몸통 공격과 주먹 공격이 잇달아 점수가 되면서 앞서 가기 시작한 이다빈은 1분 16초에는 강력한 얼굴 공격을 퍼부어 상대를 휘청거리게 했다. 세계 랭킹 1위인 위크던이 휘청거리자,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카운트를 세야 했다. 최강을 자부하던 위크던의 자존심이 한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다빈은 또다시 얼굴 공격을 성공시켜 2회전이 끝났을 때는 17:4로 일방적으로 앞서 나갔다. 3회전 역시 이다빈이 일방적으로 못매를 가하는 형국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위크던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최종 스코어는 22:6.

이다빈으로서는 그랑프리 대회 첫 우승에 오른 감격스러운 날이었다. 반면 위크던이 이처럼 무참하게 무너지기는 처음이었다. 영웅의 몰락과 새로운 스타 탄생은 이렇게 이뤄졌다.

이다빈, WG 첫 우승 감격 ... 최 회장, “3차대회 최대 수확”

‘이다빈’이라는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자, 가장 먼저 WT 관계자들이 한국팀을 찾아



이다빈(오른쪽)이 세계 최강 비안카 위크던을 발차기로 공략하고 있다



20187 월드 그랑프리 3차대회 여자 +67kg급 결승전에서, 이다빈(오른쪽)은 워크던을 가볍게 꺾고 정상에 올랐다.

축하를 보냈다. 지난 2년간 워크던의 일방적 우승을 지켜봤던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올림픽 챔피언과 세계 랭킹 1위를 연파한 이다빈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다.

경기를 지켜본 최 회장은 “준결승전에서 정수인과 명승부를 펼친 점만으로도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워크던을 꺾고 우승까지 하니 지난해의 체증이 확 뚫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이라면 이다빈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얻은 것이다. 올림픽에서 금 2, 동 1개를 수확한 황경선의 은퇴로 이 체급이 허전했었는데, 앞으로 이다빈이 ‘황경선의 후계자’로 활약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다빈이 우승 후 인사를 하러 오자, 최 회장은 “(이)다빈과 발음이 비슷한 ‘터빈’이 어때냐?”라며 즉석에서 별명을 지어 주기도 했다. 사실 이다빈은 올림픽 4개 체급별 세계 32강이 출전한 이번 대회 4경기를 치르면서 올림픽 최종량급 선수에 걸맞지 않는 빠른 몸놀림과 끊임없는 공격으로 ‘터빈엔진’ 같은 넘치는 에너지를 과시했다.

첫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이다빈은 “아시

안 게임에서 우승한 뒤 올해 안에 꼭 그랑프리 1위를 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했는데 지켜서 기쁘다. 2020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귀국길에는 조정원 WT 총재와도 공항에서 조우했다. 조 총재는 이다빈을 알아보고는 “더욱 열심히 해 세계적 선수로 오래 남으라.”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장의 열세를 빠른 몸놀림으로

나이는 어리나, 이다빈은 이미 아시안 게임 2연패란 관록을 쌓은 선수다. 울산 효정고 3학년 시절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62kg급에서, 이다빈은 금메달을 따내며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67kg급에 출전해 역시 조국에 금메달을 선사한 ‘될성부른 나무’였다.

그러나 이다빈의 활약은 아시아 무대에서만 먹혀들었을 뿐 월드 클래스에는 못 미친다는 평이 많았다. 실제로 연간 4~5차례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했다. 워크던이 늘 이다빈의 앞을 가로

막았다. 다만 위안이라면 히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수인에게 네 번 모두 이기며 항상 세계 정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다빈은 올림픽 최종량급인 +67kg급 선수 치고는 체격이 작다. 177cm에 평소 체중 71kg을 유지하는 이다빈은 항상 그보다 장신인 선수와 겨뤄야 했다. 중국의 정수인과는 겉보기에도 머리 하나는 작은 신장이었다.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다빈이 정상급 선수로 성장한 데는 상대적으로 빠른 몸놀림이 있었다.

“체중을 빼 -67kg급으로 출전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평소 체중으로 큰 선수와 대결하는 게 편했다. 신장이 월등히 큰 선수들은 그만큼 몸놀림이 둔하지 않나? 그 약점을 파고들어 주먹 공격을 하면 쉽게 득점할 수 있다.”

이다빈은 이번 대회에서 점수가 1~2점 뒤져 있을 때면 성공률이 낮은 발 공격 대신 주먹 공격으로 점수를 만회하는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신재현 한국가스공사 감독은 “다빈이가 과거 -62kg급 선수로 뛰면서 익힌 풋워크가 요즘 큰 선수와 상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신체는 작아도,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장신 선수들을 이기는 요령을 깨친 듯하다.”라고 칭찬했다. 대학 졸업반인 이다빈은 내년부턴 서울시청 팀 선수로 뛴다.

엄청난 체력 훈련 ... 급성장 비결

이다빈은 울산 옥봉중 1학년 때 “태권도를 배우러 간다.”라는 친구를 따라 함께 도장을 찾은 것이 태권도 입문의 계기가 됐다. 친구 따라 강남 간 격이다. 우연히 도복을 입은 소녀는 9년 뒤 세계를 호령하는 스타급 선수로 성장했다.

올 들어 급성장 비결은 다름 아닌 근력 강화 운동 때문이다.

“전자호구로 채점하는 지금의 태권도에선 키 큰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 점에서, 신장이 작아 불리하다. 또 선수가 붙었을 때 상대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체력 싸움이 매우 중요해졌다. 올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 이젠 재미가 붙었다.”

이다빈은 자신의 롤모델이기도 한 황경선(고양시청)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은퇴 예정인 황경선은 대회를 앞두고 인천선수촌에서 이다빈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 줬다.

“(황경선) 언니가 국제 대회에서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고 했다. 고비 때마다 그 말을 되뇌며 헤쳐 갈 수 있었다.”

이제 막 세계 무대에 고개를 내민 이다빈의 앞날은 마냥 ‘맑음’만은 아니다. 상대 선수들이 그를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이다빈이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도 제품 전자호구와 궁합이 맞지 않는 점도 걸린다.

사실 이다빈은 아시아 존에서 주로 사용하는 KPNP 제품 전자호구와는 잘 맞았다. 우승도 여러 번 했다. 그렇지만 대도 제품을 쓰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회 우승은 아직 없다. 그래서 10월 19~21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WT 그랑프리 4차 대회는 이다빈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 대회에서마저 홈그라운드 의 워크던을 이긴다면, 이다빈은 진정한 세계 최강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김태훈-장준의 맞대결, 여전히 김태훈의 우위



20187 월드 그랑프리 3차대회 남자 -58kg급 준결승전에서 맞붙은 김태훈(오른쪽)과 장준.

이번 대회 또 하나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남자 -58kg급 최강자 김태훈(24·수원시청)과 ‘겁 없는 고교생’ 장준(18·홍성고)의 맞대결이었다. 결과는 김태훈의 승리로 나타났다. 이 체급 세계 최강인 김태훈은 자신의 아성을 지켰고, 장준은 아직은 김태훈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승부는 연장전까지 갈 만큼 박빙이었다. 준결승전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한 둘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초반 탐색이 길었다. 김태훈이 특특 가벼운 몸통 공격을 시도하면, 장준은 역습을 노리는 양상이었다. 김태훈의 세컨드를 맡은 양소이 코치와 장준의 세컨드인 이동완 코치는 말없이 제자들의 대결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태훈은 3회전 초반까지 몸통 공격과 머리 공격으로 5:0으로 상당히 앞섰다. 하지만 뒤늦게 발동이 걸린 장준의 반격이 무서웠다. 뒤돌아차기로 단번에 4점을 만회하더니 종료 47초 전에는 원발 얼굴 공격으로 단번에 전세를 7:5로 역전시켰다. 그렇지만 이후 소극적 경기 운영으로, 2번

의 감점을 내줘 7:7 동점이 됐다. 지난 2018 아시안 게임 최종 선발전에서도, 두 선수는 연장전 끝에 승부를 가린 바 있다. 연장전에서, 김태훈은 원발 돌려차기 몸통 공격을 성공시켜 결승 진출을 향한 중대 고비를 넘겼다.

경기 후 장준은 “우승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없이 너무 안일하게 경기에 임했다.”라고 자책했다. 장준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패기로 밀어붙여야 했는데, 소극적으로 임한 게 패인이었다.”라고 패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일부 선수들이 다잡은 경기를 맥없이 내주는 등 부진을 보이자, 대표선수 정신력 강화가 주요 숙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종기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투혼도 없고 패기도 없었다. 영혼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발차기를 하는 것 같았다. 이 같은 안일한 정신 상태로 선수촌에 들어오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 대표선수 개편을 해서라도 선수들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겠다.”라고 일부 대표선수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 태권도, 미래의 갈 길을 구한다

진천선수촌 = 글 사진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강호동 코치(오른쪽)가 이끄는 유스 올림픽 대표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빈, 김강민, 조원희, 강미르, 이예지.

하계, 동계,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또 하나의 올림픽이 있다. 유스 올림픽(Youth Olympic Games, YOG)이다. 일반에는 좀 덜 알려졌지만, 14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올림픽이다. 2010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하계 유스 올림픽을 시작으로 출발한 이 대회는 보통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하계와 동계를 번갈아 가며 각각 4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스 올림픽은 일반적 올림픽에 비해 교육과 교류를 강조한다. 전 세계 젊은이가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다국어를 통한 공존을 배운다. “아는 것을 배우고, 되는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을 배우고, 공존하는 것을 배운다 (Learning to know, learning to be, learning to do, and learning to live together).”라는 것이다. 바로 유스 올림픽이 내세우는 목표다.

낙관하기 어려운 도전 목표 달성

이번에 열리는 제3회 유스 올림픽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열린다. 태권도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날수 기준) 동안 열린다. 남녀 각 5체급(남자 48kg·55kg·63kg·73kg·73kg 초과, 여자 44kg·49kg·55kg·63kg·63kg 초과)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유스 올림픽 참가 자격을 가리는 예선 대회는 지난 4월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열렸다. 이 대회 각 체급 8위까지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졌는데, 세계태권도연맹(WT)은 국가당 남녀 총 6체급까지만 출전할 수 있도록 티켓을 제한했다.

이 예선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 -48kg급 임성빈(한성고), -55kg급 김강민(충남체고), -63kg급 조원희(풍생고), 여자 -44kg급 강미

르(성주여중), -49kg급 이예지(홍해공고) 등 총 5명이 올림픽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6명이 출전한 가운데 5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행 티켓을 획득했다. 유스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출전권을 확보한 결과였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5명 가운데 은메달을 따낸 강미르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8강에서 탈락한 후 가까스로 8위 안에 든 결과였기 때문이다. 튀니지 예선 대회를 토대로 한 예상 가능한 객관적 성적은 은메달 한 개에 불과하다. 이번 유스 올림픽 대표팀을 지휘하는 강호동 코치의 예상 성적에 대한 답변은 더욱 냉정하다. “남녀 각각 동메달 한 개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태권도가 국제 대회 금메달을 석권하다시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관적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튀니지 예선 대회에서, 선수들도 자신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진천선수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진천선수촌에서 받고 있는 훈련에 대한 선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선수촌을 찾은 지난 9월 13일 오후, 제2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대항대회 참가로 자리를 빈 김강민을 제외한 임성빈·조원희·강미르·이예지 등 4명의 유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이대훈·김태훈·오혜라·김소희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배들과 함께 똑같은 훈련을 소화해 내고 있었다. 존경하



임성빈

는 '대훈이 형', '태훈이 오빠', '헤리 언니', '소희 누나' 등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이들 청소년 대표들에게는 감동스러운 경험이었다.

예선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기에, 이번 유스 올림픽 기대주 1번으로 꼽히는 강미르는 “지난 예선 대회 때 배가 고파서(체중 조절로) 힘이 달렸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한 체급 높였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긴장 안 하고 편하게만 하면 1등 할 자신이 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대표팀 막내다운 대답이었다. 자신감에 있어서는 이 예지도 마찬가지였다. “좋아하는 헤리 언니와 함께 운동하면서 언니의 투지를 본받고 싶다고 하고 있다. 점수가 앞서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뒤지고 있을 때 흥분하는 게 약점이다. 이 점만 고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미르와 이예지 모두 청소년답게 패기에서는 고무적이었다. 다만, 둘 모두 체급에서 작은 편에 속한다는 점에서 체격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포스트 이대훈을 꿈꾸는 임성빈은 지난 예선대회 8강전에서 자신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우즈베키스탄의 라쉬토프 울르그벡에 대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초반에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울르그벡과 벌일 승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골반 부상이라는 악재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의 롤모델 이대훈이 그런 것처럼, 임성빈이 누구보다 성실한 선수라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한다. 체력 훈련과 함께 그 성실성이 얼마나 올림픽 무대에서 빛을 발휘할 것이냐 하



이예지

는 점이 관건이다.

진천선수촌 훈련 효과를 당장 체험한 선수는 김강민이다. 김강민은 국방부장관기에 참가해서 우승하고 돌아왔다. 우승 원동력이 바로 진천에서 받은 체력 훈련이었다는 게 김강민의 자평이다. 유연성과 경기력이 좋은 김강민에게 진천선수촌에서 받은 체력 훈련이 더해진 결과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조원희는 어린 나이에 비해 침착하고 차분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공격성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된다. 튀니지 예선에서 조원희에게 패배의 쓰라림을 안겼던 선수도 우승을 차지한 이란의 아스거리 하메드였다. 임성빈의 경우처럼 이번 유스 올림픽에서 초반에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라는 각오가 필요할지 모른다.

이번 유스 올림픽 대표팀은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 약체로 분류된다. 그래서 동메달 두 개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 강 코치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지난 튀니지 예선 대회 결과가 현재 우리 대표팀의 객관적 전력이다. 외국 선수들이 체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뒤진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선수 대부분이 예선에서 턱걸이로 출전권을 따냈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자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성적만을 놓고 볼 때, 여러 면에서 이번 유스 올림픽은 어려운 대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미르

“결과 떠나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것”

이번 유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대회 한 달여 전인 9월 초부터 진천선수촌에 합류해서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강 코치는 행정 절차상 그달 20일이 되어서야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강 코치는 선수 중 하나인 강미르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이번 선수단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학부모 처지에서 대표팀을 이끈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로 대회 결과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강 코치는 한국 태권도의 미래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번 대회는 말 그대로 유스 올림픽이 아닙니까? 미래가 있는 우리 선수들이 진천에서 훈련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배운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본무대인 유스 올림픽에서는 결과를 떠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앞으로 우리 태권도를 이끌 어린 선수들에게 큰 보약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결과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10월 2일 출국한 한국 대표팀은 오는 21일 귀국한다. 긴 일정이다. 태권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유스 올림픽 특성상 여러 가지 문화 교류 행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이번 유스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은 운이 좋은 선수들이다. 이들에게 한국 태권도의 미래가 걸려 있다. ●





변화를 좇는 자가 위기를 호기로 변환할 수 있다

글 최규섭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도장이 울부짖는다. 좀처럼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경기 침체는 깊어져 수련생이 줄어든다고 한탄을 금치 못한다. 신경 돌기라 할 수 있는 일선 도장이 쇠약해지면, 신경 세포인 대한민국의 태권도협회도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연쇄적으로, 중추 신경인 한국 태권도는 종주국으로서 지녀야 할 위상이 추락하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지 모른다.

필연의 사실로 나타날까? 그렇지 않다. 위기는 호기의 단초다.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두 말 사이엔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순으로 또는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생사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塞翁之馬(세옹지마)]고 하지 않던가. 능동적으로 수용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위기를 호기로 반전시킬 수 있다.

처방전은 현존한다. 단지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묘방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이다. 구태의연한 답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옛것을 익히되, 이에서 헤아려 새 길을 구해야 한다.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고 답을 찾으려 할 때, 도장 활성화는 가깝게 다가온다. 그 첫걸음은 태권도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지도자의 의식 변화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

글 손성도 KTA 심사관리위원장 사진 KTA DB, 손성도 제공

1998년 8월, 필자는 전국에서 수련생이 가장 많은 도장 지도자로 선정(대한민국태권도협회·태권도신문사 공동 주관)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성공 사례 발표를 했다. 이후 태권도계에서, 다소 이름이 알려졌다. 이때부터 대한태권도협회(KTA) 1기 도장분과 강사로 다년간 각 시도협회를 순회하며 특강을 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경험과 연구 내용을 토대로 도장 활성화를 돕고자 제시하는 것으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다.

고객이 태권도장에 따라 교육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깝다고 그냥 보내는지에 대해 연구 조사를 한 바 있다.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도장의 교육적 차이 선호 수준 분석

남자 아이를 둔 부모는 도장마다 교육적 차이에 대하여 ▲ 차이 조금(50.1%), 차이 많음

(35.2%) 등으로 ▲여자 아이를 둔 부모는 차이 조금(52.4%), 차이 많음(34.2%)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고객은 도장마다 교육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5%를 넘는다.

그렇다면 그 교육적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생긴다. 보여 주는 정도에 따라 도장의 활성화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보이지 않는 상품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고객은 태권도를 구매하기보다 태권도의 교육적 가

치를 사고 싶어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따라, 고객은 도장의 교육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듯싶다.

지도자는 도장 경영 요인 여섯 가지(지도자·프로그램·위치·학부모 관리·인테리어·홍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모두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위치가 좋아 100명이 입관해도, 관리가 부실해서 101명의 퇴관으로 이어



2018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장 경영 악화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 가장 크다. 지금도 성장하는 도장을 보면 출산율 탓이나 경기 탓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도장 지도자는 수련생을 지도함에 있어 교육자 마인드를 갖춘 지도 소신과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령은 아무나 볼 일 수 있지만, 지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이에 적절한 지도와 내용이 사회적 요구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태권도장이 일반적 경영 방법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도장 경영과 관련하여 개인만의 소신이 필요하다.

특히 도장은 고객에게 태권도라는 상품으로 교육적 행위를 제공한다는 서비스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처지에서 자유롭고자 하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곧 방만으로 이어져 수련생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인성교육 애니메이션도 보여주는 게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는 도장이 있다. 지도자는 교육 환경의 질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① 휴대전화를 들고 도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

태권도장에 들어갈 때엔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안 된다. 수련생을 지도하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걸 수련생에게 보였을 경우, 수련생은 지도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모두 알게 되고 결국 다음 같이 반응한다. “사범님이 친구하고 싸웠는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범님은 쉬는 시간에는 친구하고 문자 주고받느라 정신없어요. 우리하곤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이것은 곧 사범의 신뢰감만 떨어



2018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장 전체의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도장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성숙된 모범적 행동을 수련생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성장기 수련생에게는 다양한 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술과 담배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

술과 담배를 할 경우, 그 냄새가 수련생에게 전달될 수 있다. 도복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수련생은 지도자에게 가깝게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수련생과 학부모에게 불쾌감을 주면, 수련생은 지도자가 가깝게 다가오는 걸 싫어한다. 실제로, 한 어린 수련생이 “지난번 다녔던 사범님 몸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서 옆에 오시는 게 싫어요.”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다.

③ 도장에선 고객이 바라는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다짐

고객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장이 존재한다. 같은 맥락에서, 태권도 상품을 사고자 하는 고객이 있기에, 지도자가 있다. 따라서 도장엔 개인 흥길동이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바

람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자적 자질을 함양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도장을 떠나서는 개인 생활이 있을 수 있으나, 도장에서만은 수련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지도자만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장에서 고객의 바람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고객을 무시하는 행위에 속하며 죄를 짓는 일이다.

필자는 사범을 채용하면서 당사자에게 반드시 해 주는 말이 있다. “이제 개인 흥길동, 너는 없다. 나는 흥길동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사람만 원한다. 그러므로 도장에서는 개인적 행동이나 그에 관련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명시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장을 떠나야 한다고 미리 일러둔다. 도장 안의 모든 조건은 철저히 수련생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사범들이 깨닫지 않는 한, 수련생을 위해 겸허하게 헌신하는 사범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④ 생산적·진취적 자세를 갖는다는 다짐

수련생을 지도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짜증나게 되고, 이는 불행한 삶을 초래한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창의력과 해결 방법이 생긴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수련생의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길거리에 뒹굴고 있는 하찮은 낙엽 하나라도 예술가의 눈에는 작품이 되지만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쓰레기로 보인다. 수련생의 참교육을 위해서 보이는 모든 소재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눈으로 봐야 한다. 거친 황무지를 한탄하는 시간보다는 이를 개간하기 위해 적절한 연장을 고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⑤ 도장과 수련생 지도와 수련생에게 몰입한다는 다짐

지도자는 수련 시간에 수련생에게 몰입하여 지도해야만 한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도하면 수련생도 결집이 안 되고 흩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집중이 안 된다. 몰입해서 지도하면 수련생의 표정, 행동, 수련 효과 등이 마음으로 느껴진다. 이는 수련 효과를 보다 더 극대화하는 수단이 된다. 수련생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며 지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몰입 효과를 통해 다양한 동기 유발과 전략과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수련 계획표대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날씨와 기타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런 때 수련생에게 몰입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수련생에게 열정, 사랑, 그리고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도법이 된다.

관장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범이라면 수련생에게 불행한 일이다. 수련생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지도자라면 수련생은 지도해선 안 된다. 그런 도장 지도 환경이 반복된다면, 수련생과 지도자 가운데 누가 떠나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⑥ 사랑으로 지도하겠다는 다짐

수련생 지도 시에 이성과 감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지나친 열정은 감정을 부를 수 있어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도자 본래의 태도를 망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체벌을 통해 고객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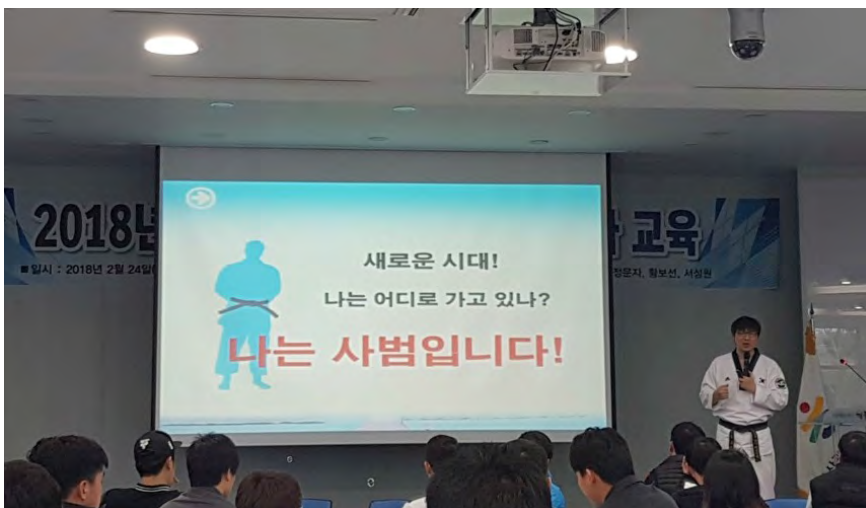
필자는 도장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해야 한다,” “사랑으로 보살피자.” “고객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등등의 주문을 외우기도 한다. 수련생이 전날 결석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야단을 맞아야 할 경우, 도장으로 들어서는 수련생에게 화난 표정을

짓거나 야단을 칠 때가 있다. 이는 수련생이 도장과 지도자를 무서운 곳이나 두려운 사람으로 인식하여 멀리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인사는 인사로 반갑게 받아야 한다. 특히 도장으로 들어서는 아이에겐 항상 밝은 미소로 응대해야만 한다. 스스로 느끼는 시간을 주어서 깨닫게 한 후 지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잘못은 분명하고 따끔하게 하고, 사후 처리는 따뜻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고객이 지도자와 도장을 무섭게 생각한다면, 이는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도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 판단의 몫이다. 채찍과 당근의 적절성, 참 중요하다.

⑦ 과학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다짐

수련 프로그램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험에 의하기보다는 과학과 만남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속되는 즉흥식 지도는 수련생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고객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다. 더불어 지도자 자질을 스스로 타락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무분별한 교육적 소재가 난무하고 있다. 검증 없는 내용을 수련생에게 접목하다 보면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음을 값비싼



도장 경영 세미나



손성도 KTA 심사관리위원장

대가를 치르고 뒤늦게 깨닫는다. 경험이 중요하긴 하나 반드시 과학적이라 할 수 없다. 경험은 과학과 만남을 통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른다는 것은 이제 더는 자량이 될 수 없다.

수련생은 점점 상식의 폭이 커지는데, 지도자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수련생은 지도자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수련생이 겁나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지도자, 노력하지 않는 지도자, 부족함을 모르는 지도자, 힘으로 누르려는 지도자, 논리적이지 못한 지도자 등을 올바른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⑧ 수련생이 사과를 원하면 사과해야 한다는 다짐

수련생을 지도할 때, 개별화 원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개개인에 필요한 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도장 환경상 개개인의 맞춤 지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지켜야 한다.

승품·단 대상자는 유급자 운동에 별 관심이 없다. 유품자 품새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숙련된 유급자 품새만을 반복해야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승품·단 날짜가 임박해서야 유품자 품새를 지도하면서 갑자기 완벽한 동작을 요구하면, 대상자에게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쌓은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문제를 모르는 사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없다.”라고 관장에게 말하는 사범이라면, 수련생에게는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승 잘못 만나 제자 노릇 하기 힘들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나오지 않을까?

⑨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

태권도 수련은 단순 반복적 특성으로 말미



도장 경영 세미나

암아 수련생이 싫증을 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반복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은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수련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다양한 방법과 지도로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 전 이 교육이 왜 필요하고 반복 숙달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수련생에게 강요만 하면 도장을 떠나는 수련생이 늘어날 수 있다.

태권도 지도자는 그 어떤 분야보다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말의 위엄성, 강약 조절 문제, 연기, 순발력, 위트, 논리적 대화, 유도 방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자에 따라서 수련생의 운동 효과가 달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장 내에 거미줄이 있는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지, 수련생이 왜 결석하는지, 퇴관으로 이어지는 사전 조짐이 있는지, 관장님이 왜 직접 지도하는지, 결석생이 누구인지, 어느 기간 결석했는지를 모른다면 이런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기본 소양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다.

또 관장이 쓴 가정 통신문을 읽어 보지 않는 사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범, 사범의 소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범, 한 번 지시한 내용을

반복해서 실수하는 사범, 지도자와 교육자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범, 수련생의 힘겨움을 보이지 않는 사범이라면, 이는 도장과 수련생을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관장이 시켜야 움직이는 사범이라면 도장과 수련생에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을 안겨 준다. 이 시대는 창의력과 주인 정신을 지닌 사람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때리지 않겠다는 다짐, 진정한 교육자가 되겠다는 다짐, 부모의 아픔을 덜어 드리겠다는 다짐, 미래의 씨앗을 심는다는 다짐 등 자신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짐을 다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다짐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게 되고, 그게 쌓여서 최적의 도장이 된다. 도장은 상업적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보람을 찾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흥만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수련생에게 보이는 지도자의 태도는 그 도장의 가치를 평가받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신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㉓



태권도장 전문가가 보는 한국 태권도 위기의 본질

글 박성진 태권도 인사이드 기자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이종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도장 사업부 부장 직무대리(사진)는 한국에서 태권도장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KTA에 입사할 때부터 태권도장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주 업무로 해 왔다. KTA에 입사한 이후 태권도장 경진대회, 태권도장 박람회 등 대박 히트 상품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도 바로 그다. 그런데 그는 한국 태권도가 위기에 처했다며 새로운 태권도, 즉 '뉴 태권도'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태권도의 위기란 무엇이고, 대안으로 말하는 뉴 태권도란 무엇일까? 그가 직접 전하는 뉴 태권도다. [편집자 주]

“태권도가 위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여기서 묻고 싶다. 어떤 것이 위기란 말인가? 저출산에 따라 태권도장의 주 고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도장 수가 너무 많아서 과열 경쟁이 위기인지, 또는 선수 수가 줄어서 위기인지, 도대체 진짜 위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태권도장의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 위기임에 틀림없다. 도장 수 과다 역시 위기가 맞다. 선수(엘리트)층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권도는 타 종목에 비해 배부른 종목일 수 있다.

내가 보는 진짜 위기는 내부 문제다. 우리 안의 문제다. 현재 태권도는 두 번째로 내놓을 캐치프레이즈가 없다. 태권도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놓은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세계화’였다. 그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며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쾌거로 대성공을 거뒀다. 그 세계화 과정에서 명암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건 태권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적할 부분이 없지 않다. 수적 측면을 놓고 볼 때, 지난해 태권도 승품단 응시자 수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주 심사 대상 인원을 놓고 볼 때도 8%가 되지 않는다. 만약 문제량의 문제라면, 이 8%라는 숫자를 10% 또는 20%로 올리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태권도의 진짜 위기는 태권도장에 태권도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거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두 나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기술이 있는 도장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곧 태권도 기술을 말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에서는 찾기 어려운 진짜 태권도를 말한다.

미국에 진출한 선배 사범들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듯하다. 그런데 그 성공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태권도의 기술과 더불어 충과 효로 대표되는 태권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이 미국 태권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붐이 불었던 중국 태권도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중국 태권도장에는 얼마나 태권도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다. 중국 태권도의 발전을 이끌어 낸 것은 태권도 자체라기보다는 태권도 마케팅이 아니었느냐

점이다.

이 두 빅마켓을 비교할 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태권도장에 가 보면 태권도라는 이름을 빌린 체육 시설 업체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지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물론 미국에도 이러한 태권도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 정통 태권도장에 대한 어떤 미안함 같은 게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도장에서는 전혀 그러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모두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태권도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위기에 놓여 있다는 한국 태권도 문제는 한국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본다. 한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은 30대에 들어서면 서부터 지도 사범에서 도장을 경영하는 관장으로서 자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운 태권도란 무엇이였을까? 이들이 배운 태권도는 과연 정통 태권도인가 하는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들이 배운 태권도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우와 더 흡사하지 않은가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땀을 흘리는 태권도가 아니라 마케팅에 치우친 태권도다. 그것은 태권도장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느냐는 데에 달려 있다. 땀을 흘린 태권도와 그렇지 않은 태권도다. 대략적으로 단순히 말하면, 1980년대까지는 태권도장에 땀으로 대표되는 태권도가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형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인성 교육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강조되면서 땀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곰곰 생각하게 된다.

인성 교육의 실체는 땀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수련생이 아니라 그 수련생의 부모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땀을 흘리는 태권도가 아니라 느끼는 태권도를 한 태권도인들이 바로 지금 30대 태권도인들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배운 걸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 태권도장에 태권



KTA는 '뉴 태권도' 구현 방안의 하나로,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를 매년 연다. 올 박람회에 참가한 일선 도장 사범들이 KTA 강사와 진지하게 교육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태권도 위기의 본질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사범들에게 태권도 자체를 강조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다시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결국은 지도자, 즉 사범의 역량 강화가 해결책이다. 그것이 태권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요즈음 사범 교육 현장에선, '저런 실력으로 태권도 사범이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터져 나온다. 장롱 속에 있는 4품을 4단으로 바꿔서 태권도 지도자가 되는 길을 과연 그대로 밟게 용인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태권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태권도는 지금과 같은 시장(유소년)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제는 누구나 느끼고 있다. 당연히 성인 태권도를 지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실버 태권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태권도의 소임과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듯싶다.

여기에 뉴 태권도를 제창하고 싶다. 뉴 태권도란 그동안 태권도 안에 내재되어 있으나 잊어버렸던 점들을 다시 찾아서 드러내는 것이다.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자는 말이 아니다. 잃어버린 우리 것을 다시 찾자는 말이다.

태권도의 복고 운동인 셈이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술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치고 차고 막는 것은 다들 비슷하다. 중요한 특징은 특정한 무술이 자신의 것을 만들어 내는 점이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품새를 통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코어 운동'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해 뉴 태권도를 제창하고 새로운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한 가지는 가르쳐 줄 무언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한국 태권도, 국기원만이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뉴 태권도다. 이것이만 들어지지 않으면 미래에 미국과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외국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찾을 이유가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뉴 태권도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을 정리해서 새롭게 만든다면 제2, 제3의 태권도 전성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태권도장에는 교육, 건강, 행복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태권도를 통해 이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뉴 태권도의 요체다." 

도장 탐방 <4> 아리랑 태권도장

한국 성인 태권도의 개척자. 자부심 바탕으로 도장 운영

글 사진 박성진 인사이드 태권도 기자



진상은 아리랑 태권도장 사범

성인 태권도는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태권도계에서는 생소한 말이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이제는 '성인 전문 태권도'를 내세운 도장들이 제법 생겨나고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멀지 않은 곳에서 성인 태권도를 한다는 태권도장을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 앞에서, 성인 태권도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승자 보호법’이다 뭐다 해서 이제는 차를 태워서 데리고 왔다 데려다 줘야 하는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

무모한 도전이

성공의 과실로 이어진 배경

다시 성인 태권도로 돌아와 보자. 벌써 10년 이상 지난 2007년, 아이들은 없는, 말하자면 ‘19금(禁)’ 성인 전문 태권도를 표방한 태권도장이 있었다. 아리랑 태권도장이다. 지금도 성인을 전문으로 하는 태권도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않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인 전문은커녕 성인이 태권도를 배우는 태권도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애들은 가라.” 하며 성인만을 대상으로 태권도장을 시작했다면 섣뜻 믿기 어렵다. 그런 무모한 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무모한 도전의 주인공은 진상은 사범(42)이다. 아리랑 태권도장을 만들었고, 현재도 대표 사범을 맡고 있다. 진 사범에게 물었다. 왜 성인 전문 태권도장을 시작했는가? “한국에 태권도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만 개 이상의 태권도장이 있는,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 태권도장이 없다니... 진 사범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자.

“다른 태권도 지도자들에 비해 태권도를 늦게 배운 편이다. 다른 운동(합기도)을 먼저 접했고, 고등학교 때 비로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내 또래(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었다.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내가 다른 운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기 정도는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인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관장님으로부터 곧 초단 심사를 보아

도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른 수련생들의 미트를 잡아 주는 보조 사범 역할을 맡았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벌써부터 배우기보다는 지도를 도와주는 처지에 서게 되니 태권도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다. 그래서 태권도를 그만두고 다른 전공(관광 경영)으로 대학에 들어간 후, 클럽 형식으로 다시 태권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공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다. 그때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태권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정작 이들이 태권도를 배울 태권도장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종주국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태권도장’ 간판을 찾아서 갔더니, 정작 그곳에는 아이들만이 가득하고 구령과 기합 소리보다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더 들렸으니 말이다. 진 사범은 진지하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길은 없었다. 말 그대로 취미 활동으로서 태권도를 접하다가 자신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다가 더욱 진지하게 태권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진 사범은 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 관련 회사(호키 태권도)에 입사한 후 태권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됐다. 여기서 만난 외국인을 통해 태권도가 해외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국을 대표하고 알리는 문화로서 태권도가 어떤 기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태권도 이상 가는 한국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다 진지하게 태권도 사범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한 진 사범은 마침내 호주에 가서 태권도 사범 생활까지 경험했다. 호주에서, 진 사범은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처음 호주에 태권도 사범으



로 갔을 때, 자신이 사범으로서 대단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종주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이라는 점에서 현지 태권도인들에게 환대받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호주의 태권도장에서 만난 태권도인들은 이미 그들의 태권도 문화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고, 딱히 한국 사범이라고 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거나 환대하지는 않았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문화로서 태권도를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문화는 성인 태권도 문화였다.

아리랑 태권도장 명칭 탄생 비화

그런데 한국은? 당연히 한국에서 성인 태권도 수련생의 문화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진 사범은 결심했다. ‘한국의 태권도를, 또 태권도장을 바꿔 봐야겠다. 다 바꿀 수는 없더라도 나부터라도 시작해 봐야겠다.’ 젊음을 바쳐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2003년 호주에서 돌아온 진 사범은 자신의



아리랑 태권도장은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수련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전공과 관련된 일을 구했다. 그러다가 2007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일랜드 출신 외국인을 만났다. 아리랑 태권도장의 실질적 출발이 된 계기였다. 진 사범은 친구가 사범으로 있는 태권도장을 빌려서 그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도장은 자양동에 있는 자양 태권도장이었다. 그 때 그 태권도장 관장이 김경일 현 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진 사범의 주례를 맡을 정도로 인연을 쌓았다. 이후 수련생이 늘어나자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용산 전쟁기념관 직원용 체육실을 빌려서 수련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집(도장) 없이 여기저기 수련장을 옮기다가 결국 숙명여자대학교 입구역 근처에 도장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곳으로 도장을 옮기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엿한 태권도장으로서는 간판까지 달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최초의 성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태권도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끌고 있다.

‘아리랑 태권도장’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배경도 흥미롭다. 처음에는 외국인의 참여를 위해 ‘인터내셔널 태권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수련생을 모았다. 초기 수련 멤버는 5명

이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모임 이름을 ‘아리랑 태권도장’이라고 불렀는데, 진 사범은 처음에는 그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뭔가 촌스러운 느낌도 나고… (웃음) 그래서 민주적으로 투표했는데, 5명 중 한국인이 2명이고 외국인이 3명이었다. 그래서… (웃음) 아리랑 태권도장의 명칭 탄생 비화다. 그런데 막상 정하고 나서 보니 갈수록 괜찮았다. “내가 추구했던 태권도를 통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문화 교류가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 표현되는 것 같았다.”

성인 도장 성공의 열쇠

이제는 많은 태권도 지도자가 성인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쉽게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 태권도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진상은 사범의 대답은 무엇일까?

“우선은 소통이다. 수련자들은 20대에서 5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요구 또한 다양하다. 그 각각의 수련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도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성인 태권도는 지도자가 직접 수련생과 함께 땀을 흘리며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구령만 붙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맡긴다고 해서 성인 태권도가 지속될 수 없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 사범의 말은 이어졌다.

“성인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목적으로 태권도장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맛있는 발차기를 하고 싶거나 품새를 잘하고 싶다는 등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도자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태권도를 평생 해 온 젊은 지도자는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걸 수련생이 잘 따라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쉽게 할 수



있는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이고 그것을 수련생이 따라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조심한다고 하는 우리 도장에서도 1년에 한두 명씩 부상자가 나오기도 한다. 관절·인대·연골 등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듯이, 성인과 수련할 때는 ‘몸높이’를 맞춰야 한다. ‘나는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40~50대에게 무리한 뛰어 앞차기를 시키거나 과도한 다리 찢기를 시켜선 안 된다. 같이 즐기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잘하는 수련생에게는 또 그 요구를 맞춰 줄 수 있어야 한다. 수련 시간 안에 그 니즈(needs)를 맞춰 주지 못했으면 수련 시간이 끝나고 나서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하는 열정도 필요하다.”

성인 태권도장, 즐기면서 배우는 환경이 중요

아리랑 태권도장의 수련을 직접 참관해 보았다. 한 클래스에 약 20여 명이 수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 구성은 얼핏 봐도 다양했다. 성별은 물론, 나이, 국적, 띠의 수준 등이 다양했다. 진 사범의 말처럼 이 다양한 수련자의 요구를 맞춰 주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을 듯싶었다.

“도장에 이따금 검은 띠를 찬 분들이 온다. 그러나 우리 도장에선 유단자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태권도 수련을 하지 않았으면 검은 띠를 매지 못하게 한다. 검은 띠인데도 품새를 모르고 기본 발차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검은 띠가 태극 품새도 잘 몰라서 노란 띠를 따라 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왕년에 태권도 조교도 했었고 잘했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련 중에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결국은 다시 오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마음은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만, 몸은 그 과거를 못 따라



집중력을 갖추고 수련하는 아리랑 태권도장 회원들.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은 띠라고 하더라도 와서 바로 매게 하지 않고 자체적 인증 심사를 통해서 원래 자신의 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수련자 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다.”

아리랑 태권도장에는 외국인이 쉽게 눈에 띄었다. 기자가 참관한 수업의 30% 이상이 외국인이었다.

“내 직장상(외국인 문화 교류) 외국인을 많이 접한다. 이를 통해 우리 도장을 알고 오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아리랑 태권도장이 좀 알려져 알음알음해서 오기도 한다. 현재도 꾸준히 수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자가 도장을 찾은 날, 수련을 주도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다. 국기원 시범단 부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시훈 사범이다. 국기원 시범단 출신 사범이 지도하고 있으니, 수업의 수준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수련자 수준에 맞춰서 기본기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 최초의 성인만을 전문으로 한 태권도장을 이끌어 온 진 사범의 눈에 한국 성인 태권도의 미래는 어떻게 보일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때는 성인 태권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법 성인 태권도장도 늘었을뿐더러 저변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종전에는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해당 지역에 성인 태권도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도 한다. (내가) 소개해 주기도 한다. 우리 도장 출신 사범 중 지역에서 성인 태권도를 병행하면서 성과를 내는 분이 있기도 하다. 지도자가 관심과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성인 태권도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포화 상태지만, 성인 태권도는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각 지역에서 대표적 성인 태권도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진 사범이 이끄는 아리랑 태권도장을 이전에 찾았던 성인 태권도장과 비교해 보았다. 매우 흡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성인 태권도장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다. 수련자들이 재미있게, 다치지 않고, 태권도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인 태권도가 태권도의 유일한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또 하나의 해결책인 것만은 분명하다. ●



1988 서울 올림픽 영광의 주인공, '작은 거인' 이승국

글·사진 박상욱 WTN 기자

6.25 한국 전쟁 발발로 피난 갔을 시절에 처음(초등학교 6학년) 태권도를 운명처럼 접하고 이후 열정을 쏟아붓은 그는 교육자로서는 신뢰를 기본으로 학생을 지도했고, 태권도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대학교 총장에 올랐다. 그를 만나 서울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그때 이야기와 그의 삶의 여정을 들어 보았다.

1988년 9월 17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서울 올림픽 개막을 알리는 성화가 점화된 지 30년이 흘렀다. 바로 딱 그날인 지난 9월 17일, 그때의 감동을 떠올릴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서울 올림픽은 냉전 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참여한 마지막 대회이자 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같은 나라에서 이뤄진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서울 올림픽의 또 다른 의미로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처음 채택돼 정식 종목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개최국이자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인물은 이승국 전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었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은 '작은 거인'이다.

출발점은 모친의 엄격한 교육

이승국 전 총장은 신의주에서 출생했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7년 전 가족이 서울로 이주했으니 서울 토박이나 다름없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의 희미한 모습만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홀 어머니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군복을 빨래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신뢰를 얻으면서 계약권을 얻게 되고 일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께서는 여든이 넘는 나이에든 여전히 사업을 하셨다. '성사된 계약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신곤 했다. 그 모습에서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배웠다."라고 술회했다.

엄격했던 어머니의 가르침 아래 배운 점은 비단 이것만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희생정신

과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보임으로써 아들을 가르쳤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후배와 제자에게 좋은 선배와 스승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자신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바로 스포츠 정신이다. 그는 "엄격하신 어머니 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으로 보고 터득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의 스포츠 정신을 잘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명지대학교 재학 당시 어머니의 사업으로 집안이 윤택했던 그는 운동과 공부를 겸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운동하는 친구 대부분은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그는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받으면 적금을 들어 놓았다가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후배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그의 자세는 어머니의 실천 교육을 통해 평생 배운 것이다.

피난처에서 운명 같은 태권도 만나다

이승국 전 총장이 태권도와 인연을 맺은 건 대구 피난 시절이다. 칠성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논두렁에 가마니로 바닥을 깔 무덕관에 입문했다. 무예를 배운다기보다는 반장난으로 다녔다. 형들 틈에서 놀이로 시작한 태권도와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중2 때 서울 성동중학교로 전학 오면서 다시 태권도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특별 활동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입시 준비를 하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그때 명지대에는 운동부가 없었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이 힘들

었던 그는 운동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학장의 협조로 태권도와 유도부를 창설했다. 학생 신분으로서 학장을 찾아가 운동부를 직접 창설했던 그의 모습에서 운동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당돌하긴 했지만 학장님을 졸라 태권도·유도·복싱부를 창설했다. 3학년 때부터 고교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등 본격적 운동부가 됐다. 당시 대학 태권도는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복학한 후인 1970년 대학 연맹전에서 우승하며 명지대도 강호 대열에 끼였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태권도에 인생을 걸게 될지는 몰랐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모친이 운영하던 용역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 "운동선수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이때 한 공부가 인생사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사업과 공부를 하면서도 태권도와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틈틈이 대학 후배들을 가르친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 대회 출전 경비를 내주고 영양 보충도 시켜 주고 어려운 후배의 등록금을 대 주기도 했다.

신군부의 등장으로 나라가 어지럽던 1980년, 그에게 교수의 길이 열렸다. 당시 한국체대 강사들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사표를 내 공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간 강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다. 대학 후배들이 이를 알고 연락해 와 원서를 낸 그는 시간 강사로 채용됐다. 6개월간 태권도 실기 강사로 일한 후 1981년 조교로, 1982년 전임 강사로 잇달아 승진했다.

그는 전임이 되면서 곧바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체육학을 전공했다. 그는 "어차피 체육대 교수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체육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체육학 전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한국체대 태권도부는 신

생 팀이나 다름없었고, 그 역시 사업하느라 8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때문에 고교 태권도 지도자를 많이 알지 못해 우수한 고교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가 난관 돌파를 위해 택한 방식은 훈련이었다. “길은 한 가지, 제자들을 국가대표로 많이 길러 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학교에서 제자들과 숙식하며 피나는 훈련을 했죠.”

서울 올림픽 국가대표팀 이끌며 정식 종목 채택 발판 마련

태권도가 아시안 게임 최초로 정식 종목이 된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때,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승국 전 총장은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로 선임됐다. 이어 시범 종목으로 열린 1988 서울 올림픽 때엔, 그는 감독으로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다. 서울 올림픽은 여러 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서울 올림픽은 냉전 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참여한 마지막 대회이자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나라에서 열린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또 다른 의미로 태권도

가 시범 종목으로 처음 채택돼 정식 종목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점을 꼽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올림픽 때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코치진은 그를 비롯해 김세혁·김영인·박필순 등 당대에 명성이 높았던 지도자들로 구성됐다. 선수들 면모도 화려했다. 정국현·장필순·지용석·박봉권·하태경 등(이상 남자)이, 이화진·추난울·박선영·김소영·이은영(이상 여자) 등이 각각 종주국을 대표해 출전했다.

최고 선수단을 구성하긴 했어도 태권도가 시범 종목이라는 이유로 많은 설움을 당했다. 훈련장이 없어 당시 동성고등학교 교사였던 김세혁 코치의 도움을 받아 동성고에서 훈련하기도 했고, 지방에 있는 훈련장을 찾아다니며 훈련했다. 그는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는데 태권도 훈련장이 따로 없어 농구·배구 훈련장에서 훈련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농구·배구 훈련장 환경은 태권도 훈련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방식마저도 하지 못하게 됐다.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정식 종목 선수 인원이 초과돼 시범 종목이었던 태권도는 촌외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많이 서러웠다.”라고 솔회했다.

“태릉선수촌에서 나오는 데 왜 그리 서러웠던지… 상황은 이해됐지만, 솔직히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분노마저 일었다. 선수촌 입구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약속했다. ‘그래 지금은 이런 대접을 받으나, 반드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에 진입시키고 ‘효자 종목’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시 선수촌에 들어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다.’”

선수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와 선수를 하나로 뚝뚝 묶는 끈으로 작용한 것이다.

“선수들도 시범 종목이 아니라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를 했던 것 같다. 훈련 때 집중력이 높아졌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술선수범해서 선수단의 굵은 일을 저마다 맡아서 했다.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선수단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 훈련하고 쉴 때는 격을 두지 않고 놀았다. 선수들이 지도자들 목에 오르기도 하고, 야자 타임도 했다(웃음).”

서울 올림픽 성화가 점화되고, 개인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선수끼리 벌이는 치열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됐다. 태권도 경기도 올림픽 개막과 함께 시작돼, 선수 개개인이 자랑하는 화려한 기술이 쏟아졌다. 이러한 장면이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 전파돼 태권도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그는 “선수마다 자신의 특징적 기술이 있었다, ‘그 화려한 기술을 경기에서 마음껏 자랑하자’고 선수들과 약속했다.”라고 그때를 회상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남자 7개, 여자 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태권도 종주국 명예를 드높였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선수 개개인의 화려한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경기가 벌어진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관중은 탄성을 자아냈다. 그는 “태권도의 참모습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게 더 좋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선수단



이 함께 모여 그동안 고생한 대가인 값진 결과물을 놓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시범 종목이 아닌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우리 모두 태권도가 반드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다.” 이러한 태권도인들의 노력과 바람이 모여져, 결국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정식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자로서 각별했던 제자 사랑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이승국 전 총장은 태권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랑을 간직한 채 학교로 복귀했다. 이런 그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시간 강사와 조교를 거쳐 체육행정 전임 교수로 임용되고 태권도인 최초로 스포츠 국립대학 총장이 되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그는 교육자로서 ‘신뢰’와 ‘1+α’의 철학을 기반으로 학생을 지도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의 교육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두 키워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또 팀을 위해선 ‘All for One, One for All’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1이라는 달란트를 부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1에 α가 더해졌을 때,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여기서 α는 자기 노력이다.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 1위가 되는 길이다.”

그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또 하나 중요시 여겼던 점은 신뢰였다. 학생과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어, 그는 자신부터 신뢰 쌓기에 행동 하나 말 하나에 조심했다. 그리고 운동뿐 아니라 영어와 교양 등 교육



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생 선배로서 삶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교육은 세계적 지도자로 스포츠 외교에 앞장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총장으로 선출되기 직전인 2004년 9월까지 땀의 현장을 지켰다. 20여 년간 그는 170여 명의 제자를 국가대표로 만들었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국가대표보다는 17명의 제자를 교수로 키워 냈다는 데 더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제자에게 길을 열어 주는 게 스승의 도리라 생각한다. 행정학을 전공한 국외자였기 때 문인지는 몰라도 ‘운동선수일지라도 냉엄한 사회에 나왔을 때를 대비해 운동 이외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방학 중 전지훈련을 할 때는 선수들에게 중학생 수준 영어 단어 다섯 개와 이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주고 외우게 했다. 하나 틀리면 다섯 대씩 종아리도 때렸다. 다섯 개를 습득하면 다음에는 열 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나중엔 하루 십 개까지 올라가더라.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내 제자들은 이렇게 조금씩 쌓은 공부로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2006년 제44회 대한민국 체육상 공로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1981년 7월부터 한국체대 태권도부 지도 교수로 후진 양성에 매진해 오면서 1983 세계 선수권대회와 1986 아시안 게임 국가

대표팀 코치, 1988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 2005 마카오 동아시아 경기대회 선수단장을 역임하면서 체육 지도자로서 활약이 컸던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2월 한국체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쇼트트랙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재학생들이 2006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은메달 1개를, 동메달 1개를 각각 획득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는 총장 재임 시절 사무실만 지키지 않았다. 한국체대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체대 구석구석을 다니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태권도에 마지막 봉사 기회

주어진다면 달려갈 것

2012년, 이승국 전 총장은 한국체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2012년 2월 29일, 태권도를 통해 큰 세상을 보여 준 ‘작은 거인’의 퇴임식이 ‘1 달란트 더하기 α의 삶’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후 국기원 이사를 역임했고, 중국 베이징(北京)체육대 초빙 교수로도 활동했다. 최근에는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외에서 태권도 관련 세미나를 통해 태권도 보급에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는 최근 태권도계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태권도계에 불미스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패거리보다는 태권도란 큰 틀, 작게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개인의 과욕이 불미스런 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태권도계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열정을 갖고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그의 태권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태권도 시범을 넘어 모범이 되고 있는 국기원 최고 9단 시범단

태권도 9단들로만 이뤄진 시범단이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면서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는 최고령 시범단, 바로 국기원 최고 9단 시범단이다. 9단 시범단은 이규현 단장을 포함해 정우득·오영복·이병채·홍성무·박광일·허의식·이철재·정시래·김경섭·김용환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범단은 단순히 9단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무주 태권도원 = 글 사진 박성진 태권도 인사이드 기자



수련하고 있는 '현역' 태권도인들로 이뤄져 있다. 품새 국가대표 출신도 여러 명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요 대회에서 품새와 격파를 직접 시범한다. 말 그대로 시범을 넘어 모범을 보여 주는 태권도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가 평생 수련하는 무도라고 할 때, 그 말 자체를 몸으로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9단 시범단이다. 2013년

에 발족한 이후 주요 행사에서 자리만을 빛내는 원로에 그치지 않고 직접 태권도를 실연하면서 태권도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평소에도 주 1회 합동 수련을 이어 가고 있으며, 주요 시범을 앞두고는 합숙 훈련까지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보인다. 한국 태권도의 진정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태권도 역사의 살아 있는 전설 서상렬 세계무덕관연맹 총재의 소설 같은 이야기

“태권도의 정체성은 수박도에서 찾아야”

안전 = 글 서완석 사진 서완석, 서상렬 제공



서상렬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8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후보자 추천위원회. 10여 명의 후보자 명단에 한 이색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성명 서상렬, 나이 90세. 직함 세계무덕관연맹 총재. 웬만한 태권도 원로라면 이름 정도는 꿰고 있노라고 믿고 있던 필자에게조차 정말 생소한 이름이었다. 게다가 90세의 고령에도 현역이라니... 문득 ‘어디 외계에서 살고 계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공적서를 보니, 웬만한 후보자들은 8~9단인데, 그는 국기원 공인 단이 아예 없었다. 다만 무덕관 7단증이 있는 것으로 봐 ‘옛날 재야 고단자였구나.’ 하는 정도의 판단이 설 뿐이었다. 1978년 전국의 모든 관이 통합되며, 각 관의 단증은 원하면 모두 국기원 단증으로 교환됐다. 그럼에도 무덕관 단증을 공적서에 제출한 것으로 봐 ‘무슨 사연이 있었겠구나.’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그의 저서 『무덕관은 통합되어야 한다』(동양비즈니스포, 2012)를 읽게 됐고, 어렵사리 그와 만나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 사실 전화 통화는 힘들었다. 고령 탓에 보청기 도움 없이는 소통이 쉽지 않았다. 두 시간 남짓 만남에서, 그는 진정 ‘태권도 역사의 산증인’임을 바로 알게 됐다. 그는 태권도의 ‘살아 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1950~1970년대 현대 태권도 주류 역사는 그의 육성에서, 그의 자료집에서 나온 것임을 후에야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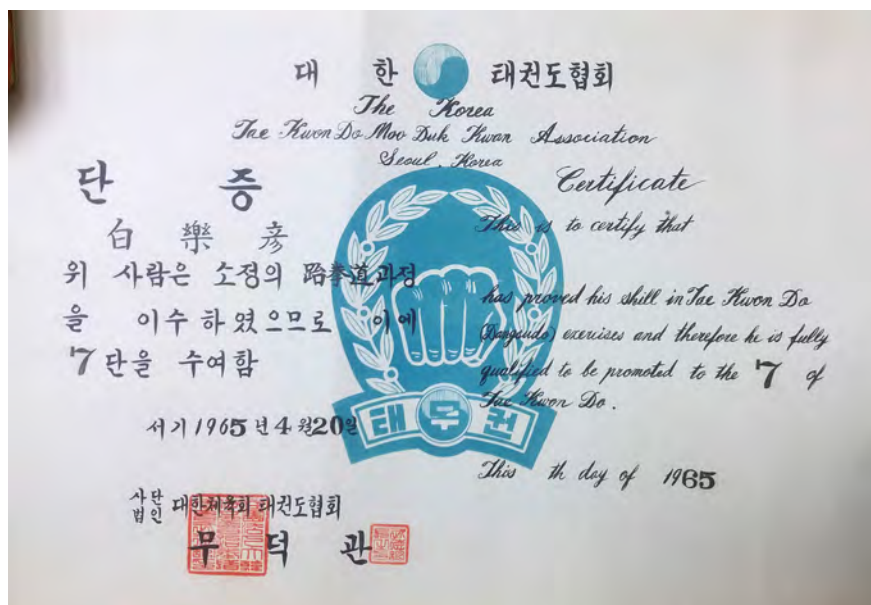
스승 황기 관장과 운명적 만남

충북 단양에서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 나고야중학교로 유학을 갔을 만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요즘말로 조기 유학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중학 3학년을 채 졸업하기 전에, 해방이 돼 귀국길에 올랐다. 중학교 재학 시 가라테를 배운 게

태권도와 평생 동반자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는 고향에 머물다 혼자 상경해 서울에 세 개뿐인 전문대 가운데 하나인 혜화전문대학(동국대학교 전신)에 입학했다. 1946년도였다. 그의 꿈은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외교관이 되고 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언변이 뛰어나 정치에도 소질이 있었다. 실제로, 그는 건국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과정까지 밟았으나, 정작 논문을 쓰지 않았다. 여기에는 지독한 사연이 숨어 있다.

그는 17세에 운전면허를 급히 따 학비도 벌고 운동도 하면서 그럭저럭 서울 생활을 했다. 운전면허 시험 당시 김종필 전 총리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도 함께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그는 청도관에서 엄운규 등과 함께 운동했다. 일본에서 가라테 6급을 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학습이 빨랐다. 한국전쟁 뒤에는 무덕관으로 옮겨 운동을 계속했다. 그즈음 평생의 스승인 무덕관 창시자 황기관장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황 관장은 누구인가? 경기상고를 졸업하고 일제 강점기 만주국 철도 공무원이던 황 관장은 중국에서 권법을 익혔다. 창씨개명에 반대해 옥고를 치렀으며, 해방 후 철도공무원으로 화랑도 정신을 되살린 '화수도'를 창설해 제자를 기르기도 했다. 이후 일본 가라테마저 흡수한 황 관장은 무덕관을 창설했다. 무덕관은 고구려 시대 복장을 도복으로 삼는 등 삼국시대부터 전해 오던 '수박도' 등 전통 무술의 맥을 잇는 데 매진했다.

당시로는 무술 수련자 중 드물게 대학을 다니고 특히 언변이 뛰어났던 서상렬은 황 관장의 눈에 들어 단번에 오른팔로 자리매김했다. 전통 무예의 정신을 살리고자 했던 무덕관은 국내 최대 관원 수를 자랑하는 관으로 급성장했다. 그는 1955년 5월부터 전국의 관이 통합되던 1978년 3월까지 무려 23년간 무덕관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한다. 그동안 그가 관리한 전국의 무덕관 도장만도 3,500



서상렬의 무덕관 7단 단증. '백낙언' 이름으로 단증을 받았다.

개를 넘고 유단자만 4만 명 이상을 배출했다. 그는 재직 시 무려 300명 이상의 사범을 미국 등 10여 개국으로 파견했다. “그때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잖아.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범이라도 하면 명절 때 달러라도 한푼 보내지 않겠어? 실제 단 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썩씩 단을 높여 보내곤 했지.” 국민 모두가 팍팍한 생을 살던 1960년대 초반. 무덕관 사무총장이던 그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유단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내보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의 직계 제자를 비롯해 그가 파견했던 많은 사범들이 그를 보러 몰려온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제자들이 벌이는 태권도 행사에 명예 대회장으로 초청돼 미국을 순회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이 바꾼 그의 인생 향로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모든 무덕관 관원은 '서상렬'이란 이름자를 모른다. 당시 무덕관 사무총장의 이름을 대라면 '서상렬'이 아니라 모두 '백낙언'으로 기억한다. 정확히는 사

무총장이어서 '백 총장'으로 기억한다.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1959년)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해체된 가정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자유를 찾아 월남했지만 어머니는 정신 질환자로, 남동생은 권총 강도로, 여동생은 미군 접대부로 전락하고, 아내는 해산 중 사망하는 스토리다. 온갖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 주인공인 가장 송철호는 가족 해체 과정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고 마치 잘못 소아진 오발탄처럼 방향한다. 전쟁은 그렇게 잔인한 것이다. 그도 전쟁을 겪으며 인생이 절반 파괴되는 아픔을 겪는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그는 고향인 단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고향은 인민군이 진주한 뒤였다. 가장 넓었던 고향 집은 인민군 간부들이 들락거렸다. 7월 말 집에서 묵고 있던 중앙당 사회부장이라는 간부가 “당 사업을 해라. 해방되면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유학을 보내 주겠다.”라고 유혹했다. 이튿날 그에게 주어진 직책은 단양군 민청위원장이었다. 두 달여 뒤 9·28 서울 수복으로 인민군들이 철수할 때, 그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나섰다. 그냥 한 집에 살던 군인들이 떠나니 함께 가



1968년 경상남도 무덕관 승단대회에서, 서상렬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무덕관 전통 도복을 입고 포즈를 취한 서상렬 총재.

야 할 것 같았다. 며칠 뒤 원주까지 와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내가 왜 인민군을 따라가는지 회의가 들었어. 나는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사상적으로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밤에 대열을 빠져나왔지.”

그는 또다시 고향으로 갔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난리가 났다. 전쟁 중 피난을 가지 않고 인민군에 부역한 자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다. 비록 그가 인민군을 위해 특별한 짓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 민청 위원장을 했던 점만은 사실이었다. 그를 은밀히 숨긴 집안 사람들은 그를 살릴 궁리를 했다.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먼 친척이 아이디어를 내놨다. “북한 출신 제대 군인 신분증을 또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그 신분으로 살면 되지 않나?”

북한 출신이므로 국내에 연고가 없을 테니 들킬 염려는 거의 없었다. 한참 전쟁 중인 나라에서, 신분증 위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얻은 새 신분증의 이름이 바로 백낙언이었다. 이제 고향에서는 백낙언으로 살 수 없었다. 밤에 상경했다. 그는 이제 ‘백낙언’이란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다. 운동하던 동년배 가운데엔 그의 개명에 대해 의아해 하는 이도 있었으나, 전쟁 중 생존 자체가 녹록지 않던 시절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았다. 그가 무덕관으로 관을 옮긴 까닭이다.

황 관장의 애제자가 되면서, 무덕관 내 그의 입지는 더욱 굳어졌다. 1955년에는 명동에서 한 중 친선 대회를 개최했고, 1961년에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인 광화문 시공관에서 한·일 대회를 열었으며, 아시아당수연맹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태권도 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국제 대회를 개최하며 국제화의 시동을 건 인물이기도 했다. 또 1958년부터 3년간 공군대학에서 초급 장교, 참모장 과정의 태권도 교관으로 활동했다.

무덕관 사무총장으로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

‘가명 인생’을 사는 동안, 그는 많은 걸 포기해야만 했다. 어떤 일이든 전면에 나서면 신원조회가 불을 게 뻘했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관 통합 시에 모든 협상을 나서서 해 놓고도, 정작 최종 사인은 후배인 홍종수가 하도록 했다. 당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은 “협상은 백 관장이 해 놓고는 왜 사인은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가명 인생이 영원할 순 없었다. 1970년대 초 고향인 단양경찰서에서 이상한 낌새를 쳤다. 서울에 아무 연고가 없다는 그의 부모가 수시로 서울을 다녀온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다. 정보회사 2명이 상경하는

부모를 따라붙었다. 두 달간 미행해도 아무런 용공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형사들은 단양 경찰서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자 단양 서장은 “당장 연행해 오라.”라고 지시했다. 고향 경찰서로 불들려 온 그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면서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취조는 며칠간 이어졌다. 지역 경찰과 정보부 관계자들이 집요하게 용공 혐의점을 캐물었다. 인민군과 함께 지냈을 당시 그들을 위해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다. 그를 살린 것은 뜻밖에 지역 여론이었다. 고향에서는 20여 년 만에 돌아온 그를 위해 잔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출가분하게 용공 혐의점을 벗은 그는 이침에 자신의 이름 석 자도 되찾기로 했다. 서상렬에서 백낙언으로 다시 서상렬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1972년에는 검찰 공안부에 청원을 넣어 자신의 ‘용공 혐의점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내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내 인생을 망가트렸지. 그렇지 않으면 출세할 기회가 많았어. 한번은 박정희 국가재건회의 의장에게 브리핑할 기회가 있었는데, ‘임자, 나와 정치하지 않겠어?’라고 제안하더라고. 밀양 경찰서장을 준다는 제안도 있었어.”

그런데 그는 모든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신원조회에 걸리면 죽는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후 3선 개헌 때 김종필 총리를 도와

지지 연설을 하고 다닐 만큼 권부에 가깝게 있었지만, 그 어떤 관직도 마다했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무덕관의 실력자인 그는 태권도사의 주요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다. 무덕관 사무총장 시절인 1971년 막 KTA 수장이 된 김운용 회장이 게 4단증을 수여한 인물이 바로 그다. 앞서 1965년 '태권도'란 명칭 사용 문제를 놓고 태권도를 주장하는 최홍희와 수박도를 고집한 황기 간의 증재자 역을 맡기도 했다. 황 관장은 통합에 반대했지만, 무덕관과 태권도 장래를 위해 그는 결단을 내렸다. 황 관장을 찾아가 KTA와 통합을 건의했고, 황 관장의 암묵적 동조를 얻어 마침내 통합의 종지부를 찍은 것도 그였다. 무덕관 대표로는 홍중수를 앞세워 그가 KTA 이사가 되도록 했다. 그 때까지 여전히 가명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홍희가 태권도란 명칭을 제정할 당시 상황을 다 꿰고 있었다. 그는 최홍희가 독선적 운영으로 1년 만에 KTA 회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후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1960년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사범들이 비자 받기가 어려웠던 시절, 그는 이범석 외무부 여권과장을 찾아다니며 활로를 뚫었다. 주한 미군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는 데도 가장 앞장섰다. 그는 1957년부터 미 8군 산하 부대에 태권도장을 개설했고, 의정부·파주 지구 미 2사단과 동두천 지구 미 7사단 예

하 부대에도 태권도를 보급했다. 또 1960년대 초 태권도 시범단을 처음으로 구성해 미국에 파견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무덕관이 통폐합된 뒤,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 개인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무덕관이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2015년, 그는 세계무덕관연맹 총재로 매스컴에 다시 등장했다. 그는 1960년대 초 KTA와 통합하면서 3분된 무덕관이 다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덕관 통합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무덕관이야말로 전통 무예인 수박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유일한 관이란 말이지. 무덕관이 통합되면 모호한 한국 태권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단번에 되찾을 수 있어.”

그는 김운용 회장이 스포츠 태권도를 주창하면서 관을 통폐합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도 주장한다. 무도 태권도의 수련 정신을 도장에서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동양 무예의 역사를 탐구하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스승 황관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무예 역사를 통해 동북아 전체 무예 역사를 관통한다. “공부해 보니 우리 전통 무예인 각저(角抵)가 일본으로 건너가 유도가 됐고, 서양으로 가 레슬링이 됐어. 수박(手搏)은 중국으로 가 권법이 됐고”

그는 동양 무술의 뿌리로 한국의 전통 무예인 수박도를 정리해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이사장으로

평온한 노년의 삶

2남 2녀를 둔 그는 인천에 있는, 직원 500명에 달하는 검단 탐종합병원 이사장이다. 사위가 병원장, 치과의사인 차녀가 부원장이다. 차남은 병원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외의 무덕관 사범은 한국으로 오면 인천공항과 가까운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코스로 돼 있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생을 실천하고 있다. 자녀들과 장학회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소리 소문 없이 도왔다. 소설 『오발탄』에서 주인공 송철호는 이렇게 넋두리한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아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서상렬은 비록 전쟁 뒤 가명 인생으로 반쪽 인생을 살았어도 누구보다 멋진 생을 살았다. 신원이 탄로 날까 두려웠으나, 명분 있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다. 좋은 것은 항상 양보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열심이었다. 그가 평생을 ‘서상렬’이란 본명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해본다. ㉠



승단심사 통과자들에게 단증을 수여하는 서상렬 사무총장(왼쪽).



서상렬 사무총장(가운데)이 승단한 영관장교에게 유단자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태권도 전자호구 시스템은 풀기 힘든 숙제일까?

글 고진현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도입된 태권도 전자호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특단의 대책이 절실했다.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잇따라 터진 경기 중단 사태는 전자호구 시스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준 대표적 사례로, 이 문제의 개선이 향후 태권도계의 숙원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공인 업체인 KPNP 전자호구와 헤드기어 시스템은 센서에 의한 타격이 아닌 주먹·무릎·정강이를 포함한 모든 타격이 득점으로 표출되는 오작동을 일으켜 경기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전자호구 시스템은 2009년 처음 도입된 뒤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공인 업체 선정에서부터 갈등을 일으키더니 각종 국제 이벤트에서도 다양한 기술 오작동으로 걱정거리를 안겼다. 현재 WT 공인 업체는 두 개(대도·KPNP) 회사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한 곳 이 아니라, 두 회사 모두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시각각 터지는 기술적 오작동

이번 대회에서 터진 경기 중단 사태는 센서가 없어 심판이 직접 판정하는 주먹 공격 등이 득점으로 계속 표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센서에 의한 타격이 아닌 무릎과 정강

이 접촉도 득점으로 연결되는 해프닝도 연출됐다. 2014년 멕시코 케레타로에서 열린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대회에서, WT의 다른 공인 업체인 대도 역시 문제점을 노출했다. 안면 발차기를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헤드기어 오작동으로 저절로 3점이 올라가거나, 단체전에서 순식간에 30점이 '우당탕' 올라가는 상식 밖의 일들도 연출됐다. 다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2012 런던 올림픽과 2016 히우(리우) 올림픽에서 별 탈 없이 넘어간 게 다행스럽다.

전자호구 공인 업체들의 잇따른 기술 오류의 원인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탄탄한 기술력과 든든한 자본력을 겸비한 세계 굴지의 기업이 아닌 탓이 크다. 민감한 센서를 기반으로 한 타격, 그것도 정확성과 파워를 동시에 계측해야 하는 까다로운 전자 시스템은 기술 개발과 함께 오류 수정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 오류를 잡아내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은 중소기업 처지에선 말처럼



2018 아시안 게임 태권도 겨루기 여자 -53kg급 8강전에서, 한국의 하민아(왼쪽)가 중국의 류카이치에게 주먹 공격이 센서로 득점 표출되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 시간 넘게 중단됐다가 재개된 경기에서, 하민아가 10-4로 승리했다.

쉽지 않다. 두 개의 공인 업체가 환경이 다른 실내 경기장에서 제각각의 기술적 요류를 노출한 건 이미 예상했던 바다. 전자 시스템은 환경에 따른 전자파의 간섭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호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을 매뉴얼화하는 작업 또한 필수적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무도 스포츠는 파괴력 넘친 공격이 생명이 다. 강건한 육체에 정신의 힘을 결합시키는 무도 스포츠의 본질적 구도에 화려한 기술까지 더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태권도는 이러한 지향점을 견지하며 글로벌 스포츠로 몸집을 키운 끝에 올림픽 종목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경기 태권도의 글로벌화는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는 약점이 부각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WT가 2008 베이징 올림픽 직후 전자호구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이유다.

WT는 급한 불을 끄느라 근본적 문제를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원래 태권도는 체중이 실린 강한 타격만을 점수로 인정하는 스포츠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통주의적 자세는 전자호구 시스템의 도입 취지와는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득점을 금세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타격의 '강도'에 집착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야 했다. 경기 태권도의 득점 체계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자, 선수들도 전자호구 시스템에 최적화한 플레이 스타일로 변신을 시도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지듯, 선수들의 발차기는 체중이 실린 강도 높은 발차기가 아니라 다양하고도 변칙적 발차기가 주류를 이뤘다. 태권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 태권도 본연의 정수를 망가뜨리게 하는 자기모순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구사한 변칙 발차기는 극진 가라테에서 즐겨 쓰는 브라질리언 킥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술은 예전 극진 가라테 출신의 K-1 스타 글라우비 페이토자의 필살기로도 유명했다. 위에서 내리찍는 페이토자의 브라질리언 킥은 파괴력이 무섭다. 그러나 전자호구 시스템에 최적화된 변칙 기술로 쓰이고 있는 이 발차기는 파괴력이 넘치는 필살기가 아니라 상대의 방어 시선을 분산시키며 점수 따기에 유용한 꼼수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류병관 용인대 태권도대학원 원장은 "선수들은 전자호구 시스템에 잘 먹히는 기술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자호구 시스템이 태권도의 본질적 기술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전자호구에 잘 먹히는 발차기 기술과 경기 전략은 시시각각 변해 왔다. 도입 초창기에는 앞발을 들고 상대를 견제하고 공격하는 '발 펜싱'에서부터 근접전에서 제기차기하듯 발을 들어 센서가 붙은 발바닥이나 뒤꿈치로 상대를 훑어 내리는 '몽키 킥'까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칙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전자호구 시스템이 태권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결국 전자호구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태권도의 본질적 기술이 스코어링 체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기술적 오작동을 차단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자호구 시스템이 태권도의 정통 기술을 심

각하게 훼손한다면 그건 차라리 재앙에 가깝다. 벌써 변칙 기술이 정통 기술을 밀어내며 대세를 이뤘고, 전자호구 시스템에 최적화한 새로운 변칙 기술은 앞으로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다. 전자호구 시스템이 글로벌 태권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떠오른 이상, 이 문제는 태권도계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 새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편이 좋다. 전자호구 시스템은 압력과 접촉을 감지하는 센서로 구성돼 정확한 접촉과 일정 강도에 의하여 득점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한국은 세계적 IT 기술 강국답게 맘만 먹으면 제대로 된 태권도 전자호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권도는 날개를 달았다. 태권도를 국기로 정한 것은 물론 국정 과제에 태권도가 당연히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자호구 시스템 개발을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면 그동안 노정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앞장서 전자호구 개발을 태권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태권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정부가 기술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을 전자호구 개발 사업에 투입시킨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명품 전자호구 시스템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S펜은 전자호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기 유도 방식이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S펜은 무려 4,096단계의 필압(筆壓)을 면밀히 인식하는 정교한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러한 기술을 전자호구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판정의 공정성과 기술의 정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자리한 한 태권도장 지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수련생 승하차를 돕고 있다.

현실 외면한 과잉 입법, 태권도장 '적신호' 켜졌다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현재 일선 태권도장의 현안은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명 유상운송법)을 언제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는가이다. 저출산 풍조, 도장 난립, 태권도 사회적 이미지 및 교육 가치 추락 등으로 도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행정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영세한 도장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대한민국 태권도협회(KTA)와 국기원은 2016년 7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두 현안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동승자 탑승 의무화

2016년 가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과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조짐이 보이자, 일선 태권도장이 바짝 긴장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태권도장 차량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태권도장 차량을 포함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버스는 원칙적으로 2017년 1월 29일부터 동승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했다. 그로 말미암아 추가로 발생하는 동승자 인건비(100만~120만

원)가 일선 태권도장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 같은 실정과 우려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필자가 시사 토론 형식의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서성원(진행)=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동승자 탑승 의무화가 18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태권도장 관장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석(패널)=동승자 탑승 의무화 문제는 차령 제한보다 더 심각합니다. 차령 제한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지만,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강제 고용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장 수련생이 50~60명 되는 도장이 많아요. 그 도장 관장은 사범을 안 쓰고 합니다.

서성원=그럼 1만 2,000여 개소가 되는 일선 도장의 평균 수련생을 60명으로 본다면, 그 도장의 관장은 태권도 가르치고 차량 운행하고 잡다한 일도 혼자 다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되면, 현실적으로 영세한 도장은 문을 닫아야 할 듯싶네요.

권기덕(패널)=폐업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서성원=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명 가까이 태우고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태권도장 차량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3~5명도 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동승자가 꼭 탑승해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기덕=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제일 현실적 방안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도자가 직접 손을 잡고 승·하차시키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동석=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행을 기사가 합니다. 직업이죠. 하지만 태권도장은 대부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과 관장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승·하차를 돕지 않으면 엄정하게 규제하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016년 9월 태권박스 미디어 ‘동승자 탑승 의무화 논란’ 방송 중에서)

태권도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영세한 태권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잉 입법’이라며 도로교통법 법률안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한계

지난해 1월 KTA, 국기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합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학부모 및 여야 정치인에게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를 영세 기관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쪽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 태권도장·학원의 50% 이상이 폐업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승자 탑승 의무화 제도를 완화하고 ▲ 16인승 이상은 이미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를 수용한 상태이고 ▲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버스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돕는 것이 더 안전하며 ▲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버스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태울 경우에는 동승 보호자의 탑승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날, 김경덕 대책위원장은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울 경우 동승 보호자 의무화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현행 범칙금 13만 원에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부과 처벌 규정을 높이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찰청을 두 번 정도 방문했다. 도로교통 안전계장을 만나 단속을 유

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찰 처지에서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겠다고 못 하지만, 교통 법규에 안 걸리면 단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일선 태권도장 차량도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차량 중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만 태우는 경우에는 동승자(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태권도인 출신 이동섭 국회의원은 이 법안 개정을 위해 대표 발의를 했고 14명의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을 위한 과정은 대표 발의→ 국회 입법조사관(행정안전위원회 담당 부서 및 경찰청 의견 수렴) 법률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본회의 상정 후 통과 등이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과정이 까다로워 현실적 조율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합기도장 제외 형평성 논란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합기도장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어 10m가량을 끌려가다 숨졌다. 동승 보호자는 탑승하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합기도장 차량은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합기도장은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에서 규정하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는 체육시설 종목을 태권도·권투·

레슬링·유도·검도·우슈로 한정하고 있다. 대한합기도협회 관계자는 “합기도는 대한체육회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률상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법 개정 당시 우리도 도색해야 하나 헛갈려서 알아봤더니, 전혀 해당 사항이 없더라.”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6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전국 대회가 있는 태권도와 우슈 등 6개 종목만 체육시설로 정하고 합기도·국선도·축구교실·농구교실 등은 체육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합기도장 차량이 동승자를 탑승하지 않고 사고를 내도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다. 무술과 체육 종목 간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게 당연한 까닭이다.

합기도장에 어린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합기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니 실망스럽다. 태권도복처럼 합기도복도 띠가 차량 문을 여닫을 때 끼일 수 있다. 아이들이 타는 차량이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기도장과 체육교실 등도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승자 탑승 의무화 홍보 동영상 제작

2018년 1월 KTA와 국기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어린이 통학버스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덕)가 일선 태권도장에도 적용되는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 1~3편을 제작했다. KTA와 국기원은 제작비도 지원했다.

이 홍보 동영상은 정부의 시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선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들의 안전 불감증 해결과 의식 변화에 맞춰 1부는 안전사고 예방 및 해외 선진국 사례로, 2부는 운전자 안전 교육 대안으로, 3부는 운전자 교육 매뉴얼로 각각 만들었다.

도로교통법 ‘병합 심사’로 개정하는 것이 관건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18년 12월 31일 안에 동승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병합 심사’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

면, 경찰도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국회는 이동섭 국회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탑승 시 운전자 승하차법’과 진선미 국회의원이 제안한 ‘운전자 자격증 제도 도입법’과 ‘경찰청 범칙금 인상법’ 등 세 법률안을 병합해 동승자 탑승 의무화 삭제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안에 법안 추진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유상운송법 적용 여부

태권도장 차량은 영업용인가?

현재 일선 태권도계의 현안 중 하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유상운송법 적용 여부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태권도장이 운행하는 차량도 버스와 택시처럼 영업용으로 적용하겠다는 자세다.

유상운송법에 태권도장 차량이 적용되면 돈을 주고 타는 영업용이 된다. 또 차량(車齡)이 9년이며, 여기에 안전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2년을 늘려 11년이 되면 차를 교체해야 한다. 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고, 택시처럼 노란 번호판을 달게 된다.

이와 관련해 태권도계는 동승자 탑승 의무화로 가뜰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데, 도장 차량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많으며 반대하고 있다. 또 도장 차량을 유상 운송에 적용하는 것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반발도 일고 있다.

김동석 전국 태권도장연합회(이하 전태련) 회장은 “예전엔 7~8년 된 중고차를 사도 상관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고차를 사더라도 3년 미만인 차를 사야 된다. 거의 새 차 가격을 줘야 한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차량 제



2017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동승자 탑승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자 간담회가 끝난 뒤, 태권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에 걸러 차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2년 전 태권도계에 전해지자, KTA와 국기원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책을 모색했다. 대응책의 일환으로, 태권도장 차량은 버스나 택시 또는 백화점 셔틀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에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서명 운동을 전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아직까지 미진한 편이다.

유상 운송 등록 종용하는 자치단체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전국의 각 시청과 구청은 ‘어린이 통학용 차량 유상 운송 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태권도장에 발송하고 있다. 서울모 구청이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유상운송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등의 규정에 따라 9인승 이상의 통학용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행 시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태권도장(체육시설업)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유상 운송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과태료를 의미한다.

대책위원회는 일선 태권도장 차량을 유상운송법에 적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유상운송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기덕 KTA 교육 강사는 “도장 차량을 유상 운송에 적용하는 건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대책위원회가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태권도장은 등록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전태련)도 일선 도장 차량이 유상 운송에 등록하면 안 된다고 주



2017년 열린 유상운송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장하고 있다. 황태현 전태련 전무이사는 “행정기관에서 계몽과 안내 차원에서 등록을 권유한다고 하지만 빨리 등록하라고 하니, 일선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갖고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 도장의 50%가 등록하면 유상 운송 적용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행정 소송과 헌법 소원을 전개하고 있으니, 대책위원회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한 전태련 수석 부회장도 “유상 운송에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위원회가 헌법 소원과 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과태료가 무서워 등록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매년 2배를 내야 하고 차 연식 제한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도장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 두 사람

유상운송법 적용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태권도인들이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동석 전태련 회장과 조성길 한국 태권도경영연합회 대표다. 두 사람은 대책위원회 활동이 흐지부지된 상황에서도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유상운송법을 반대하는 태권도계의 처지를 알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8일 이동섭 국회의원과 태권도 전담 업무를 맡은 비서관을 만나 함께 유상운송법 차량 규제와 동승 보호자 미

탑승 단속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김 회장은 “4년 동안 태권도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려 힘쓰고 있지만, 태권도 단체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태권도장 살리기를 함께하고 있는 이동섭 국회의원님과 조성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과 조 대표는 지난 9월 이동섭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서울 도봉구)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 버스 동승자 관련 법 개정 관련 회의에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강화 대책에 관한 건의서를 이 의원님께 전달했다. 또 권은희 의원 보좌관을 만나 ‘초등학생 탑승 시 운전자 승·하차법’, ‘운전자 자격증 제도 도입법’, ‘경찰청 범칙금 인상법’ 등 세 법을 병합 심사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힘을 모으면 어린이 통학 버스와 관련된 법 개정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는 도장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동승자 탑승 의무화와 유상운송법 적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진규 회장은 “2년 전부터 대비한 도장 현안이 한참 지나가 버렸다. 이젠 태권도계에서 해결을 위한 동력을 잃었지만, 도움을 줄 만한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했다. 📢

‘뉴 페이스’ 돌풍 몰아친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

남원=글 류호경 사진 양택진 류호경

새바람이 몰아쳤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속출했다. 지난 9월 3일,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타이베이(臺北) 품새 세계 선수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은 이변의 장이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태극 마크를 지켜 내지 못했다. 그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뉴 페이스’들의 반란이 빛났다. 오는 11월, 타이완(臺灣)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2018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불운의 김지수, 생애 첫 태극 마크 달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은메달

리스트(여자 단체전) 박재은(가천대학교)도, 지난 5월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공인 품새 여자 개인전 U-30) 김효민(한국체육대학교)도 아니었다.

주인공은 유독 국가대표 선발전 무대에 서면 실수가 잦았던 김지수(경희대학교)였다. 2018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서 개인전 2위와 단체전 5위에 머무른 김지수에게 태극 마크는 늘 눈앞에서 비껴 나갔다. 트라우마도 생겼다. 김지수에게 국가대표는 언제 나 남 일이었다.

지난해에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목을 잡았다. 수술대에 올라 수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는 없었다. 김지수는 연습 방법부터 변화를 줬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품새 세계 선수권 선발전

을 기다렸다. 드디어 경기 당일 파죽지세로 공인 품새 여자 30세 이하부 결승에 진출했다. 김지수는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심소미(용인대학교)와 우승을 놓고 격돌했다. 우려와 달리 김지수는 냉정하게 경연을 마쳤다. 심소미의 실수로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고, 결국 평점 8.115:8.000점으로 앞서 생애 첫 태극 도복을 입게 됐다.

김지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부모님께서 자랑을 많이 하셔서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친척들까지도 축하 전화를 보내 왔다. 그동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세계 선수권에서는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연을 펼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수



이재원



이지영

나태주·이지영, 자유 품새 최강자에 자리매김하다

나태주(K타이거즈)와 이지영(경희 성포체육관)은 나란히 우승 후보 0순위를 따돌리고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둘은 돌풍을 일으키며 이번의 중심에 섰다. 세계 무대서 용솟음치는 나태주와 이지영이 벌써 그려진다. 나태주는 최고 주가의 한영훈(가천대학교)을 잡았다. 한영훈은 올해 호치민 아시아 선수권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석권한 자타 공인 최강자로 꼽히는 존재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우승은 한영훈에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결과는 달랐다. 자유 품새 남자 개인전 17세 초과부 결선에서, 나태주는 8.34점을 받아 내며 1위를 차지했다. 이 부문 결선에서, 8점을 받은 건 나태주가 유일했다. 2위 김진만(청송체육관)과는 0.40점 차이였다. 나태주는 김진만에 비해 최소 한 개에서 최대 세 개까지 동작에서 감점이 없었다. 한영훈은 아시안 게임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를 연발했다.

이지영은 일약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대통

령기 3위로 선발전 출전권을 얻은 이지영은 곽여원(강화군청), 윤지혜(한국체육대학교), 최동아(경희대학교)를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곽여원·윤지혜·최동아 셋은 아시안 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강호였는데, 1위 자리는 뜻밖에도 이지영에게 돌아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자유 품새 여자 개인전 17세 초과부 결선에서, 이지영은 다섯 번째로 경연에 나섰다. 7.16점을 받은 곽여원의 경연이 끝난 뒤였다. 부담감이 커졌다. 그런데도 이지영은 준비한 경연을 실수 없이 마쳤다. 특히 자신 있던 아크로 바틱 동작과 540도와 720도 회전 발차기를 마음껏 뽐냈다. 결과는 곽여원보다 단 0.04점 높은 7.20점이었다.

생애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지영은 “어렵게 기회가 찾아온 만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메달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당찬 목표를 밝혔다.

가자, 타이베이로!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11회 타이베이 품새 세계

선수권에 대비하기 위해 공인 품새 37명과 자유 품새 4명으로 이뤄진 41명의 국가대표를 일단 선발했다.

KTA는 오는 10월 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지도자 선임과 함께 세계 선수권에 출전할 최종 멤버를 확정한다. 이번 선발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유 품새에 첫 출전한다는 점이다. KTA는 제10회 대회까지는 공인 품새에만 주력했다.

2016년에 페루에서 열린 제10회 리마 세계 선수권에서, 한국 품새는 금 8·은 1·동 4개를 획득하며 10연패의 금자탑을 쌓은 바 있다. 지난 대회 남자 40세 이하부에서 3위를 차지한 김도경 사범(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여자 50세 이하부 대표로 선발된 김연부 사범(국가대표참대권도장)은 2회 연속으로 세계 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창설 대회를 시작으로 11연패 달성에 도전하는 한국 품새 국가대표팀이다. 그 야망의 실현에 앞장설 돌풍의 주역들이 결전의 땅, 타이완 타이베이로 간다. 🇹🇼

■ 2018 타이베이 품새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 한국 국가대표(잠정)

구분	범주	개인전		페어전	단체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공인 품새	카뎃(12~14)	이창현	이주영	이창현-이주영		
	주니어(15~17)	홍성운	정지민	홍성운-정지민	이준희-김상우-남경수(카뎃)	박채원-오윤아-한주희(카뎃)
	U-30(18~30)	이재원	김지수	이재원-김지수	이근영-이민호-이학준(주니어)	유민영-손민선-전연서(주니어)
	U-40(31~40)	김도경	김미현	김도경-김미현(O-30)	강완진-김동윤-양준영(U-30)	심소미-엄지민-이소영(U-30)
	U-50(41~50)	송재삼	김연부		노민기-이진한-송기성(O-30)	김은주-이해진-김효숙(O-30)
	U-60(51~60)	정상효				
	U-65(61~65)	서동균				
	O-65(66~)	이병채				
자유 품새	U-17	김태경	정하은	김태경-정하은		
	O-17	나태주	이지영	나태주-이지영		

※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자는 품새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



조성호 대구 수성구청 감독(가운데)과 선수들이 여자 일반부 3연패를 상징하는 손가락 세 개를 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 자랑하는 태권도의 장, 열전 펼쳐지다

구미=글 사진 박상욱 WTN 기자

제48회 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겸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 예선대회가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지난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렸다. 총 1,904명이 출전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협회장기를 놓고 자웅을 겨뤘다. 이번 대회 고등부·대학부·일반부 입상자(1~3위)에겐 2019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출전권이 부여됐다.

13일 오전 11시 대회 개회식이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최창신 회장과 조영기 고문, 이승안 국기원 원로회의 의장, 시도협회 윤종욱 경상북도 회장과 최진규 서울특별시 회장 및 이영석 광주광역시 회장, 구미시 장세용 시장과 김재상 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사에서, 최 회장은 “대한민국 태권도 역사와 함께해 온 이 대회는 손 개에 가까운 나이에 쌓이며 한국 태권도를 대변하는 무대로 성장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이어 “태권도 중가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기상을 떨친 술한 재목들 모두가 이 대회를 거치며 거목으로 클 수 있는 영양분을 축적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여러분도 내일의 한국 태권도를 짊어질 인재의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환영사에서, 장 시장은 “올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태권도

가 명실공히 국기로서 인정받게 된 건 태권도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중부 종합 우승은 금 2은 1개를 획득한 오정중학교가 차지했다. 전북 체육중학교는 메달 수가 같았으나 다수 참가 체급에서 뒤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풍생중학교가 금 은 동 각 1개씩을 획득하며 3위에 자리했다.

여중부에선 부일중학교가 금 2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부일중학교는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힌 남유림이 웰터급을, 임소현이 라이트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해 협회장기를 가져갔다. 뒤를 이어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가 금 1은 1동 2개로 2위에 올랐다. 석포여자중학교는 메달 수가 같았지만 다수 참가 체급에서 뒤져 3위에 그쳤다.

남고부에서는 8개 학교가 각각 1개의 금메달을 나눠 가지는 등 절대강자도 약자도 없었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대전체육고등학교가 금 1은 1개로 정상에 올랐다. 메달 수가 같았던 숙지고등학교는 다수 참가 체급에서

뒤져 2위에 머물렀다. 그 뒤를 강원사대부속
고등학교가 이었다.

여고부에선 대전체고가 금 2·은 1·동 2개로
협회장기를 품에 안았다. 울산스포츠과학고
등학교가 준우승을, 강원체육고등학교가 3
위에 각각 자리했다. 동아대학교는 남자 대
학부 우승(금 3·은 1·동 1개)을 차지했다.
동아대는 2017년 대표 선발전 참패의 수모
를 뒤로하고 값진 결과물을 거둬들이며 영
광 재현에 나섰다. 준우승은 경희대학교가,
3위는 청주대학교가 각각 자리했다. 남자 일
반부에서는 출전 선수 6명 전원이 메달(금
3·은 3개)을 획득한 한국가스공사가 용인시
청(2위)과 영천시청(3위)을 따돌리고 지난해
상무에 내주었던 협회장기를 되찾았다.

여자 일반부에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대
회 최우수 선수로 뽑힌 김보미를 비롯해 임
다빈·이솔미의 활약에 힘입어 3연패를 달성
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2위(금 2·은 1·동
1개)에, 청주시청이 3위(금 1·동 1개)에 각각
랭크됐다.

수성구청, 지도자·선수

하나 된 열정으로 3연패 금자탑 쌓아

여자 일반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협회장기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대회 첫
날 메달 획득에 실패해 3연패 전선에 먹구름
이 끼었던 수성구청은 마지막 날 금메달 3개
를 쓸어 담으며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최우
수 선수의 영광을 안은 김보미를 비롯해 임
다빈과 이솔미의 활약에 힘입어 쌓은 금자
탑이다. -46kg급에 출전한 김보미는 준결승
전에서 국군체육부대 최희정을 시종일관 물
아붙인 끝에 24:3 3라운드 점수 차 승을 거
뒀다. 결승전에서도 김보미의 화력은 식을
줄 몰랐다. 대전광역시체육회 김수림과 맞
붙은 결승전에서, 김보미는 접근전을 펼치
며 한 박자 빠른 몸통 공격을 효과적으로 성



남자 고등부 -54kg급에서, 이민영(인천체육고등학교·오른쪽)이 이정일(한성고등학교)에게 얼굴 공격을 성공시키고 있다.

공시키는 한편 김수림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
하는 등 자신의 공격력을 극대화했다. 여기
에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으로 상대를 공략
해 19:5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입단한 이솔미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73kg급 준결승전에서, 이솔미는 신현선(서
울시청)을 12:6으로 제쳤다. 결승전 상대는
김은정(부산 동래구청). 1라운드에서, 이솔미
는 몸통과 주먹으로 3점을 획득해 앞서 나
갔고, 이어서 오른발 머리 공격을 성공시키
며 대거 6득점을 쓸어 담았다. 이후 김은정
의 추격에 쫓긴 이솔미는 경기 종료 30초 전
8:8까지 허용했다. 결국 승부는 골든 포인트
의 연장전에서 갈렸다. 이솔미는 공격해 들
어오는 김은정에게 오른발 돌려차기 몸통
공격을 성공시켜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술 후 재활을 거쳐 첫 경기에 나선 임다빈
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임다빈은 남현
정(서울시청)을 접전 끝에 4:2로 꺾고 -53kg
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성호 수성구청 감독은 “부상 선수가 많았
다. 올해 초 수술한 선수도 있었다. 재활 후
첫 경기에 출전한 두 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
의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에 힘
을 보탤다. 선수들이 믿고 따라와 줘 무척 고
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 감독은 이어
“만연 김재아도 수술 후 재활을 거쳐 첫 대
회에 출전하면서 3연패에 한몫하겠다는 각

별한 각오로 임했다. 김재아를 중심으로 선
수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해 줘 매우 고맙
다.”라고 덧붙였다.

수성구청은 평소 강도 높은 훈련으로 소문
난 팀이다. 조 감독과 선수들은 이러한 훈련
에 대해 “훈련할 때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다. 그렇지만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실 때는 어느 팀 못지않게 재밌게 보낸다.”라
고 입을 모았다.

이 팀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단결이 잘
되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성구청에 입단하는 순간, 과거 어느
팀에 소속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같
은 식구이자 동료가 된다. 특히 “열정이 넘치
는 팀”이란 평가는 수성구청을 상징하는 말
이 됐다. 열정의 아이콘이 된 수성구청의 지
향점은 ‘하나의 팀’이다. ‘One for All, All for
One’을 바탕으로 팀이 운영되고 있다.

협회장기 3연패를 달성하는 데에도 선수들
의 적지 않은 희생이 깔려 있다. 부상 중인 선
수, 수술 직후 재활 중인 선수들이 자신을 희
생하며 팀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일거 낸 3연
패다. 조 감독은 이러한 선수들의 희생에 감
사의 마음과 함께 선배 역에 충실하며 팀을
이끌어 가는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대회 3연패가 하나 된 팀이 열정으로 일군
결과물이란 데에 누구도 고개 젓지 않을 듯
싶다. ㉠



2015년 창단 후 첫 국방부장관기를 품에 안은 여자 일반부의 인천동구청

누가 ‘산소(酸素)도시’ 태백서 호령했나?

태백=글 류호경 사진 양택진·류호경

지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이레(이하 일수 기준) 동안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제2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중학부·고교부·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열린 이번 대회엔 총 2,548명이 참가해 열띤 각축전을 펼쳤다. 특히 체급별 1~3위자에게는 2019년도 국가대

표 1차 선발전 출전권이 부여돼, 한결 열기가 높았다. 군(軍)부는 이에 앞서 11일부터 이틀간 경북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내 실내 체육관서 분리되어 열렸다. 개회식에서,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은 즉석연설로 “경기하거나 관전하거나 대회를 진행하기에 고지대인 태백만큼 좋은 곳은 우리나라

에 없다. 지난여름, 무더위를 무릅쓰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기량을 쌓아 온 선수 여러분이 날씨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됐다. 무더운 날씨를 딛고 연마한 기술을 날씨 덕을 보며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가길 바란다.”라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창단 후 처음 대회 정상에 올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2015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기를 품에 안았다. 인천 동구청은 -49kg급을 제외하고 출전한 7개 체급서 모두 입상권에 진입하는 맹위를 떨쳤다. 먼저 +73kg급 결승전에서, 김빛나는 양승혜(제주도청)를 압도하며 팀에 금메달을 안겼다. 김빛나는 접근전을 펼친 양승혜의 몸싸움을 발놀림으로 비껴 내며 얼굴 공격으로 기선을 잡았다. 김빛나는 3회전까지 양승혜 발을 묶어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끝에 15:5로 1위를 차지했다.

-62kg급 결승전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올 2월 입단한 김다영은 정은화(영천시청)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1회전 초반 주먹 공격에 선취점을 내준 김다영은 이후 3회전까지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57kg급 결승전에서, 윤정연은 강채령(춘천시청)을 한 점 차(2:1)로 따돌리고 우승하며 팀에 한몫을 보탰다.

인천 동구청은 이 밖에도 -53kg급 김다휘와 +73kg급 김신비가 은메달을, -46kg급 김윤옥과 -67kg급 김희량이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 획득에 성공한 인천 동구청은 안산시청과 성주군청을 제치고 창단 3년 만에 여자 일반부서 국방부장관기를 거머쥐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정상에

올랐다. 남녀 대학부에서는 동아대학교와 한국체대가 우승기를 차지했다.

또 남녀 고등부에서는 충남체고와 성안고가, 남녀 중등부에서는 전북체중과 부일중이 각기 시상대 맨 위에 섰다. 군부에서는 해군이 개인전 6체급을 석권하는 데 힘입어 제1야전군사령부의 5연패를 막고 우승기를 안는 감격을 누렸다.

경기장 문화, 한 걸음 전진

태권도 경기장은 그동안 쓰레기와 관중석 혼합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로 말미암아 KTA는 넘쳐 나는 각종 쓰레기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관중석 응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 왔다. 주최 대회마다 관중석 환경을 점검하며 우수한 선수단에는 지역 특산물과 함께 모범상을 수여했고, 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응원을 유도해 경기장 내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추락 사고를 미연에 막으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번 대회 현장에서 작은 결실을 맺었다. 고원체육관 내 관중석 하단 일부(3열)를 응원석으로 지정해 경기장 질서 확립에 나선 KTA의 노력은 참가 선수단의 적극적 협조로 통로가 확보되면서 호평받았다. 대회 임원, 지도자, 학부모, 참가 선수 협조, 그리고 고원체육관의 넓은 시설 환경이 문화 개선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태권도 경기장이 어떻게 탈바꿈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



유스 올림픽 국가대표 김강민, 쾌조의 컨디션 보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10월 6일~18일)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김강민(충남체고)은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김강민은 이 대회 남자 -55kg급에서 정상에 도전하는 유망주다. 이번 국방부장관기 남자 고등부 -58kg급에 나선 김강민은 16강전부터 내리 3경기를 점수차 승으로 끝내며 금메달을 예고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며 체력에서 우위를 점했다. 결승전에서도, 김강민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최광석(경북체고)을 한계선 부근으로 밀어내며 분위기를 잡아 나간 김강민은 그때마다 얼굴 공격을 적중시키며 31:15로 낙승했다. 지난 4월 튀니지 함마메트에서 열린 2018 유스 올림픽 세계 예선대회에서, 김강민은 7위로 본선 출전 티켓을 따낸 바 있다. 당시 요르단 선수와 치른 8강전에서, 김강민은 주특기인 앞발 공격이 번번이 차단되며 메달 획득엔 실패했다.

김강민은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하면서 체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 오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뒤 오후에는 대도(Daedo) 전자호구와 전자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쓴맛은 올 4월 예선서 충분히 맛봤다. 본선에서는 기필코 금메달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여자일반부 -62kg급 1위에 오른 인천동구청 김다영(오른쪽)의 결승전 경기 장면



인천동구청 김빛나(왼쪽)의 여자일반부 +73kg급 결승전 경기 장면

〈7〉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새바람 부는 BTA, 웅비의 신바람도 일어나다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BTA·회장 김상진)는 2018년도 사업 계획의 하나로 '태권도인 단합과 사회 기풍 조성'을 내세웠다. 으레 한 기관이나 단체가 신년 목표로 거창한 외형 성장에 역점을 두는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BTA와 회원 도장 상호 간 긴밀한 의사소통 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실행 방안으로는 워크숍을 비롯해 각종 토론회 등 회원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갖자는 계획을 마련했다.

부산=글 최규섭 사진 김상진,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제공



김상진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

희생정신, 국내외에서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

이 같은 다소 형이상학적·추상적 목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김동규 BTA 사무국장은 “김상진 회장님의 소신과 신념에서 비롯됐다.”라고 귀띔했다. 화합의 토대를 마련했을 때 비로소 발전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회원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장을 펼쳐야, BTA가 마땅히 존재해야 할 자리에 굳세게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김 회장의 생각이 엿보였다.

이 같은 김 회장의 결연한 의지는 형이상학적·구체적 성과물로 나타났다. 파벌의 극한적 대립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각종 분규로 어지럽고 떠들썩하던 이 지역 태권도계는 시나브로 혼돈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불과 9개월여 만에 빚어진 믿기 힘든 현실에, 모두 놀라면서 이를 무척 반갑게 받아들인다. 참 다행스럽게도 BTA에 새 세상이 열렸다.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다.”라며 기뻐했다. 김 회장의 ‘화합 중시론’엔, 그의 인생철학이

기저에 깔려 있다. 김 회장의 삶을 관찰해 온 좌우명은 봉사와 헌신이다. ‘남을 위해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소신은 김 회장의 삶을 지탱해 온 바탕이다. 두 화두 - 봉사·헌신 -, 그 근간엔 희생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희생정신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어우러짐, 곧 화합으로 이어진다.

김 회장의 인생철학이 BTA 행정에도 접목됐음은 물론이다. 2016년 12월, 김 회장이 통합 BTA 수장으로 취임한 뒤 밝아 온 행보를 보면 쉽게 엿볼 수 있다. 지난 약 2년간, 김 회장은 650여 개 회원 도장 지도자에게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 달라.”라고 줄곧 역설해 왔다.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권도 지도자가 불우 이웃과 홀로 사는 노인을 돕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맨 앞은 김 회장이 자처했다. 기꺼이 후원 성금을 내놓았다. 2000년 운동처방사(한국체육대학교), 2006년 노인체육지도자 2급(부산외국어대학교) 자격증을 각각 취득한 배경은 희생정신을 구현하려는 맥락에서였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위하는 김 회장의 정신



김상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시크파이(오른쪽 옆)와 메달 획득 기쁨을 같이하고 있다. 맨 왼쪽은 민선학 아프카니스탄 국가대표팀 감독.

은 멀리 이국 땅에서도 발현됐다. 김 회장은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육성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제자인 민신학 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애처로운 사연을 접하고 도움에 나선 지 11년이 됐다. 여전히 김 회장의 뜨거운 손길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태권도복을 비롯한 용품과 대회 출전비 등 1년에 평균 4,000만여 원씩 아낌없이 지원해 왔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아프가니스탄 태권도협회 명예 부회장을 맡았으며 각종 국제 대회 때 국가대표 선수단장을 도맡는 등 물심양면으로 그곳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진력해 왔다. 귀감으로 삼을 만한 김 회장이 '아프가니스탄 태권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김 회장이 뿌린 씨앗은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2012 올림픽 때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역사상 첫 메달을 수확하는 귀중한 결실이 있었다. 남자 -63kg급에서, 로홀라 니크파이가 값진 동메달을 따내 '동방의 귀인'에게 보은했다.

경영 기법을 접목한 BTA, 도약의 나래 달다

김상진 회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명망 있는 기업가다. 2016년부터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데서도 방증되는 평가다.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뜻한다. 2013년 4월에 창립된 부산·울산협회엔, 1,100여 개 회원사가 등록돼 있다. 그만큼 기업가로서도 미래 지향적 의식과 안목을 갖췄음이 엿보인다. 김 회장은 그 뛰어난 경영 능력을 BTA 행정에 도입했다. 30년에 걸쳐 체득한 경영 기법을 접목해 BTA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효용을 적극

활용하려는 김 회장의 발상은 신선하며 눈여겨볼 만하다.

김 회장은 태권도를 단순히 심신 수양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사고에서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했다. "어릴 때부터 세계를 향한 꿈과 희망을 길러야 한다."라는 김 회장은 태권도가 그 바탕을 마련하는 데 충분히 효용성을 갖췄다고 본다. 이를 실현키 위해 밤잠을 설치며 심혈을 기울여 온 김 회장은 내년도 그 첫 삽을 뜬다는 청사진까지 그렸다. 사업가의 머리와 눈이 빛어낸 작품이라 할 만하다. 김 회장의 이 같은 구상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려는 데서 비롯됐다. 김 회장은 "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뿌리내렸는데, 정작 국내 태권도인은 정신적으로 틀 안에 갇혀 있다. 협력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글로벌화한 소중한 태권도 자산을 지키고 더 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진척시킨 계획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즉, 의식과 소양의 기틀이 마련되는 어릴 때 세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태권도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유형화 작업이다. 국제 대회를 유치하거나 오픈 대회를 창설해 개최하려는 생각도 맥을 같이한다. 국제 교

류로 침체된 이 지역 태권도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실체화를 서두르고 있다. "아직 구체적 실체를 밝히기엔, 몇 가지 걸림돌이 남아 있다."라는 김 회장은 "그러나 내년에 이 지역에서, 국제 무대의 막을 올리겠다는 계획엔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BTA의 제반 행정에 두루 밝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을 밟아 왔다. 1995년에 위원으로 BTA와 연을 맺은 이래 차장→위원장→이사→부회장을 거쳤다. 이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2015~2016년)을 역임한 뒤 첫 통합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마디로 BTA 행정의 '산증인'이다.

따라서 김 회장은 BTA가 가야 할 방향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일선 지도자의 고민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회원 도장 중심으로 BTA를 운영해야 하며 이 연장선상에서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려 애쓴다. "오로지 BTA 발전과 회원 권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취임 일성을 늘 되새기며,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다.

지난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김 회장은 태권도 진흥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일찌감치 태권도를 삶의 지표로 삼은 김 회장에게 당연한 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김상진 회장(왼쪽)이 에티오피아 대통령궁을 방문해 몰라투 테쇼메 대통령에게 금관(모형)을 선물하고 있다.

INTERVIEW

“오로지 삶의 원천인 태권도가 씨앗이 돼 맺은 과실일 뿐이다”

김상진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

김상진 회장(58)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에 입문했다. 이 시절, 그는 경북 일대에서 꽤 알려진 육상 꿈나무였다. 태권도에 매료된 그는 태권 도복과 맺은 연을 오히려 소중히 해 왔다. 반백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태권도는 삶의 지주였고 활력소였다. 중견 사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요즘에도, 태권도는 그에게 인생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무덕관 출신인 그는 1991년 국기원 공인 5단을 받았고 1996년엔 6단을 취득했다. 1883년 사범으로 후진 양성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고, 2년 뒤엔 동아체육관을 열고 본격적으로 제자를 길러 냈다. 1986년부터 6년간 할렐루야 사범단 부산 지역 초대 감독을 맡아 활동했다. 1994년엔 태권도 심판 자격증을 취득했다.

‘팔방미인’으로 평가받는 그의 발걸음은 예서 멈추지 않고 곳곳에 더 자취를 남기고 있다. 사업가와 교수로서도 괄목할 만한 능력을 나타냈다. 아직 이립(而立)에 이르지 않은 1988년, 사업계에 진출하며 사업가로서도 뛰어난 경영 능력을 뽐내고 있다. 2008년엔 고신대학교 스포츠 선교학과 개학을 주도해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태권도학 전공 겸임 교수로 인재 육성에 힘쓰는 중이다. 저술가로서도 자질을 발휘해 『태권도학 서설』(2010년), 『태권도 기술론』, 『태권도 역사와 철학』(이상 2011년) 『왜 태권도를 배워야 할까?』(2018년) 등 꾸준히 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뿐 아니다. 외교가 역랑마저 갖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한 에티오피아 명예 총영사로서



한국-에티오피아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상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국의 돈독한 관계 정립에 한몫하는 민간 외교 사절이기도 하다.

- 태권도 행정가로서도 대단한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주위에서, 개인적 사고를 지양하고 봉사헌신하려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높게 봐 준 듯 싶다. 교만하지 않고 태권도가 우리나라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속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싶다. 애석하게도 태권도는 요즘 담보 상태다.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다. 올 3월 국기원 태권도혁신위원회 위원을 기꺼이 맡은 까닭이라고 하겠다.”

-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 때 두드러진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 수석 부위원장이자 집행위원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단 순히 얼굴만을 내비치려 하지 않고 뭔가 할 일을 찾아 애썼다고나 할까?”

- 사업가 경력이 무척 화려하다.

“꼭 30년 전인 1988년에, 정말 화학 분야에서 처음 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 당연히 쓴 맛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좌절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늘 깨어 있으려 했다.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보셨는지, 2001년 천우테크를 설립한 뒤부터 비교적 순탄한 길을 밟아 올 수 있었다. 17년이 흐른 지금, 천우테크·천우케미컬·천우플랜트(주)그라시아 등 사업장이 일곱 개로 늘어날 만큼 회사 규모가 부쩍 커

졌다. ‘기술이 승패를 가름한다.’는 신념으로 독자적 기술 개발에 주력한 덕분에, 다섯 개의 특허를 지닌 기업으로 발전했다. 특히 천우테크가 개발한 특수 금속 표면 처리 기술은 세계 특허를 받았을 정도다. 기술혁신 중소기업 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등을 획득하며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천우테크가 내심 자랑스럽다.”

- 이노비즈협회 부산·울산지회 회장, 주한 에티오피아 부산·경남 명예 총영사 등 다양한 직함을 지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듯하다.

“모두 인생의 기반이었던 태권도가 씨앗이 돼 맺은 과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내하고 헤쳐 나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태권도였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갈고닦는 데 최적의 무도다. 애정을 갖고 태권도와 꾸준히 함께한 덕분일지 싶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바빠 움직인 게 역설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 듯하다.”

그는 “태권도 철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나는(禮始禮終-예시예종) 무도인 태권도의 근본 가치를 깨우치고 실천하려는 태권도인이 가득할 때, 태권도의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현재의 안일에 젖어 태권도의 정신을 망각할 때, 퇴보만이 기다릴 뿐이다.”라고 경계의 말도 잊지 않았다.

〈8〉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지성인의 요람으로서 미래 인재 양성 주력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지성인’이라고 일컫는다. 특히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계에서, 대학의 구심점인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 최재춘)은 ‘지성인의 요람’으로 불리고 있다. 최재춘 회장은 2016년 1월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해 대학 태권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상태다.

글 최진우 국제태권도신문 편집인 겸 선임 기자
사진 최진우,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제공



최재춘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변화와 혁신 바람으로 태권도 새 문화 선도

최재춘 회장은 전북체육고등학교 선수 출신으로 25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활동했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태권도의 국기 지정을 위해 국기태권도 국가상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국기 태권도 지정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최 회장은 태권도 9단인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을 도와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창립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며, 태권도는 지난 3월이 의원의 주도로 대한민국 공식 국기로 법률에 명시됐다.

최 회장은 “태권도는 2024 LA 올림픽까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그렇지만 2020 도쿄 올림픽에 일본의 가라테가 채택되면서, 이후의 상황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일본은 국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무술에 대한 확장력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IOC 위원도 유승민 선수위원 한 명밖에 없고, 지원도 일본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서 우려가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태권도를 미래로 이끌 인재 육성이다. 초·중·고·대학으로 올라가면서 선수의 발굴과 육성도 물론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태권도학과를 비롯해 체육학과의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단순히 체육을 전공하는 이들이 운동선수로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스포츠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의 힘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 전문 선수 육성과 함께 이를 받쳐 줄 수 있는 학문적 연구와 과학적 시스템 마련 ▲ 우리 태권도만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태권도의 특성을 이용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스포츠 선진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국내에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맹목적 시간 투자와 육체적 훈련으로 선수를 양성하는 구시대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효율적 경기력 향상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와 전력 분석관 및 트레이너 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태권도학과를 비롯해 체육학과의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단순히 체육을 전공하는 이들이 운동선수로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스포츠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의 힘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 국제 스포츠 외교력을 넓히기 위해 미래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인재도 대학 시절부터 양성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스포츠 브랜드가 세계 속에 나아가 글로벌 브랜드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활성화와 스포츠와 접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과학적·의학적 접근을 통해 분야별 지도자를 양성해 시스템 안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바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

제 중 하나인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를 이루는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연맹은 세계 태권도문화학회와 자체 운영하는 국가대표 시범단 등을 통해 태권도 경기만이 아닌 학문적 연구와 태권도 민간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 새롭게 탈바꿈한 시범단은 전문 지도자 배치와 경력이 출중한 단원의 참여로 모험과 도전 정신만이 아닌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창의적 시범을 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학회도 지속적으로 이어 가 다수의 교수가 학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권도의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연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지고 있다.

제2의 부흥기 선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주력

대학연맹은 태권도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조별 경기 방식, 겨루기와 품새뿐만 아닌 태권체조와 시범 경연 등 다양한 부문을 도입해 전문 체육인만이 아닌 신인 선수와 동아리 등의 참여를 높이면서 태권도 수련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성인층에 태권도 보급률이 높아지는 밑바탕을 만들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대학연맹의 소임에 대해, 최 회장은 “제2의 부흥기를 선도해야 할 때다. 국내에는 전문 지식이 출중한 대학 교수들이 많다. 태권도를 전공해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가 많이 있다. 태권도의 미래를 위해 이제 교수들이 그 소임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효율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대학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에 나아가 한국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전문 체육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각

최재춘 회장(오른쪽)은 2014년 국기태권도 국가상징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정만순 국기원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연맹체의 고유 문제인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해선, 최 회장은 “중앙 협회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 회장은 “각 시도 협회는 심사비가 있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초등·중고·대학·실업·여성 등 연맹체는 사실상 수익금이 없이 운영되는 단체로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단순히 회장과 임원들에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중앙 협회에서 실무자들이 나서 국가 사업을 따고 각 연맹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연맹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수년간 지켜보니까 중앙 협회 실무자들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자리 보존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각 연맹체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임기 내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승인받은 국제 대학 태권도대회의 국내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다. FISU는 전 세계 대학 스포츠 제전인 유니버시아드를 주최하는 국제 기구로, 2014년 세계 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를 마지막으로 국제 대학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FISU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태권도 기구를 통해 FISU 승인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최 회장은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 FISU로부터 공신력이 있는 단체로 인정받아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다. 제주에서 FISU 승인을 받은 국제 대학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했지만, 세계 연맹의 운영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1~2년 내로 국제 대학대회를 개최하려 한다.”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대학연맹은 올해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내년 7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우수한 기량의 선수 발굴과 육성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최 회장은 “겨루기는 이란과 중국 등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제 종주국 체면치레도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아직 품새는 우리 선수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량이 우수해 자존심은 지킨다. 그러나 품새도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외 국가대표팀 지도자 중 한국인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대로 가다가는 태권도에서 한국인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래서 우리 대학연맹엔 내년 유니버시아드가 중요하다. 좋은 선수가 선발되는 것도 중요하나, 대학 국가대표도 국가대표이니까 진천선수촌과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시스템을 통해 훈련해야 한다. 또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배치되어 올림픽 대표와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되도록 만드는 게 회장의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

제41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대학연맹 임원진이 국가대표 시범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한국 무용을 접목해 대학생만의 창의적 시범 공연을 선보이는 대학연맹 국가대표 시범단의 시범 모습.

기대를 저버린 고급 자전거 생산국 대만 중주국에서조차 비 인기 종목이 된 태권도

타오위안(桃園) = 글 사진 서완석

대만은 사이클 동호인들에게는 선망의 나라입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독일이 그런 것처럼, 대만은 동호인들이 꿈꾸는 거의 모든 고급 브랜드의 사이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의 본고장 유럽의 자전거 회사는 신제품 기획만 할 뿐, 생산지지는 대만인 것이죠.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필자는 최근 대만 타오위안 방문을 앞두고 살짝 흥분돼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나 만날 수 있는 기함급 고성능 자전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월드그랑프리 3차 대회(9월 19~21일)가 열린 타오위안은 비록 타이베이 외곽 도시라 해도 고급 브랜드 자전거가 줄지어 다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큰 법. 그곳에 체류한 일주일 간 고급 브랜드는커녕 '따릉이' 같은 시티바이크 몇 대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은 많은 시민이 자전거 대신 작은 스쿠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사진). 자전거는 위험해서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어보였습니다. 고급 자전거 천국일 것이라는 환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대회 기간 중 만난 크로아티아 태권도협회장도 전혀 다른 소재로 이와 유사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서울을 림픽이 열리기 1년 전인 1987년 한국을 방문했던 소감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면 전부 태권도 유단자일 것이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단연 태권도일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확인한 인기 스포츠는 야구, 축구 같은 것이어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태권도가 언제까지 중주국에서조차 비 인기 종목으로 남아야 할까요? 이 시대 태권도인들이 풀어야 할 준엄한 숙제입니다. ●



그가 빛날 때, '영원한 반려자' 태극기가 휘날린다

자카르타=글 최규섭 사진 류호경

아! 역시 우승의 맛은 달콤하다. 절대 강자라 할지라도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쏘냐? 환호작약하며 승전가를 소리 높여 부른다. 개가를 올리고 희열을 만끽한다. 열망을 이루고 대소(大笑)를 터뜨린다. 정상을 밟고 사자후를 토한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 자만이 자아낼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다.

김태훈(수원시청).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우리 나이 스물 다섯의 청년이 내뿜은 기개가 천하를 뒤흔들었다. 아니 현재 진행형이다. 아시아는 물론 나아가 세계 태권도계 경량급에서 으뜸의 숨씨를 뿜내고 있다. 그의 진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다시 한 번 두드러지게 표출됐다. 겨루기 남자 -58kg급에서, 4연승을 내달리며 가볍게 정상에 올랐다.

경이롭다. 대를 쪼개는 그의 발차취를 쫓아가면 절로 경탄할 수밖에 없다. 국제 무대에서 끊임없이 금빛 발차기를 수놓고 있다. 2017 무주 세계 선수권부터 2017 아비장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을 거쳐 2018 아시안 게임까지 거침없이 질주를 거듭했다. 당연히 그는 WT(세계태권도연맹) 올림픽 랭킹(519.18점)과 세계 랭킹(373.38점) 맨 꼭 대기에서 여유롭게 거닐고 있다.

태극기가 휘날린다. 늘 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표상이다. 그가 태극 도복을 입고 가는 곳마다, 뭇 국기를 좌우에 거느리고 맨 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우리나라 상징이다. 그가 빼어난 몸놀림으로 정상에 우뚝 설 때, 지구촌 처처에서 나부꼈다. 한국인의 자긍심을 드높였던 그가 더 높은 고지에서 태극기를 펄럭이려 한다. 그가 2020 도쿄 올림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







태권도 시범경기가 열렸던 장충체육관, 오른쪽 뒤편에 당시 본부 호텔이던 신라호텔이 보인다.

올림픽 정식 종목을 향한 몸부림, 태권도의 서울 올림픽 비사

글 서완석 사진 출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개회식 태권도 시범은 사마란치의 권고 때문

올해는 1988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일제 강점기에 이어 동족상잔이란 비극을 딛고 '한강의 기적'으로 일어난

한국. 신생국으로서 처음 올림픽 경기를 통해 국제무대에 선을 보인 자리이기도 했다.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호응은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광적이었다.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는 서울이지만 대회 준비는 국가적이었다. 서울올림픽

이 아니라 한국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만큼 국가적 총력전이었던 셈이다. 서울올림픽은 당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과 태권도계엔 절호의 기회였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수석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김 회장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탁월한 조정 능력을 발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선임되기에 이른다. 서울올림픽 유치가 김 회장에게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서울올림픽은 아울러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나아가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은밀한 시도가 서울올림픽에도 숨

어 있었다. 당시 태권도인들의 단합된 노력은 서울올림픽 개최 뒤 불과 6년 만인 1994년 파리 IOC 총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란 열매를 맺게 된다.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태권도계의 비화를 살펴보자.

전시 종목이던 태권도가

시범 종목이 된 사연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결정된 것은 개막 3년여를 앞둔 1985년이었다. 그해 6월 2~6일 동독의 동베를린에서 열린 제90차 IOC 총회에서, 태권도는 배드민턴을 제치고 시범종목이 됐다. 태권도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어서, 올림픽 시범종목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컸다. 시범종목으로 열린다는 것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가는 필요조건이었다.

당초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은 야구와 배드민턴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였다. 태권도는 서울올림픽에 시범종목이 아닌 전시종목으로 열릴 판이었다. 하지만 SLOOC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김운용 회장은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에게 강력한 어필 끝에 배드민턴을 끌어내리고 태권도를 시범종목으로 승격시켰다. 배드민턴은 4년 뒤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이미 정식종목으로 예약돼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에서는 모양새가 빠졌다. IOC란 거대한 국제기구도 결국은 소수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조직이었던 셈이다.

올림픽은 태권도 홍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집어넣기 위한 전략은 이미 서울올림픽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140개국 40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볼 올림픽 무대는 태권도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호기였다. 당시 김운용 회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결과가 우리의 소망인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시금석이 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권도는 서울올림픽 개최식 연무시범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단번에 끌었다.

9월 17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개최식 식전행사로 태권도 연무시범단의 절도 있는 동작이 전 세계로 중계됐다. 육군 비호태권도단 808명과 미동초등학교 시범단 200명 등 1,008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태권도의 무술적 강렬함과 예술적 가치를 살려 태권도의 위상을 단숨에 높였다.

당초 SLOOC은 개최식 태권도 연무 시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운용 회장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들은 사마란치는 “꼭 하라.”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사마란치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식에서 펼쳐진 태권도 연무 시범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권도 경기장인 장충체육관의 비밀

태권도 경기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올림픽 정식종목 진입을 위한 한국 체육계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서울올림픽 본부 호텔은 서울 신라호텔이었고, 장충체육관은 절묘하게도 그 호텔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해 IOC 위원들은 싫든 좋든 매일 그 앞을 지나가야 했다. 태권도가 시범 경기임에도 사마란치 위원장 등 IOC 위원 수십 명과 수백 명의 국제 스포츠계 거물들이 태권도 경기장을 수시로 방문해 시상도 하고 경기를 지켜봤다. 대회 첫날 첫 금메달리스트인 여자 플라이급 한국의 추나윤은 사마란치 위원장으로부터 메달을 수여받았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모리셔스 IOC 위원 등이 메달 시상자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태권도에 좋은 인상을 줬다. 이들이 훗날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시 우군이 됐음은 물론이다.



태권도 시범경기를 지켜보는 김운용 회장(오른쪽)과 사마란치 IOC 위원장(당시).



서울 올림픽 태권도 경기 시상식 장면.

당시 KTA 직원들은 영어·프랑스어로 된 태권도 홍보책자를 만들어 IOC 위원들이 묵는 신라호텔 방까지 배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이 만든 홍보책자는 태권도 역사, 경기규칙, 세계 보급 현황 등을 담은 20쪽짜리 소책자로 태권도에 생소한 IOC 위원과 외국 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그에 앞서 장충체육관은 대대적 보수공사가 필요했다. 장충체육관은 지은 지 25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낡았다. 올림픽 정식종목인 유도 경기장이기도 했던 장충체육관에서 올림픽을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는 방송시설과 조명장치 등을 교체하는데 15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을 원했던 군 출신 SLOOC 간부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비록 시범종목이지만 태권도 경기를 멋진 경기장에서 치르고 싶었던 김 회장은 끈질긴 설득 끝에 예산을 따내 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

대회 초반 일정 잡아

언론 집중 조명 노력

태권도 시범 경기 일정은 대회 개최국의 이점을 십분 살렸다. 올림픽 개막일인 9월 17

일부터 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회 초반에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겠다는 전략이었다. 하계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유도가 끝난 다음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에서는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대회 첫날부터 경기를 해 언론의 주목을 이끌었다. 이 모든 것이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작은 밑알이 됐음은 물론이다.

모두 35개국이 출전한 태권도 경기의 대진 추첨은 개막 전날인 9월 16일 국기원 제2 강 의실에서 열렸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실력이 월등했음으로 한국을 피하기 위한 신경전이 드셨다. 참가국의 영어 알파벳 순으로 펼쳐진 대진 추첨은 남자 핀급부터 시작됐다.

번호를 써 넣은 탁구공을 상자 속에서 뽑아내는 추첨에 따라 한국과 1회전에서 맞붙게 된 쿠웨이트는 크게 실망했다. 6번을 뽑아 한국을 피한 미국 코치는 “럭키 6번!”이라며 쾌재를 불렀다. 플라이급 추첨에서, 필리핀의 홍성천 사범(현 국기원 이사장)이 나섰지만 한국의 1회전 상대가 되자 크게 낙담했다. 페더급 추첨에 나선 김영태 코트디부아르 사범은 4번을 뽑았으나 한국의 1회전 상대가 됐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장충체육관을 찾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끝내 울리지 않는 미국 국가

태권도 경기 마지막 날인 9월 20일 남자 헤비급 결승 경기가 마지막으로 열렸다. 한국은 김종석이 출전해 남자 8체급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었다. 상대는 미국의 재미동포 지미 김이었다. 김종석이 사실상 이긴 경기를 펼쳤음에도, 심판진은 미국의 손을 들어 줬다. 태권도 보급을 위해 정략적으로 양보한 것과 다름없었다. 김종석은 경기 뒤 화장실 세면대를 부여안고 엉엉 울었다고 한다. 곧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1위 미국 성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녹음된 미국 국가가 울리지 않았다. 전날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태권도 경기장은 이 일로 옥에 티를 남겼다. 시상을 위해 국가를 녹음한 녹음기가 세 개나 비치돼 있었지만, 결국 국가 없이 시상식이 치러졌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 관중이 일제히 무반주로 자신들의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장충체육관은 용산 미군 기지와 가까워, 미군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 미국 국가가 연주되지 않은 데 대해 “고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흐지부지됐다. ㉞

HISTORY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4>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1960년대 태권도 승단 심사 진행석 모습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1960년대 후반 태권도 승단심사 진행석으로 보인다. 당시 왕성하게 활동했던 태권도 원로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그때 태권도 제도권은 해방 이후 태권도 1세대들에게 무술을 배운 이종우·엄운규·이남석·이용우·홍정표·김선구·현종명·홍중수·김순배 원로 등 2세대들이 주도했다.

사진을 보면 심사 진행석에서 김순배 원로가 마이크를 들고 공지 사항을 알리고 있다. 그 옆에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엄운규 원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현종명·김선구·박해만 원로의 모습도 보인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1967년부터 가라테 형(가타)을 탈피하기 위한 독자적 품세(品勢) 제정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형’을 ‘품세’로 불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품세는 이종우 원로가 명명(命名)했고, 세(勢)는 기세·형세라 하여 중국무술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KTA는 1968년 품세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팔괘와 유단자 품세를 만들어 공표했다. 위원장은 이종우 원로(지도관)가 맡고,



곽근식(청도관)·이영섭(송무관)·이교윤(한무관)·박해만(청도관)·김순배(창무관) 원로 등이 참여했다. 1972년 유급자 태극 품세를 만들 때는 추가로 배영기(지도관)·한영태(무덕관) 원로가 참여했다.

1971년 김운용 회장의 당찬 포부와 행보

1971년 김운용 씨가 제7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갓 마흔이 된 외교관이자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차장)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전임 회장들이 탄탄하게 다져 놓은 기반 위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또 통일된 태권도 교본을 마련하고 태권도 영화를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탁월한 수완과 뛰어난 두뇌로 국내 태권도계를 평정해 나갔다. 그의 곁엔 각 관을 대표하는 이종우·엄운규·이남석·홍중수 원로 등이 포진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서도 힘을 조율하는 등 남다른 리더십을 보였다. 사진에서 보듯 김 회장(한가운데)은 젊고 당찬다. 홍중수 원로(맨 왼쪽)와 이종우 원로(왼쪽에서 네 번째), 김순배 원로(맨 오른쪽)의 젊은 모습도 이채롭다.

‘국기 태권도’는 1971년 3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 회장에게 써 줬다. 이와 관련한 김 회장의 회고담.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장에 취임한 후 태권도를 국기화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그리고 태권



도를 세계화하고 국위 선양의 기수, 호국의 기수로 만드는 것이 비전이었다. 그런데 태권도는 국기도 아니었고, 씨름과 축구가 서로 국기라고 했다. 당시 태권도는 여러모로 약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 말씀드려 ‘국기 태권도’ 친필 휘호를 받아 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선희

“스포츠 강사로 ‘장애인 체육’에 열정 쏟고 있어요”

용인 = 글·사진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저는 ‘레전드’가 아닌데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뛰어난 선배님들이 많은데요.”

2018년 9월 17일 오후 5시, 산들바람이 부는 용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이선희 씨(46)는 겸연쩍어했다. 자기는 ‘전설’이 아니라며 겸손하게 기사를 맞았다.

1996년 태권도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태권도학과 교수의 아내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로 삶을 일궈가고 있는 이 씨의 지난 선수 시절의 이야기와 현재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꿈과 목표를 들어보았다.

중학교 1학년 때 태권도 선수 시작

서울에서 태어난 이 씨는 유년시절 가족과 함께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인천여중에 입학하면서 태권도를 접했다. 1986년 중학교 1학년 시절, 별다른 생각없이 태권도를 하는 특별활동을 선택한 것이 그녀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

“제가 운동을 잘하거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별활동 시간에 ‘태권도’라는 과목이 있어서 별다른 생각없이 그냥 한번 태권도 수업을 들어볼까 하는 호기심에서 태권도를 하게 됐어요.”

학교에 태권도 선수부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태권도에 무지했던 이 씨는 몇 달 후 인천

시 태권도대회에 출전해 3위를 했다.

“전문 지식도 없이 태권도를 무작정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어요. 인천에서 열린 첫 대회에 출전해 3위를 했는데 기뻐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1위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태권도 선수생활에 재미를 느끼며 목표의식이 뚜렷해진 그녀는 문성여상 태권도부에서 승승장구했다.

대학교총장기태권도대회와 한국중고태권도연맹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여고부 웰터급에서 곧잘 1위를 거머쥐었다. 각 대학에서 러브콜을 보낸 것은 당연했다.

“나도 모르게 승부 근성이 생기고 여러 대회에 출전해 입상을 자주 하니까 주위에서 인

정을 받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감도 강해져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슬럼프 벗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다

그녀는 1991년 ‘4년 장학생’으로 대한체육과 학대학(현 용인대학교)에 입학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신입생 초기부터 슬럼프에 빠져 태권도 선수를 그만 뒀아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때마다 부모의 헌신적 응원과 장종오·박형태·김은숙·김경애 등 동료 선수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점차 슬럼프를 벗어나면서 강인해졌다.



1992년 8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회식에서, 이선희 씨(왼쪽)가 임신자 코치(오른쪽 옆) 및 동료 선수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그 후 이 씨는 체중을 늘려 미들급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1991년 대학선수권대회와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에서 1위를 한 그녀는 그 해 겨울에 열린 국가대표선수선발최종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1991년 12월, 그해 국가대표로 활동한 2명의 선수와 우수대회 각 체급 12위 입상 선수, 국가대표선수선발 1차 대회에서 입상한 각 체급 4명 등 총 8명이 각 체급에 출전해 접전을 벌였다.

그 대회는 '92바르셀로나올림픽'을 앞둔 전 초전 성격도 더해져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대회에서 이 씨는 미들급 1위를 하며 바르셀로나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아시아 선수권 미들급 금메달 획득

1992년 새해가 밝았다. 태릉선수촌에서 한국대표선수들은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새해벽두부터 강도 높은 합숙훈련을 했다. 그 안에 여자부 미들급 이 씨도 있었다. 여자부는 제9회 대회에서 대만

에게 우승을 빼앗겨 필승의 신념으로 체력과 기술을 보완했다.

이윽고 그 해 1월 하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7개국 175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10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씨는 1만 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미들급 결승에서 홈팀 말레이시아 선수와 만났다. 두 선수 모두 신장이 크고 기술도 좋아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다양한 기술로 득점을 주고받은 끝에 이 씨가 5:4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그전 벌여 올림픽 출전권 따내다

1992년 3월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태권도대표선수들이 최종 확정됐다. 1991년 12월에 열린 선발전에서 각 2체급 통합 12위자 4명이 리그전을 벌여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할 1명을 선발했다. 여자부 미들급·헤비급 통합체급에서 이 씨는 정명숙·박상화 선수와 모두 2승 1패 동률을 기록했지만 재경기에서 이겨 거이코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출전하게 위해 4명의 선수가 리그전을 했어요. 상대 선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먼저 2승을 하고 마지막 1승만 하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낼 수 있었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 아깝게 지는 바람에 최종 결승을 다시 했어요. 상대 전적에서 제가 우세했기에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패하는 바람에 다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다시 한 번 힘을 낸 것 같아요. 솔직히 권혁중 코치님의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져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

1992년 8월 결전의 날이 밝았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열리는 태권도 종목에 주신규·임신자 코치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남녀 각 4명의 선수를 참가시켰다.

드디어 8월 4일, 이 씨가 한국 미들급 여자대표선수로 출전했다. 경기력과 컨디션을 감안하면 미들급 금메달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경기를 앞두고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윽고 시작된 예선 1차전. 필리핀 선수는 이 씨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일방적인 공격력을 뽐내며 가볍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신장 172cm에 뒤차기가 주특기였던 이선희 선수의 공격을 필리핀 선수는 당해낼 수 없었다. 준결승전에서 만난 호주 선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1회전과 2회전에서 각각 1대1로 호각지세였다. 마지막 3회전에 승부를 걸어야 했다. 이 씨는 호주 선수와 접전을 벌이다가 3회전이 끝날 무렵 돌려차기를 적중시켜 3:2로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만난 선수는 캐나다의 마르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 카퍼레이드. 오른쪽이 이선희 씨.

아. 육중한 체구에 신장은 185cm나 됐다. 1회전은 서로 득점없이 탐색전을 벌였다. 들어찍기를 잘하는 그녀의 강점은 신장 열세로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2회전이 되자 상대의 허점을 노려 선제공격을 했다. 뒷발찍기로 득점한 데 이어 3회전에서도 득점을 올려 2:0으로 이겼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녀는 두 팔을 벌려 환호했다. 이선희는 체력과 기술, 정신력에서 상대한 선수들보다 한 수 위였다.

“4경기를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결승에서 만난 캐나다 선수는 키가 저보다 훨씬 커서 굉장히 어렵게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국내에서 경기할 때는 저보다 신장이 큰 선수와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주특기인 찍기 기술이 먹히지 않았어요.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를 어떻게 뛰었는지 자세히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선희 씨가 남편 장종오 용인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앞으로 꿈을 말하고 있다.

결혼 후 육아에 전념, 장애인 체육에 관심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시청에서 2년 남짓 선수 생활을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하며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1996년 실업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 친구처럼 지내다가 애인이 된 대학 동기 장종오 교수(용인대 태권도학과)와 2000년에 결혼을 했다. 남편 장 교수는 1990년대 웰터급 강자로 군림했다. 1993년 월드컵과 1998년 월드컵대회, 199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화려한 선수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결혼 후 육아에 전념했다. 태권도 지도자를 할 수도 있었지만 실업팀에서 코치

와 선수생활하고 있는 남편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

“결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태권도 경기장이나 생활체육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태권도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 태권도계와 거리를 두었던 그녀에게 지난해부터 ‘작은 변화’가 찾아 왔다. 스승인 임신자 경희대 교수의 권유로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과 대한태권도협회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 씨는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 본업이라 태권도계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등체육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이 씨는 주당 21시간 초등학생들을 가

르치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각 2주간 ‘건강 체육교육’을 맡아 어린이들의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돕고 있다.

현재 그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 체육’이다.

“여러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과 관련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장애인들의 가정환경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장애인 체육활동이 그들에게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교의 전통 몸 수행법 선무도(禪武道)

경주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

글·사진 이길우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정적, 사방이 고요하다. 숨소리도 안 들린다. 풀벌레 소리가 간혹 들린다. 이곳이 숲 속임을 알려준다. 순간 “부웅!”하고 바람이 거칠게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 야구방망이를 힘있게 휘두를 때나 들을 수 있는 소리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육체가 만들어 낸 소리다. 스님의 다리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다. 대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던 발은 기운차게 이룩한다.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낸다. 마치 마른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지를 가르는 천둥소리가 나는 형국이다. 스님의 팔과 다리는 천지사방을 향해 자유롭게 유연한다. 때로는 힘있게, 때로는 연체 동물처럼 부드럽게. 몸의 움직임은 점차 빨라지고 복잡해진다. 옆차기 상태에서 180도 뒤로 돌아 되돌아

찬다. 화려하다. 공중에 떠올라 두 발을 양쪽으로 쪽 뻗는다. 꽃이 핀다. 극도의 유연함과 단단한 균형, 그리고 한결같은 호흡의 조화이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갔다. 다시 정적이다. 스님의 호흡은 한결같다. 조금의 거친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가부좌를 틀어 앉아 있다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양발을 벌려 차는 동작은 태산 같은 내공이 없이는 불가능한 동작이다. 생각에 따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법(身法)의 극치이다.

선요가와 선기공의 정적 수련이 바탕이 되어, 신체 동작이 극대화된다.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 그림자가 흐르듯.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깨닫기 하기 위해, 근심을 없애기

위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열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유일한 법을 여기에 가르쳐 주노라.”

부처가 가르친 깨달음의 ‘비법’은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수행이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정신뿐 아니라 몸 수행을 중시한다. 오래 전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 수행의 전통 ‘선무도’(禪武道)로 이어지고 있다.

태권도 사범 출신 적운 스님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의 본산이다. 전 세계에서 선무도의 수행을 익히기 위해 수련자와 무도인이 찾아온다. 선무도를 전파하는 이는 설적운 스님이다.

스님은 출가 전 태권도 사범이었다. 열 살 때부터 동네 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익혔다. 무술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스무 살(1975년)에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하여 사미계를 받고 양익 스님을 만났다. 2006년 앓은 채 입적하는 좌탈입망(坐脫入忘)의 열반 경지를 보여준 양익 스님은 1960년대부터 선무도의 복원을 위해 전국의 노스님을 찾아다녔다.

인도에서 시작된 선무도는 고려, 조선시대의 승병들이 널리 익혔다고 한다. 1894년 갑오경장 당시 승병제도가 사라지며 산속으로 스며들었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스님 가운데는 선무도의 고수가 많았다고 한다. 적운 스님은 이미 익힌 태권도를 바







탕으로 선무도를 익히며 양익 스님의 수제자가 됐다.

전통 불교에서 불교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이라는 수행법을 선무도라는 이름으로 되살린 것이다. 그러곤 1984년부터 선무도의 세속 포교를 위해 도장을 열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설 씨입니다. 전 그 원효대사의 46대 직계 후손입니다. 아마도 제 전생이 승병 대장이었을 것입니다.” 원효대사는 경북 경주 근처의 혈사(穴寺·동굴 사찰)에서 입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운 스님이 주지로 있는 경주 골굴사는 이 지역 유일한 혈사다. 그러기에 적운 스님은 불교적 인연이 자신을 골굴사 주지로 자리 잡게 한 것으로 믿는다.

“선무도는 근본 불교에서 비롯된 밀교적 수행법입니다. 정중동(靜中動)의 조화를 통하여 신·구·의(身·口·意)의 삼업(三業)을 정화합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가 정신과 육

체의 청정무구법신을 이루어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해 수련하는 것입니다.”

불교 무술 하면 흔히 소림 무술을 꼽는다. 달마대사가 면벽 수련을 하는 승려들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섯 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소림 무술처럼, 선무도 역시 호랑이·원숭이·용·곰·거북이·학·사슴의 일곱 동물 동작을 본떠 기(氣)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열두 개의 동작으로 만들었다. 동작을 하기 전에는 선요가와 기공으로 기초를 다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적운 스님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인데, 몸과 마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강조한다.

“일반인들은 길게 들이쉬고 짧게 내쉽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가 들이쉬는 것보다 길게 내쉬는 것을 수련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1:2까지 늘리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돼 지극히 편안한 상태인 입정(入靜)에 들어가

쉬워요. 일반인들은 평균 1분에 15차례 호흡을 하지만, 수련을 하면 3차례까지 줄일 수 있고, 더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숨을 쉬는 것인지 멈춘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정신과 육체의

고리를 조절하는 단전호흡

호흡에 대해 조금 깊이 들어가 보자. 일반인들은 무의식적으로 호흡한다. 흉식(胸式) 호흡이다. 1분에 18회 정도. 3초에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얇은 호흡이다. 좌선 수행하는 이들은 호흡이 깊고 길어진다. 1분에 4~5회 한다. 선승들은 1분에 1~2회를 하며 완전히 삼매에 들어갔을 때는 2~3분에 한 번 호흡하기도 한다. 대부분 단전호흡이다.

불안하고 노이로제 상태에 들어가면, 호흡은 빨라진다. 반면 상쾌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은 깊어지고 길어진다. 부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고리를 조절하는 비법을 알아낸다고 한다. 바로 호흡법이다. 불교 용어로 ‘아나파나사티’다.

먼저 입 모양. 입을 다물되, 입술과 이빨이 겨우 서로 받쳐 닿을 듯하고, 혀를 위로 말아 올려 위 잇몸에 살짝 닿게 한다. 그리고 눈을 살짝 감는다. 살짝 감는다는 것은 겨우 바깥 빛을 차단하는 정도.

적운 스님은 스승인 양익 스님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눈은 코를 보고, 코는 입을 보며, 입은 마음을 보라.” 어렵다.

이제 본격적 호흡법.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풍상(風相). 숨이 콧속을 드나들 때 소리가 난다. 항상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되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가늘게 하며 코끝에 새의 깃털을 놓아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천상(喘相). 험떡거리는 모습이다. 숨결에 소리가 없다고 해도 드나들이 막혀서 잘 통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상(氣相). 소리가 없고, 막힘이 없더라도 호흡의 드

나뭇잎이 섬세하지 않는 것.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조절이 안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초보자의 경우 평소 흉식호흡의 습관으로 들숨이 날숨보다 길기 마련이다. 이를 1:1로 맞춘다. 그리고 내쉬는 숨의 길이를 두 배로 늘린다. 들숨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이마시되 길게 내쉰다는 것이다. 네 번째가 식상(息相)이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고, 드나들이 계속되어 끊기지 않으며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이다. 몸이 편안하고 온화해지며, 마음에 항상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식상의 상태를 평소는 물론 격한 운동을 하는 순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 수련을 해야 한다고 적운 스님은 설명한다.

선무도는 앉아서 하는 좌관(坐觀), 서서 하는 입관(立觀), 움직이면서 하는 행관(行觀)으로 수행법을 나눈다.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선 몸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체유법(五體柔法)으로 불리는 선체조다. 팔·다리·머리·배·등의 다섯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 심신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요가적 명상체조인 셈이다.

적운 스님은 “이전엔 법사나 은사 스님으로부터 호흡법이나 몸을 고르는 법을 지도받지 못하고, 큰스님을 찾아가 화두를 받아 좌선에 몰두해 좌골신경통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많았다”라고 말한다. 이 유연공에는 발가락·발목·무릎을 돌리고, 척추를 펴 주는 등 다양한 동작이 있다.

동물의 신체적 특징을 본뜬

선무도 체조

선무도의 체조는 동물의 뛰어난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본뜨고 있다. 우선 호랑이 자세다. 두 발을 벌리고 상체를 숙여 양손을 마치 호랑이 발톱처럼 손가락을 크게 벌려 양발 앞에 붙인 채 호흡을 천천히 한다. 용의 자세는 상체를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를 틀어 한

손을 공중으로 뻗는다. 곰의 자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양 발꿈치를 들어 항문을 수축하고 양 손바닥으로 좌우를 강렬하게 밀쳐낸다. 학의 자세는 두 발의 뒤꿈치를 밖으로 틀어 새끼발가락으로 지탱해 선 채, 양손은 끝을 모아 손목을 강하게 안으로 꺾는다. 이런 자세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척추 등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대부분의 무예가 공격과 방어의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선무도는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을 바탕으로 불교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적운 스님은 “정신과 육신의 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이는 맑은 육체에 맑은 정신이 깃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지(地)·수(水)·풍(風)·화(火)의 네가지 조화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좌관법은 가부좌를 취한 채 깊은 호흡을 하며 여러 형태의 수인(手印)을 연결 동작으로 하며 삼매에 들어간다. 심리와 생리적 기능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단계다. 준비 단계부터 17개 동작으로 구성돼 있다.

적운 스님은 “좌관법을 3개월 이상 수련하면 단전과 손바닥에 기운을 감지할 수 있고, 삼매에 들어간 가운데 오장 육부와 뇌의 구조, 색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경이로운 생명 에너지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바람은 숨결입니다. 불은 체온입니다. 물은 신체의 70%를 이루는 수분입니다. 땅은 신체를 이루는 뼈와 살이 갈 곳입니다. 이 네가지 호흡을 기본으로 쉬지 않고 육체를 움직여 좌야 질병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운 스님은 묻는다. “자신의 몸속에 흘러다니는 생명의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맑고 깨끗한, 어찌면 청량하고 신선한 환희의 감로(甘露)를 맛본 적이 있나요?”

그러곤 속세의 인간들에게 경고한다. “파거



불행(破車不行·망가진 수레는 움직일 수 없고), 노인불수(老人不修·사람도 늙으면 수행도 할 수 없다).”

적운 스님의 설법은 이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항상 ‘지금’입니다. 과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의 기억속에는 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만물이 무상하다 해도, 이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로 이 ‘영원한 지금’ 즉, 불변의 현재를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부처도 배고프면 먹어야 했고, 병에 걸려 신음했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육신의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야, 내면 세계가 깊어지고 심안(心眼)이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몸 수련을 게을리해선 안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강민성이 힘차게 연기하고 있다.

『태권도』 선정 8·9월의 선수 강민성 강민성, 희곡 ‘4전5기’를 쓰다

글 최규섭 사진 류호경

눈물이 배어든 밥을 먹어 보았는가? 그 밥이라도 양껏, 아니 한없이 먹고 싶었다. 참았다. 영양실조의 두려움까지 엄습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코트로 나섰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쏟아 부었다. 훈련으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윽고 스스로마저 잊었다. 가슴속을 지배하는 단 하나만 남았다. ‘정상’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화하는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갔다.

마지막 한 점을 찍고 하늘로 날아오르다

강민성! 어렵듯하게 들릴지 모르는 이름이

다. 그러나 ‘품새’라는 화두가 주어지면, 금세 또렷해지는 석 자다. 그 키워드에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이 더해지면, 기억의 실마리는 더욱 분명해져 다가온다. 이번 아시안 게임 태권도 품새 남자 개인전에서, 한국에 첫 금의 감격을 안긴 이름을 어찌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중주국 품새의 위엄을 전 아시아에 뽐냈으니 당연히 그 영광을 누릴 만하다.

강민성(20·한국체육대학교)은 아직 어리다. 이제 약관이다. 그런 그가 훌륭한 희곡을 썼다. 더구나 처음 태권 도복을 입고 뛴은 코트에서 완성한 4전5기의 이야기다. 쓰러져도 자칠 줄 모르고 일어났던 ‘오뎅이’가 비로소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 넣었다[畫龍點睛(화

룡점정)]. 잠룡(潛龍)이 항룡(亢龍)이 되는 순간, 그는 또 울고 울었다.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옛 추억이 잇달아 눈에 어른거렸다.

배어난 자질, 배고픔을 이기다

강민성은 미숙아에 가까웠다. 스무 해 전,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몸무게는 1.9kg이었다. 당시 신생아의 평균 체중이 3.2kg이었던 점과 대비하면, 그가 얼마나 가냘프게 태어났는지가 엿보인다. 부모는 이 아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웠다.

그러나 신은 공평했다. 모든 일을 사전에 안배하고 그 뜻대로 흘러가도록 했다. 그가 태권 도복을 입게 된 계기는 어느 날 불쑥 그를 찾아왔다. TV에서 방영된 태권도 프로그램을 보고 매료된 그는 태권도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날은 바로 ‘운명의 시간’이었다. 부모는 아들의 희망을 들어줬다. 아들이 태권도를 함으로써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깃들어서였다. 단 하나,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다. “시작하면 끝을 바라.”

잠재돼 있던 자질은 곧 표출됐다. 첫 배움터 (무덕체육관)의 관장(권기덕)이 권유했다. “습득력이 대단하다. 정식으로 선수 생활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덜컥 선수 등록을 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낼 시간도 없었다. 한눈에 제자의 뛰어난 소질을 꿰뚫은 첫 스승의 안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그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빨간 띠를 차고 첫 대회에 나서며, 그의 선수 인생은 비로웠다. 물론 품새 무대였다. 2006년에 첫 태권 도복을 입은 이래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는 줄곧 품새에만 매달렸다. 품새를 반려 삼아 삶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 셈이다.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다. 눈에 띄는 특징은 그 속도의 기욤기가 상당히 가팔랐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신의 말처럼, 부쩍 좋아진 솜씨를 앞세운 그의 존재감은 시나브로 전국 무대에 각인돼 갔다. 2009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그는 전국 대회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초고 고학년부 단체전에서 정상을 밟았다. 이듬해에는 2연패까지 이뤘다. 주니어(15-16) 대표 선발전에선, 유일하게 중학생으로 결선 무대에 올라 고등학생 형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였다. 품새계에서, “영주에 유망주가 있다.”라는 말이 퍼져 나갔다.

겉은 화려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 요소인 ‘식(食)조차 충족하기 힘들었다. 끼니를 때우기에도 벅찼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고등학교 시절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필요 영양분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필수적으로 뒤따랐다.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영광의 환호성을 터뜨린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이 멘다.

약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굶주렸지만

훈련을 소홀히 하기엔 아직 어렸다. 밤 12시까지 훈련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늦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수업 집중도도 떨어졌다. 덩달아 교사의 신뢰도 멀어져 갔다. 더구나 피로가 쌓이며 훈련 효율도 낮아졌다. 모 두가 배고픔에서 말미암은 나쁜 현상의 되풀이였다.

또 한 편의 연극이 오를 무대가 기다려진다

강민성에겐 미래가 없어 보였다. 밝은 앞날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신은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희롱하려는 양 쓰러지면 일어나는 그를 다시 넘어뜨리곤 했다. 네 차례나 국가대표(U-30)에 도전했지만, 그때마다 메아리는 들려를 기미조차 없었다. 번번이 주저앉았던 주니어 대표 선발전까지 생각하면 헤아리기 힘든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불운은 좀처럼 끝자락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태극 도복은 단 한 번도 그와 인연의 끈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그는 국가대표의 꿈을 접으려 했다. 그리고 직업 군인의 길을 걷기로 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노동하며 번 돈으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아버지, 거동이 불편한데도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그를 보듬어 준 할머니, 운동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누나 등 가족을 생각해 내린 결심이었다.

그때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다가왔다. 여자 친구(허우경)였다. 같은 배움의 터(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사랑을 키워 오던 동갑내기 간곡한 설득에, 그는 마음을 바꿨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승부의 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자 친구의 간곡한 설득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는 다시 도복 끈을 졸라맸다. 여자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 받은 돈으로 고기를 사 주며 그의 건강을 챙

기기까지 했다.

신은 결코 비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이번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를 통해서다. OCA가 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품새 세부 종목 수를 늘린 것이다. 이번 대회에선, 품새가 처음 채택되며 당초 남녀 단체전만 실시될 예정이었다. 뒤늦게 남녀 개인전도 실시기로 함으로써 금메달 수는 두 개에서 네 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태권도협회(KTA)는 개인전에 나갈 국가대표 선발전을 뒤늦게 지난 6월에 다시 열었다. 그는 이번만은 꿈을 이뤘다. 당당히 1위를 차지함으로써 꿈속에서도 그리던 태극 도복을 입을 수 있었다.

“행운이 ‘1’을 달고서 잇달아 찾아왔다.” 그렇다. 자신의 말처럼, 그는 네 번의 1이 잇따르면서 반전 희곡을 썼다. 첫 국가대표→ 첫 국제 무대→ 첫 국제 대회 금메달→ 한국 선수단 금메달 1호. 그리고 또 1이 더해졌다. 『태권도』는 그를 8·9월의 선수로 주저하지 않고 선정했다. 물론 그에게 첫 영광이다.

“평생의 운을 한 번에 다 쓴 듯싶다.” 그럴 만하다. 이제 스무 살의 그가 반전과 순애보가 어우러진, 한 편의 잘 짜인 희곡을 썼으니 말이다. 지독히도 괴롭히던 좌절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영광의 마침표를 찍은 그의 이야기, 곧 희곡 ‘4전5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는 다시 희곡을 쓰려 한다. 또 하나의 1을 목표로 해서다. 그의 꿈이 영글 무대를 기대한다. 



▲ 생년월일 1998년 10월 2일 ▲ 출생지 경상북도 영주시

▲ 가족 할머니(김수자-74), 아버지(강도윤-50), 2녀 1남 중 막내 ▲ 신장/체중 176cm/65kg ▲ 학력 영주 남산초등학교→ 영주 영일초등학교(3학년 때 전학)→ 영주중학교→ 영주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2학년 재학 중) ▲ 태권도 입문 영주 남산초등학교 2학년 ▲ 첫 우승(전국 대회) 2009 세계 태권도 한마당 품새 초등 고학년부 단체전

국가대표 경력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 품새 국가대표 ▲ 국제 대회 수상 경력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 품새 남자 개인전 금

사진으로 배우는 태권도 기술 <4>

도움말 이춘우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시범 공연단 단장

앞차기 3단계

공중에서 발을 교차하며 세 차례 연속 앞차기를 실시하는 동작이다.

도약할 때 중심을 잡은 발의 반대쪽 발부터 찬다.



TIP

- ① 높이 떠올라 이 동작을 하려면, 첫 타격을 하는 오른발을 타격 후 높게 끌어올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을 교차하는 게 포인트다.
- ② 세 번째 앞차기 후 발을 스냅을 이용해 빨리 거둬들여야 안정된 착지와 수준 높은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시범 정다인
한국체육대학교·KTA 시범 공연단

돌려차기 3단계

도약한 첫발의 돌려차기, 구른 발의 비껴차기,
다시 반대쪽 발 돌려차기로 이어지는 동작이다.



TIP

바닥을 구른 발을 가슴으로 끌어올려 어깨를 닫고 비껴차기를 하는 동작을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빠르고 빼어난 좋은 기술을 체득할 수 있다.

시범 이규호
한국체육대학교·KTA 시범 공연단

옆차기 3단계

도약할 때 중심을 잡은 발의 반대쪽 발부터 옆차기를 한 뒤 뒷발 뺄어차기를 거쳐 다시 반대쪽 발 옆차기로 마무리하는 동작이다.



TIP

앞차기 3단계와 돌려차기 3단계에서 사용하는 치슛은 도약이 아닌, 도약의 가속도를 이용한 추진력이 훌륭한 동작 표현의 핵심 요소다.

시범 박광호
한국체육대학교·KTA 시범 공연단

가위차기

한 번 도약해 공중에서 다리를 벌려 동시에 비껴차기와 옆차기를 하는 동작이다.



TIP

- ① 처음부터 타격하기보다 공중에서 양발을 수평으로 뉘어 가지런히 모아 주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 ② 이후 어깨의 강한 비틀림을 활용해 발을 뺏어 표현한다.

시범 송민규
경희대학교·KTA 시범 공연단

위기의 태권도, 생활체육으로 발전 서둘러야



김종운
전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사무2처장

국기(國基)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국에 1억여 명의 수련생을 둔 올림픽 종목으로, 한류의 원조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그렇다면 국기 태권도의 미래는 어떠할까? 단언컨데 ‘흐림’이다. 외적으로는 올림픽무대에서 일본 가라테와 숙명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정체성과 방향성 상실에서 온 ‘대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국가적·사회적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의 한파가 매섭기 그지없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질적 ‘체질 약화’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대변되는 주 수련층의 고착화로 인해 일선 도장은 태권도 본연에서 벗어난 레크리에이션화한 프로그램에 의존한 지 오래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올림픽 무대에서 가라테에게 밀려난다면? 그렇다면 아시안 게임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에 외국인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그 시기의 WT는 국기원 단증을 인정할까? 만일 이 같은 우려들이 현실로 전개된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태권도에 관심을 쏟으며 투자할까? 태권도원의 존재 여부는?

그동안 겨루기 일변도의 태권도정책은 태권도 본연의 모습인 무도성 약화를 불러왔으며, 이는 태권도의 근간이랄 수 있는 일선 도장의 체질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왜곡된 태권도 정책구조는 태권도 기능 습득의 왜곡으로 이어져, 중요한 무예수단인



품새, 격파, 실전적 실연 등이 등한시됨으로써 성인 수련층의 파괴적 이탈로 귀결되었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도장들을 옥죄는 ‘유상 운송법’ ‘동승자법’ 등의 본격 시행을 유보한 현재에도 이미 일선 도장들은 충분히, 피부로 절감할 만큼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태권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무엇보다 도장의 체질 강화에 달려 있으며, 체질 강화는 태권도의 정체성 회복 및 도장활성화,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 발전에 있다고 단언한다. 태권도의 근간인 일선 도장은 생활체육 영역이며, 동시에 대학 태권도 관련학과 및 고급 학생 선수의 중요 공급처이다. 즉, 부인할 수 없는 엘리트 태권도 발전의 핵심 축인 것이다. 지속 가능한 태권도의 미래를 꿈꾼다면,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 발전에 올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일본에 뒤처진 2018 아시안 게임 후의 ‘대한민국 체육 발전구조’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 답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두고 있다.

현재 국내 태권도장의 수련 인구구조가 ‘유소년’ 중심구조라면, 미래 태권도장의 인구구조는 ‘성인 및 실버’ 중심이어야 할 것이다. 초 고령화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시대적으로 이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 1만개의 태권도장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건강 지킴이로서 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버태권도가 활성화되면 그 아래로 부모와 손자녀로 이어지는 튼튼한 태권도 수련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아직은 괜찮다.”라며 이 지구촌의 인간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다. 마찬가지로 지금 손쓰지 않으면, 도장의 위기는 기상이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 그래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㉞

경기규칙 개정과 재미있는 태권도<하·끝>



유수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질서대책위원장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자.”라는 대명제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조금씩 조금씩 옥죄어 오는 가라테의 추격. 더구나 태권도에 대한 미디어의 외면 속에, 세계태권도연맹(WT)조차 번듯한 글로벌 스폰서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오로지 우리 태권도인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미래에도 살아남을 태권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가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어 보자는 일념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인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부디 태권도인들의 훌륭한 의견들이 수렴돼 태권도가 지구촌 최고의 무예가 됐으면 한다.

상편에서, 필자는 경기 규칙 개정으로 발차기에 의한 몸통 공격이 2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의 선 자세 중심이 뒤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경기 전술이 공격형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정확하고 강한 몸통 공격이 득점으로 표출되지 않고 가볍게 때린 동작이 득점으로 나타나는 전자호구의 문제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차기 기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발뒤꿈치 바닥면에 센서를 부착해 얼굴 득점과 같이 관대하게 득점으로 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전과 재역전 장면이 자주 나오도록 회전 돌려차기의 채점 방

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몸통회전 돌려차기(돌개차기)는 중심 유지가 어려운 데다 빠른 회전으로 발등을 45도 이상 돌려차는, 매우 어려운 동작이다. 15도 이상 돌려차기 공격을 하면 득점으로 표출되도록 발등의 센서를 모두 발등 안쪽 엄지·검지발가락 위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머리 공격에 비해 너무 인색한 몸통 파워값을 조금 조절하면 적극적으로 몸통회전 공격을 공격 기술로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득점 성공 비율이 높아져 보다 다양한 기술의 볼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와 함께 뒤차기 공격 시 힘 전달 축인 뒤꿈치 접촉 강도의 득점 표출을 위한 전자호구 시스템의 부실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K사는 발바닥 중앙과 그리고 뒤꿈치 발바닥이 아닌 아킬레스건 부위에 부착되어 있어, 정확도가 매우 불확실하다. D사의 센서는 발바닥 부위에 부착되어 있으나, 뒤꿈치의 힘 전달 접촉강도 감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으며 밀어차기와 변칙기술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호구 시스템의 한계로 득점 표출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심판의 소임으로 대체해 뒤차기 공격 시 뒤꿈치 부위로 정확하고 강하게 공격하면 득점으로 인정해 주었을 때 역전과 재역전의 기술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먹 공격을 발기술의 연결 동작으로 더욱 장려했으면 한다. 금년 대회부터 주먹 공격

이 등장하고 득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매우 오랜 기간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용하지 않았던 주먹 공격기술에 대해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심판에게 다양한 주먹 공격 기술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먹 공격은 방어와 공격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먹 공격은 기본 동작으로 설명하면 앞서기와 앞굽이 두 가지 자세에서 바로지르기와 반대지르기를 두 발바닥이 지면에 붙은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 발이라도 지면에서 떨어지면 정타로 인정할 수 없다. 주먹 공격이 활성화되면 상대 발 공격을 막고 주먹 공격으로 반격하는 다양한 발기술로 이어지는 동작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선제 발기술 공격 후 주먹 공격도 지면에 두 발이 붙어 있으면 정타로 인정해 주고, 공격 후 접근해서 꺼안는 상대를 밀어내기보다는 주먹공격으로 각도를 만들어 다시 발기술로 이어가는 연속 기술로 사용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주먹 공격의 빈도가 많아지면 주먹 공격자의 중심은 앞으로 이동하고 머리 공격 실점의 허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앞발을 들고 따라다니지 않아도 주먹 공격 하기 위해 달려드는 상대에게 머리 공격의 기회와 성공률은 높아지고 공격 기술 종류의 다양화를 가져와 더욱 재미있는 경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수를 부상으로 몰고 가는 고난도 격파기술

꾸준한 웨이트와 유연성 운동만이 부상을 예방

글 공찬욱(전주대학교)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고공 공중회전, 화려한 발차기, 이어 산산조각 나는 격파물. 바로 태권도 시범의 꽃인 공중회전 격파다. 하지만 이 같은 화려한 발기술 뒤에는 선수의 애환이 서려 있다. 공중회전 격파를 하는 시범단원은 보조자, 즉 '띄우미'의 도움을 받고 공중에서 많은 회전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격파술이 많은 태권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공중 격파 기술은 띄우미와 격파자의 합이 맞지 않으면 격파를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무릎에 충격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다.

최근 들어 어린 학생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몸으로 자신의 기술 난이도를 억지로 높이다 보니,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격파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띄우미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한다.

많은 선수가 부상 전에는 다른 태권도 전공 자처럼 지도자나 국가대표의 꿈을 꾀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치명적 부상을 입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원인 사윤진 씨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장애물 기술을 시도하다 부상을 얻게 되었다. 그는 “부상 전에는 나름대로 팀에 활력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앞장서 운동했다. 또 팀이 지치고 힘들 때 웃음과 활력이 되고자 노력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부상 후에 생각해 보니 ‘자신감이 자만이 되어서 스스로를 부상으로 내몰았던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팀원들에게 미안함, 죄책감 등이 밀려오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허탈함

과 자괴감에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그는 “동기들, 선배 또는 후배, 부모님 등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 기회에 운동을 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재활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코트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선수는 특히 장애물 기술을 시도할 때는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우선 꾸준한 웨이트 운동과 유연성 운동으로 몸을 준비해야 하며, 보조자와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자기가 원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의 기초부터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하고, 난이도 높은 기술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기술을 연습해야 격파를 시도했을 때 안전하게 기술을 시연할 수 있다. 부상당한 선수들은 모두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 씨는 운동을 쉬는 동안에 태권도 전공 분야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과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부상 전에도 선수로서의 미래, 지도자, 분석가에 대한 꿈이 있으나, 부상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게 큰 시련이 된 부상은 또 다른 그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었다. “미래를 계획하며 내가 좋아했던 운동 분야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역사를 알게 되어 부상이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매너리즘에 빠진 태권도 전공생

다양한 전문 지식이 태권도와 융합해야 하는 까닭은?

글 김수진(경희대학교)



이동희 도장 수련생들은 이종 격투기대회 등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기른다.

한 전공수업 때의 이야기다. 교수께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현재 우리나라 태권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방향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질문만이 존재할 뿐, 정적이 흘렀다. 이 상황은 단 한마디로 꽤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엔 ‘매너리즘’에 대해 말하고 싶다.

태권도 전공생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매너리즘은 “표현법이 늘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이나 신선미를 잃는 일”을 뜻한다. 우리 전공생에게는 독창성이나 새로움이 이제 희미하다. 태권도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약 29개교다. 한 해 모집 인원은 1,300여 명에 달한다(국기원 태권도 연구소, 2017). 그렇다면 이 많은 전공생들이 과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지도를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기대와 다르다. 대학에서 경험한

여러 활동과 학문의 연계, 또는 새로운 접근을 가진 지도법 등은 필드에서 찾기 힘들다.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그동안 본인이 태권도를 배워 왔던 방식 그대로 지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과거에 머물기를 고수하는 지도는 전공생들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 줄 뿐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향을 맡아 줄 필요가 있다. 국기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태권도장의 수는 1만 1,356개이다. 다른 사교육과 비교해도 절대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포화 상태인 필드에서, 전공생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일까?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상투적 답변으로 ‘전공 지식’이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단지 본인의 과거에 경험했던 지도법을 수련생에게 대물림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전공 지식

을 활용한 지도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수학하는 생리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경영법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태권도와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새로움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포화 상태인 태권도장 경영에 이기(利器)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다양한 지식을 태권도에 결합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전공생의 진짜 매너리즘은 ‘안정성’에 있다. 취업의 루트가 비교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에 기반한다. 취업에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타 전공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굳이 학문과 실무를 융합할 고민을 하지 않아도 구직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계속해서 태권도를 탐구하려는 직업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탐구성이 결여된 전공생은 그동안의 학문을 수학한 의미가 크게 없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태권도 지도를 하고자 해야 한다. 이것은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이동희 사범의 ‘실전 태권도’이다. 전공지식을 전면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술을 직접 경험한 후 그만의 지도법과 철학을 탄생시켰다. 사람들은 이러한 탐구와 새로움에 집중한다. 우리는 선배의 훌륭한 사례를 바탕으로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것이 전공생들에게 곧 ‘메리트’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다. ●

품새 선수들이 생각하는 품새 대회 개선 방안 “영상 판독제가 도입되었으면”

글 박해진(경희대학교)

태권도 품새는 몸과 마음의 올바른 수양과 외부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수련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의 원리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낸 기술체계의 집합체이다.

수련의 일환으로 인식되었던 품새는 1992년 시작된 ‘태권도 한마당’을 계기로 경기화 발전을 모색하였다. 이후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를 비롯하여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무대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처음으로 품새가 정식 세부종목으로 개최돼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태권도 품새 종목은 기존 겨루기 대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태권도 경기종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품새 경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전국 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

인 품새 선수들에게 물었다. 이미 태권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겨루기를 누르고 품새가 대세가 되고 있다.

선수들은 “첫째, 겨루기와 마찬가지로 품새도 영상 판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감점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한 뒤 승패를 가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품새 경기 중에 감점 사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전광판에 소리나 불빛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심판과 선수의 교류 마당을 만들어, 선수가 품새를 시연하고 심판은 어디서 감점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 번째는 심판석을 다양한 각도로 위치하는 것이다. 전후좌우 방향에서 보며 채점하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 개선 방안은 세부적 경기규칙과 영상을 사이트에 올려 모든 태권도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 품새는 공인 품

새와 마찬가지로 기본 동작·발차기·서기 등에 대한 정확성과 표현성에 중점을 두고 채점하되 품새 동작과 발차기 그리고 아크로바틱 횡수 제한을 두면 어떨까?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새롭게 선보인 새 품새와 자유 품새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은 긍정적이었다. 새 품새는 기존 공인 품새와는 다르게 고난도 회전 발차기와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부분이 품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루한 틈을 주지 않으면서 관중에게 화려한 기술과 음악 등으로 시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했다고 평가됐다. 또한 자유 품새는 음악과 태권도가 어우러져 선수만의 특색 있는, 자기 자신만의 품새를 선보이는 장점이 있었다는 평이다.

선수들은 이들 품새에 대한 단점도 지적했다. 오랜 기간 품새 선수를 해 온 선수들은 기존 품새에 없었던 회전 발차기와 아크로바틱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연습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상이 잦았다고 말한다. 또한 대회 1년 전 급하게 채택된 새 품새가 널리 보급이 되지 않은 채 채점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이 대회가 진행된 것은 흠이다. 자유 품새는 다섯 가지 채점 사항 이외에 아크로바틱 동작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품새 동작을 할 때 실수를 하면 몇 점 감점이 주어지는지 등 궁금증이 가득하다. 품새 경기가 더욱 발전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선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선수들은 발전과 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



KTA 동정 &

최창신 회장,
AG에서 노익장 면모 과시하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에서,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이 노익장의 참모습을 보였다. 최 회장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 과연 일흔네 살(우리 나이)의 노인이 맞는지 의문(?)마저 일게 했다.

지난 8월 20일 하루 일과가 대표적 예다.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독려를 비롯해 총리·장관 주최 모임에 참석하는 등 그야말로 동분서주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이하 현지 시각) 숙소를 나선 최 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최한 경기 단체장 조찬에 참석(사진)했다. 이 총리가 현지를 직접 찾아 국위 선양에 여념이 없는 경기 단체장을 격려한 이 자리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최 회장, 김지용 대한수영연맹 회장, 박창범 대한우슈협회 회장, 강양수 대한카바디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종환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이동섭·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배석했다.

최 회장은 이후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플레나리움을 찾아 시상식이 끝난 오후 7시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 뒤엔 도종환 장관이 주재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엔 최 회장과 이상헌 KTA 사무1차장,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과 김중헌 사무총장,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 파견 사범 5명[태국·캄보디아·라오스·인도네시아(겨루기·폼새)]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이 숙소로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가 가까워져서였다.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최 회장의 강한 체력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던 2018 아시안 게임이었다.

최영길 KTA 고문,
후학 양성 장학금 쾌척

선비(士)가 마음(心)을 품었으니, 그 뜻(志)을 산(山)과 돌(石)처럼 굳게(岩) 이어 가리라. 후학 양성에 뜻을 둔 한 태권도 원로의 집념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최영길 KTA 고문(73·사진 왼쪽)이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태동시키는 장학금이다. '지암(志岩) 최영길 장학금'이란 이름에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규모는 매년 1,000만 원씩이다. 한 명당 100만 원씩 열 명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간다.

KTA는 최 고문의 뜻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이철주)의 추천을 받아 유망주 10명을 1기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기로 했다. KTA는 올 마지막 대회 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 고문은 “보다 많은 기대주가 장학금을 받고 운동에 정진토록 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장학금 규모를 크게 늘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최 고문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돼 장학금이 증액되면, 그 액수는 4,000만~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진을 양성하겠다는 최 고문의 마음은 이미 구현된 바 있다. 6년 전인 2012년, 울산 지역 스포츠 유망주 6명을 대상으로 매년 3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 장학금이 스포츠 전반의 기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에 새로 내놓은 장학금은 태권도 유망주에 초점을 맞췄다.

1966년 첫 태극 도복을 입고 한·일 수교 기념 태권도 교류전에 출전

했던 최 고문은 그 자신이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주간에 직장을 다니며 야간에 학교를 다니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노력 끝에 동아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다. 중·장년기에 건축업에 종사(서광건설 대표)하면서도 청소년기의 인연을 결코 잊지 않은 태권도인이다.

최 고문이 물고 온 훈풍 덕에, 한국 태권도계의 올 후반기는 따뜻할 듯싶다.

도장지원 특위, 승품·단 심사·발급 제도 개선 논의



KTA는 2018년도 제3차 도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석)를 지난 9월 18일 강원도 태백시에 자리한 고원체육관에서 열었다. 제2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9월 13일~19일) 도중 열린 이번 도장지원 특위에선, 문화관광체육부 주재 심사제도 개선 TF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토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추진 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도장지원 특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전담팀 구성을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사전 정치 단계로, 도장지원 특위는 승품·단 심사·발급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 심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비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합리적 심사비 책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 심사제도 개선 방향은 급·품·단별 교육 과정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상위 품·단으로

올라갈수록 다면 심층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1~2품·단 심사 도장 위탁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 도장제도 개선은 도장 등록비를 인하하고 지역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미등록 도장의 승품·단 심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이밖에 기타 사항으로, 도장지원 특위는 성인부를 활성화한 해외 우수 도장을 방문해 그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경영 노하우 및 마케팅 기법 습득 ▲ 성인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강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장지원 특위 위원, KTA 강사, KTA 사무처 직원 등으로 구성될 탐방단이 오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미국에 파견된다.

KTA, 심사 제도 개선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최근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는 저품·단(1~2품·단) 심사 도장 위탁에 대응할 자문단이 구성됐다. 지난 8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 회의실에서 열린 2018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KTA는 심사제도개선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대의원총회에서 5명으로 이뤄질 자문단 인선을 위임받은 최창신 KTA 회장은 5개 시도협회 회장(최진규 서울, 이영석 광주, 김경덕 경기, 성정환 충북, 윤종욱 경북)으로 선임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태권도 제도 개선 실무 전담(TF)팀 2분과(국내외 승품·단 심사·단증 발급 제도 개선)에서 거론된 저품·단(1~2품·단) 심사 도장 위탁이 국내 태권도계의 전반적 위

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판단한 대의원총회는 자문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기로 한 바 있다. 최진규 회장의 긴급 제안에 따라 심의 사항으로 채택된 이 안건을 두고, 대의원총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이 제도는 시도협회와 도장의 공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추진 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태권도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며 초단시간 집단 심사 개선을 위해 저품·단 심사 도장 위탁을 논의한 바 있다.

KTA, 홍보 신지평 개척... SNS 운영 대행사 구해 활로 찾아



급변하는 뉴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KTA의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 국민 및 태권도인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적 SNS(Social Network Services) 운영 전략 수립에 골몰해 온 KTA는 그 실천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홍보 지평을 열기에 이르렀다.

이 연장선상에서, KTA는 지난 9월 28일 홍보·마케팅 업체인 윈스타 프로비(대표 장영준)와 SNS 운영 대행 계약을 맺었다. KTA 회의실서 진행된 계약식에서, 이상헌 KTA 사무1차장(사진 오른쪽)과 장영준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9월 20일 열린 SNS 운영 업체 선정 기술 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윈스타프로비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뽑혔다. 계약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

일까지다.

KTA는 앞으로 윈스타프로비를 통해 KTA 추진 사업 - 교육 프로그램, 사업, 행사 등 - 관련 전문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에 올리므로써 국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하던 SNS 채널 여섯 개(페이스북·블로그·카카오 스토리·유튜브·네이버 밴드 도장/KTA)를 활용하여 도장 지도자에게 도장 경영·지도법 자료를 매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장 활성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윈스타프로비는 “소셜 광고를 활용하고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으로 KTA의 홍보 채널 운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채널 성장(독자층 확대)을 꾀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SNS 채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taekwondoasso/?fref=ts>



블로그
<http://blog.naver.com/kta1961>



카카오 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kta1961>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t8Y_8QU8hcXj19YuBx_w



네이버 밴드(도장 사업)
<https://band.us/band/53987794>



네이버 밴드(KTA)
<https://band.us/band/53820793>

첫 품새 국가대표 선발된 정상호 관장... 매일 3시간 땀과 눈물의 결정체

백성경(경상남도)



태권도 품새 밖에 모르는 '품새 바보' 정상호 관장(진해 부림체육관)을 만났다. 정 관장은 9월 2~3일 전북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세계품새선수권과전 국가대표선발대회 60세 이하부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품새선수로는 경남의 첫 국가대표다.

경남 진해에서 25년째 도장을 운영중인 정 관장은 품새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제자들에게 품새의 중요성과 함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지도자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 줘야만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련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밤 11시 수업을 마치고도 품새 연구에 깊이 들었다.

공식대회에 출전할 때 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품새 단체들의 든든한 팀원들이 부럽기만 했다. 여러 팀들의 텀바구니에서 혼자 몸 풀고 경기에 임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유명한 선수들의 수련 모습과 동작들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담았어도 국가대표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기성찰의 맘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시간씩 꾸준한 개인수련을 했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다 도장 바닥을 굵은 땀방울로 적신 결과 오늘의 자신이 있었다. 주로 2~3위에

그치던 정 관장은 올해 첫 대회의 시작이 좋았다. 2018 실업연맹대회 1등을 시작으로 대통령기까지 우승하며 커다란 자신감이 생겼다. 무리한 연습으로 체력저하와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계에 부딪힐 때 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스승이 있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품새에 대한 사랑을 물려주고 지금도 품새를 몸소 수련하는 장기복 본관장(부림태권도본관장·경남기술심의회위원장)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정 관장이 없었을 것이라도 한다.

그의 스승 또한 현재 9단이면서 매일 품새 수련을 3~4시간씩 하며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승은 오늘도 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정 관장은 제자들에게 “꿈을 가져라.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라.”라며 꿈을 이룬 스승의 모습을 땀으로 보여주고 있다.

울산광역시 태권도

품새 한마당 열려

강정덕(울산광역시)



13회째를 맞은 울산광역시 태권도 품새 한마당이 9월 30일 개최됐다. 차도철 울산태권도협회장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괄여원 등 울산 출신 태권도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라며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평소 같고 닳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릴 적 태권도와의 인연을 소개한 뒤 “앞으로도 태권도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울산 태권도 대표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70대 할머니단원이 포함된 늘푸른 어머니 시범단 공연 등 개인전 997명, 단체전 63팀 총 1,300여명의 선수가 기량을 다했다.

더밸런스 코리아, 울산시 선수단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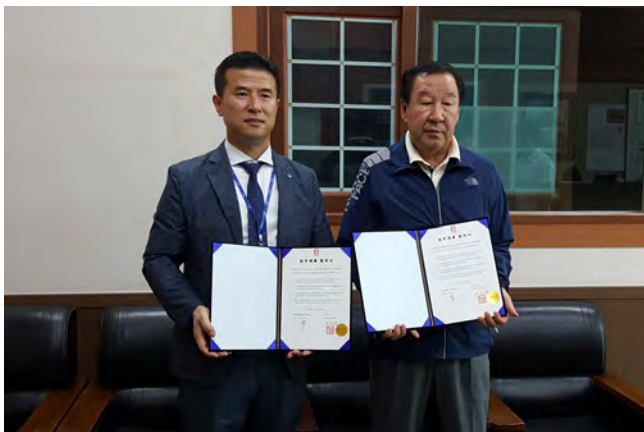
강정덕(울산광역시)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훈련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태권도 대표선수들을 위해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더밸런스 코리아(대표 이정우)는 자세교정도구 애니바로 후원했고, 대한체육밸런스협회(회장 문양규)는 운동전후 바른자세교정을 위한 실기교육을 실시해 선수단에 큰 힘이 됐다. 울산태권도협회 손효봉 전무이사는 “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작은 관심이 모여 큰힘이 돼주고 있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달라.”라고 당부했다.

울산협회, 세스코와 법인 제휴 협약

강정덕(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60여개 도장이 가맹한 울산태권도협회는 환경 위생 기업 세스코와 법인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련생들과 학

부모들의 도장 내 위생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앞으로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수련생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협회는 세스코와 함께 도장 내 전문살균, 시스템 항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위생관리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휴를 통해 도장 내 안전한 위생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세스코는 태권도장을 찾는 수련생들이 최대한 청결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와 함께 다양한 위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협회, 대전 MBC와 서천 국제오픈대회 성대히 치러

김영근(대전광역시)



충남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와 대전MBC(사장 신원식)가 공동주최한 대전MBC배 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지난 8월15일부터 5일간 서천군 국민체육센터에서 12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개회식에는 노박래 서천군수, 대전MBC 신원식 사장, 나소열 충청남도정무부지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조동준 서천군 의회 의장, 양금봉 도의원, 최진규 서산시태권도협회장,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 서성석 충남장애인태권도협회장, 박성철 아시아장애인태권도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다. 나동식 조직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국기태권도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로 향후 중부권 최고의 국제오픈태권도대회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품새 종합우승은 천안 중앙태권도장, 준우승은 계룡 효성태권도장, 겨루기 종합우승은 천안성정중학교가 차지했다. 대전MBC는 각 종목 결승전을 녹화 중계했다.

■ 제4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5인조 단체 대항대회(거루기. 9월 6일. 함양 고운체육관)

- ▲ 남자 △ 중등부 = ① 김다선·김태정·유희서·윤준혁·이윤희(전북체중) ② 김범수·김유민·이성훈·장연석·최민혁·남용혁(오정중) ③ 김도율·김두원·김용석·조성빈·현영훈·김주원(송탄중) ④ 배재성·송설현·만·이시영·황제원·황주상·이화수(곤양중)
- △ 고등부 = ① 문성욱·박상훈·이명준·이태관·조창완·김재김(경상공업고) ② 김동현·김웅석·이형구·임현우·한상원·신현진(아름고) ③ 강상현·김태경·박수연·안지원·이상민(남녕고) ④ 강재민·서희수·이현수·최문수·최현빈·이동협(마산구암고)
- △ 대학부 = ① 노민우·박인호·박지민·서광원·조양우·박영철(용인대A) ② 고찬우·신욱진·이용관·이재혁·장민수·박상우(한국나사렛대A) ③ 박민찬·손상원·신관식·유시현·이준가·정수빈(청주대) ④ 김요한·김한새·노우석·손다훈·안준식·박승원(상명대)

- ▲ 여자 △ 대학부 박가형·선영희·유송화·한수연·한현정·김지혜(용인대A). 김가경·김민지·신보영·전소원·황지원·박지현(동의대B) 강다영·김지우·박경현·이진아·최정빈·신은경(동의대A) 김다혜·김유민·임채라·조민주·한소연·이휘아(용인대B)

■ 제27회 국방부장관기 전국 단체 대항대회(거루기. 2018년 9월 13~19일. 태백고원체육관)

- ▲ 남자중등부 △ 핀급 = ① 김민제(속초중) ② 조옥현(토현중) ③ 정희원(태성중), 박경훈(사당중) △ 플라이급 = ① 류진(오정중) ② 유준혁(전북체중) ③ 권우성(달천중), 유재원(산곡남중) △ 밴텀급 = ① 김강민(사당중) ② 홍은기(서원중) ③ 정준우(관동중), 이정재(포항영신중) △ 페더급 = ① 남용혁(오정중) ② 김정배(백석중) ③ 김도연(광남중), 남영모(영천중) △ 라이트급 = ① 이찬영(사당중) ② 이정민(부산부흥중) ③ 이승훈(오정중), 이명균(성안중) △ L-웰터급 = ① 유희서(전북체중) ② 신광철(대전체중) ③ 조용석(흥해중), 심근택(사당중) △ 웰터급 = ① 성유현(당덕중) ② 이민수(춘성중) ③ 홍석훈(전주기관중), 최광선(충주중) △ L-미들급 = ① 홍현우(신라중) ② 선정훈(평원중) ③ 이진욱(울산중), 황제원(곤양중) △ 미들급 = ① 이윤희(전북체중) ② 전진성(북인천중) ③ 최민혁(오정중), 정지우(산곡남중) △ L-헤비급 = ① 용지호(시흥중) ② 박현영(동원중) ③ 서건우(동평중), 김영훈(문성중) △ 헤비급 = ① 김동현(목동중) ② 손태환(전주양지중) ③ 이준화(용현중), 한주완(산곡남중)
- ▲ 종합 시상 △ 우승 = 전북체육중학교 △ 준우승 = 오정중학교 △ 3위 = 사당중학교 △ 감투상 = 속초중학교 △ 장려상 = 신라중학교 △ 우수선수상 = 류진(오정중) △ 지도상 = 김성중(전북체중)

- ▲ 여자중등부 △ 핀급 = ① 오서린(칠곡중) ② 김주미(부천동여중) ③ 김하늘(토현중), 윤보영(광남중) △ 플라이급 = ① 박유진(토현중) ② 박경령(정각중) ③ 이한나(오정중), 호연우(평원중) △ 밴텀급 = ① 김예지(봉의중) ② 하민서(울산스포츠과학중) ③ 구본이(금정중), 정은지(오정중) △ 페더급 = ① 이은지(상무중) ② 김민주(흥해중) ③ 송가희(봉의중), 공서영(동평중) △ 라이트급 = ① 임소현(부일중) ② 김소연(오정중) ③ 양소현(정각중), 김보배(영란여중) △ L-웰터급 = ① 김희선(북평여중) ② 이규진(전주양지중) ③ 유수민(화원중), 황은희(석포여중) △ 웰터급 = ① 남유림(부일중) ② 이새인(광주체중) ③ 김민경(천곡중), 이가현(시흥중) △ L-미들급 = ① 도유미(사당중) ② 이하리(발산중) ③ 장현지(관동중), 손채빈(달천중) △ 미들급 = ① 박세은(광주체중) ② 배민서(울산스포츠과학중) ③ 김아영(설악여중), 권슬아(동평중) △ L-헤비급 = ① 오승주(북인천중) ② 이수연(사당중) ③ 이주원(신관중), 박시현(광주체중) △ 헤비급 = ① 최한나(수원중) ② 윤다현(서귀중앙여중) ③ 왕수민(동명여중), 박정현(부산부흥중)

- ▲ 종합 시상 △ 우승 = 부일중학교 △ 준우승 = 광주체육중학교 △ 3위 = 사당중학교 △ 감투상 = 봉의중학교 △ 장려상 = 토현중학교 △ 우수선수상 = 오서린(칠곡중) △ 지도상 = 김용철(부일중) △ 품위대상 = 한승엽(송탄중) △ 질서대상 = 광남중학교

- ▲ 남자고등부 △ -54kg = ① 이민영(인천체고) ② 석하빈(충남체고) ③ 최민강(설악고), 이정민(울산스포츠과학고) △ -58kg = ① 김강민(충남체고) ② 최광석(경북체고) ③ 나호태(청주공업고), 김다민(영광공업고) △ -63kg = ① 황진태(울산스포츠과학고) ② 박현서(충남체고) ③ 조재연(양산고), 성승욱(부산체고) △ -68kg = ① 성기현(풍생고) ② 홍택의(청주공업고) ③ 표재선(송곡고), 서현택(산정고) △

- 74kg = ① 조승규(한성고) ② 강상현(남녕고) ③ 유태원(한성고), 이호성(성안고) △ -80kg = ① 황정욱(울산스포츠과학고) ② 천호현(속지고) ③ 이상준(상고), 임진홍(문성고) △ -87kg = ① 김민혁(충남체고) ② 이상민(남녕고) ③ 신민철(청주공업고), 홍민규(전북체고) △ +87kg = ① 정범구(청주공업고) ② 임홍섭(문성고) ③ 김영호(속지고), 유정환(삼일고)

- ▲ 종합 시상 △ 우승 = 충남체육고등학교 △ 준우승 =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 3위 = 청주공업고등학교 △ 감투상 = 인천체육고등학교 △ 장려상 = 풍생고등학교 △ 우수선수상 = 김강민(충남체고) △ 지도상 = 유영원(충남체고)

- ▲ 여자고등부 △ -46kg = ① 임혜민(고양고) ② 황예빈(강화여고) ③ 신수민(홍주고), 이희진(전남체고) △ -49kg = ① 유은진(시온고) ② 채민희(양주고) ③ 금가은(평내고), 진효리(고양고) △ -53kg = ① 조은지(성안고) ② 나사랑(전남체고) ③ 박승아(전북체고), 김미강(서울체고) △ -57kg = ① 박동영(공주영명고) ② 장한나(포항흥해공업고) ③ 이재희(전남체고), 고유정(성안고) △ -62kg = ① 김지원(시온고) ② 안혜영(강원체고) ③ 김채원(홍주고), 김난경(효정고) △ -67kg = ① 박은지(성안고) ② 김유진(충남체고) ③ 김유정(서울아이티고), 강민희(부흥고) △ -73kg = ① 진가연(성안고) ② 박서진(금정여고) ③ 채지은(서울체고), 김윤정(충남체고) △ +73kg = ① 유민영(강원체고) ② 황희정(전북체고) ③ 백선경(서울체고), 정경민(문학정보고)

- ▲ 종합 시상 △ 우승 = 성안고등학교 △ 준우승 = 시온고등학교 △ 3위 = 강원체육고등학교 △ 감투상 = 고양고등학교 △ 장려상 = 충남체육고등학교 △ 최우수선수상 = 김지원(시온고) △ 지도상 = 최만용(성안고) △ 품위대상 = 최만용(성안고) △ 질서대상 = 홍주고등학교

- ▲ 남자대학부 △ -54kg = ① 윤여준(충남대) ② 고호재(한국체대) ③ 김양호(가톨릭관동대), 박승원(상명대) △ -58kg = ① 전민성(동아대) ② 강태겸(용인대) ③ 황수용(호원대), 양효건(동아대) △ -63kg = ① 김태용(경희대) ② 장지원(용인대) ③ 박정우(경희대), 형인혁(동아대) △ -68kg = ① 노민우(용인대) ② 이진훈(동아대) ③ 박건희(한국나사렛대), 임금규(영산대) △ -74kg = ① 김민철(경희대) ② 노우석(상명대) ③ 박수형(방송통신대), 조현명(동아대) △ -80kg = ① 강민우(동아대) ② 김동하(전주대) ③ 방승한(전주대), 김은호(조선대) △ -87kg = ① 유도원(한국체대) ② 손상원(청주대) ③ 오창욱(영산대), 박상우(한국나사렛대) △ +87kg = ① 윤종현(계명대) ② 김태훈(청주대) ③ 박근동(한국체대), 강홍근(경희대)

- ▲ 종합 시상 △ 우승 = 동아대학교 △ 준우승 = 경희대학교 △ 3위 = 용인대학교 △ 감투상 = 한국체육대학교 △ 장려상 = 계명대학교 △ 우수선수상 = 노민우(용인대) △ 지도상 = 백선홍(동아대)

- ▲ 여자대학부 △ -46kg = ② 김가은(계명대) ③ 한소연(용인대) △ -53kg = ① 유지혜(경희대) ② 우하영(용인대) ③ 김가은(계명대), 한소연(용인대) △ -57kg = ① 임금별(한국체대) ② 이주아(동의대) ③ 유송화(용인대), 강민주(신성대) △ -62kg = ① 한서희(조선대) ② 오하은(한국체대) ③ 오혜수(한국나사렛대), 김윤정(경희대) △ -67kg = ① 한현정(용인대) ② 이수국(전주대) ③ 김시연(고신대), 박가형(용인대) △ -73kg = ① 명미나(경희대) ② 강재은(동아대) ③ 유혜진(용인대), 김예령(제주대) △ +73kg = ① 윤도희(한국체대) ② 류재민(경남대) ③ 송예리(경희대), 김민경(계명대)

- ▲ 종합 시상 △ 우승 = 한국체육대학교 △ 준우승 = 경희대학교 △ 3위 = 용인대학교 △ 감투상 = 조선대학교 △ 장려상 = 동아대학교 △ 최우수선수상 = 임금별(한국체대) △ 지도상 = 강보현(한국체대)

- ▲ 남자일반부 △ -54kg = ① 최현근(국군체육부대) ② 최진형(영천시청) ③ 이주성(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한동길(수원시청) △ -58kg = ① 정윤조(용인시청) ② 정찬호(강화군청) ③ 권혁진(한국가스공사), 조승현(국군체육부대) △ -63kg = ① 김형우(진천군청) ② 최운영(김포시청) ③ 김광석(국군체육부대), 문지수(성남시청) △ -68kg = ① 김석배(삼성에스원) ② 김민혁(강화군청) ③ 이상훈(포항시체육회), 이호형(영천시청) △ -74kg = ① 원종훈(한국가스공사) ② 조민규(제주특별자치도청) ③ 이주성(국군체육부대), 김승일(포항시체육회) △ -80kg = ① 이정규(수원시청) ② 박용현(한국가스공사) ③ 조성진(용인시청), 이석인(강화군청) △ -87kg = ① 강진영(국군체육부대) ② 김현승(한국가스공사) ③ 양형준(제주특별자치도청), 이바름(영천시청) △ +87kg = ① 박윤근(한국가스공사) ② 박재광(한국가스공사) ③ 이동영(제주특별자치도청), 정진오(국군체육부대)

▲ 종합 시상 △ 우승 = 한국가스공사 △ 준우승 = 국군체육부대 △ 3위 = 수원시청
△ 감투상 = 용인시청 △ 장려상 = 강화군청 △ 우수선수상 = 김석배(삼성세스원)
△ 지도상 = 신재현(한국가스공사)

▲ 여자일반부 △ -46kg = ① 박은아(안산시청) ② 최희정(국군체육부대) ③ 조희은(제주특별자치도청) 김윤옥(인천광역시동구청) △ -49kg = ① 최수지(안산시청) ② 김진(광산구청) ③ 심재영(고양시청) 조혜진(영천시청) △ -53kg = ① 임하경(성주군청) ② 김다휘(인천광역시동구청) ③ 오경아(광산구청) 최희선(영천시청) △ -57kg = ① 윤정연(인천광역시동구청) ② 강재령(춘천시청) ③ 유채승(포항시체육회) 지소현(김제시청) △ -62kg = ① 김다영(인천광역시동구청) ② 정은화(영천시청) ③ 전재은(고양시청) 서지은(한국가스공사(광주)) △ -67kg = ① 장유진(한국가스공사(광주)) ② 장희영(성주군청) ③ 황서영(동래구청) 김휘랑(인천광역시동구청) △ -73kg = ① 김은정(동래구청) ② 김신비(인천광역시동구청) ③ 박예슬(김제시청) 김다솔(고양시청) △ +73kg = ① 김빛나(인천광역시동구청) ② 양승혜(제주특별자치도청) ③ 이혜진(동래구청) 이수민(김제시청)

▲ 종합 시상 △ 우승 = 인천광역시동구청 △ 준우승 = 안산시청 △ 3위 = 성주군청
△ 감투상 = 동래구청 △ 장려상 = 영천시청 △ 최우수선수상 = 김빛나(인천광역시동구청) △ 지도상 = 김정규(인천광역시동구청)

■ 제48회 협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대회 겸 2019년도 국가대표 선발 예선대회(8월 12~18일, 구미 박정희체육관)

▲ 남자중등부 △ 핀급 = ① 김재현(청주중) ② 최재민(광주체중) ③ 김종범(와룡중) 박남형(영남중) △ 플라이급 = ① 류진(오정중) ② 유준혁(전북체중) ③ 이환희(부강중) 박태준(사당중) △ 밴텀급 = ① 이창희(풍생중) ② 김민우(울산스포츠평화중) ③ 김현우(사당중) 현지수(신관중) △ 페더급 = ① 허진(성주중) ② 변수민(천성중) ③ 함예성(풍생중) 김종민(울산중) △ 라이트급 = ① 유희서(전북체중) ② 오민수(풍생중) ③ 이승우(천성중) 이지현(울산중) △ L-웰터급 = ① 최민혁(오정중) ② 전승현(울산스포츠평화중) ③ 이상훈(광주체중) 이정남(화원중) △ 웰터급 = ① 성유현(양덕중) ② 김지원(금산중) ③ 김용성(부천부흥중) 김준우(영남중) △ L-미들급 = ① 박영덕(천성중) ② 윤서영(삼성현중) ③ 진오용(부강중) 배현수(목포유달중) △ 미들급 = ① 이윤희(전북체중) ② 현지민(오현중) ③ 장우석(부강중) 김재원(오마중) △ L-헤비급 = ① 서건우(동평중) ② 김진형(청주중) ③ 용지호(시흥중) 유호선(동성중) △ 헤비급 = ① 김동현(목동중) ② 김성현(오정중) ③ 현지훈(오현중) 최혁준(부천부흥중)

▲ 여자중등부 △ 핀급 = ① 방서현(부천부흥중) ② 홍지민(권선중) ③ 최우영(상무중) 김소은(북현중) △ 플라이급 = ① 구지현(울산스포츠평화중) ② 정지원(삼성현중) ③ 박경령(정각중) 최준희(권선중) △ 밴텀급 = ① 강미르(성주여중) ② 채윤희(정각중) ③ 구본이(금정중) 하민서(울산스포츠평화중) △ 페더급 = ① 한소정(사당중) ② 이아름(석포여중) ③ 권상미(광주체중) 박지민(부강중) △ 라이트급 = ① 임소현(부일중) ② 김지현(동평중) ③ 김나영(울산스포츠평화중) 신혜림(경북체중) △ L-웰터급 = ① 강민서(경북체중) ② 임수연(화원중) ③ 장보경(신관중) 황은희(석포여중) △ 웰터급 = ① 남유림(부일중) ② 유하경(부천부흥중) ③ 정다은(신당중) 이새인(광주체중) △ L-미들급 = ① 장현지(관동중) ② 도유미(사당중) ③ 김민주(석포여중) 이다은(오마중) △ 미들급 = ① 박세은(광주체중) ② 배민서(울산스포츠평화중) ③ 최보배(군산진포중) 이수연(사당중) △ L-헤비급 = ① 김나연(석포여중) ② 배민정(시흥중) ③ 김나경(장림여중) 박시현(광주체중) △ 헤비급 = ① 박정현(부산부흥중) ② 윤다현(서귀중양여중) ③ 차시현(영광여중) 최연아(영문중)

▲ 남자고등부 △ -54kg = ① 이민영(인천체고) ② 민태영(안중고) ③ 박재용(강원사대부고) 이정일(한성고) △ -58kg = ① 김도훈(대전체고) ② 최진영(풍생고) ③ 김신윤(경상공업고) 김용환(서울체고) △ -63kg = ① 진호준(안중고) ② 이준호(대전체고) ③ 김남훈(강원체고) 김용석(아름고) △ -68kg = ① 안진영(강원사대부고) ② 최보성(풍생고) ③ 이상렬(울산스포츠평화고) 장은석(광양고) △ -74kg = ① 김태현(신목고) ② 김의찬(광주체고) ③ 이호성(성안고) 김대영(강원체고) △ -80kg = ① 천호현(숙지고) ② 김도진(광양고) ③ 변재성(청주공업고) 박상훈(경상공업고) △ -87kg = ① 이상준(상모고) ② 이봉우(광성고) ③ 문성욱(경상공업고) 정우성(광주체고) △ +87kg = ① 김민서(설악고) ② 김영호(숙지고) ③ 이형구(아름) 정범

구(청주공업고)

▲ 여자고등부 △ -46kg = ① 이예지(포항해공공업고) ② 천소희(전남체고) ③ 한나연(대전체고) 추다인(울산스포츠평화고) △ -49kg = ① 박예은(대전체고) ② 박채은(관악고) ③ 임혜민(고양고) 장하영(포항해공공업고) △ -53kg = ① 김유진(서울체고) ② 강명진(울산스포츠평화고) ③ 우희진(효정고) 김수민(광주체고) △ -57kg = ① 엄지은(강화여고) ② 나채림(대전체고) ③ 이예린(울산스포츠평화고) 박주아(영광고) △ -62kg = ① 남민서(울산스포츠평화고) ② 김지원(시온고) ③ 이재희(전남체고) 서탄야(대전체고) △ -67kg = ① 박은지(성안고) ② 강민희(부흥고) ③ 진가연(성안고) 윤설화(강원체고) △ -73kg = ① 송민아(대전체고) ② 황지은(강원체고) ③ 손수아(울산스포츠평화고) 김가현(연체고) △ +73kg = ① 김수연(강원체고) ② 우다빈(대구보건고) ③ 윤아름(금정여고) 백선경(서울체고)

▲ 남자대학부 △ -54kg = ① 최원철(청주대) ② 김양호(가톨릭관동대) ③ 윤여준(충남대) 박진영(동아대) △ -58kg = ① 주동훈(동아대) ② 박주연(동덕대) ③ 김영민(동덕대) 조성호(한국체대) △ -63kg = ① 양태양(한국체대) ② 김도현(동덕대) ③ 한성용(전주대) 강석민(용인대) △ -68kg = ① 천동수(동아대) ② 김다훈(경희대) ③ 이재혁(한국나사렛대) 황연준(상명대) △ -74kg = ① 조호현(동아대) ② 송영건(청주대) ③ 고승민(경민대) 변준혁(한국체대) △ -80kg = ① 박인호(용인대) ② 강민성(동아대) ③ 김병휘(조선대) 김용식(경희대) △ -87kg = ① 이선기(경희대) ② 안준식(상명대) ③ 손상원(청주대) 박상우(한국나사렛대) △ +87kg = ① 강연호(경희대) ② 이현민(상명대) ③ 이재민(경운대) 박근동(한국체대)

▲ 여자대학부 △ -46kg = ① 최수영(경희대) ② 전진희(동아대) ③ 강민지(경민대) △ -49kg = ① 황진아(한국체대) ② 송하민(경희대) ③ 손지수(우석대) 김혜원(한국나사렛대) △ -53kg = ① 안유란(경희대) ② 배민지(동덕대) ③ 한지수(한국체대) 박혜진(조선대) △ -57kg = ① 박지승(동아대) ② 김민선(한국체대) ③ 김소임(조선대) 정은비(한국체대) △ -62kg = ① 김은빈(경희대) ② 이나경(경남대) ③ 최윤정(동아대) 한서희(조선대) △ -67kg = ① 장은지(경희대) ② 김태정(우석대) ③ 서예빈(동아대) 신보영(동아대) △ -73kg = ① 명미나(경희대) ② 이소민(우석대) ③ 김예령(제주대) 전경민(경남대) △ +73kg = ① 윤도희(한국체대) ② 유예지(용인대) ③ 김한서(조선대) 김민경(계명대)

▲ 남자일반부 △ -54kg = ① 최영상(용인시청) ② 이명직(진천군청) ③ 최현근(국군체육부대) 김대익(수영구청) △ -58kg = ① 박종현(성남시청) ④ 권혁진(한국가스공사) ③ 정찬호(강화군청) 최진형(영천시청) △ -63kg = ① 김민혁(강화군청) ② 김민성(강원도체육회) ③ 최운영(김포시청) 문지수(성남시청) △ -68kg = ① 고웅재(영천시청) ② 장영우(경찰무공화체육단) ③ 김동민(수영구청) 이상훈(포항시체육회) △ -74kg = ① 조민균(제주특별자치도청) ② 원종훈(한국가스공사) ③ 김영석(강화군청) 양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 -80kg = ① 박용현(한국가스공사) ② 김상준(대전광역시체육회) ③ 김봉수(강원도체육회) 신대건(진천군청) △ -87kg = ① 김현승(한국가스공사) ② 박상문(용인시청) ③ 전재경(국군체육부대) △ +87kg = ① 박재광(한국가스공사) ② 박윤근(한국가스공사) ③ 조철호(강원도체육회) 문정훈(용인시청)

▲ 여자일반부 △ -46kg = ① 김보미(수성구청) ② 김수림(대전광역시체육회) ③ 최희정(국군체육부대) 박은아(안산시청) △ -49kg = ① 조혜진(영천시청) ② 김다휘(인천광역시동구청) ③ 정혜진(김제시청) 강나영(제주특별자치도청) △ -53kg = ① 임다빈(수성구청) ② 남현정(서울시청) ③ 최희선(영천시청) 박영지(김제시청) △ -57kg = ① 윤정연(인천광역시동구청) ④ 황해주(대전광역시체육회) ③ 박보의(삼성세스원) 문소윤(서울시청) △ -62kg = ① 김휘랑(인천광역시동구청) ② 박우영(서울시청) ③ 서지은(한국가스공사(광주)) 강서희(제주특별자치도청) △ -67kg = ① 문지수(춘천시청) ② 배혜인(청주시청) ③ 김다솔(고양시청) 김다영(인천광역시동구청) △ -73kg = ① 이슬미(수성구청) ② 김은정(동래구청) ③ 신현선(서울시청) 황지애(수성구청) △ +73kg = ① 방소연(청주시청) ② 이혜진(동래구청) ③ 양승혜(제주특별자치도청) 최민경(성주군청)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18 유스 올림픽 태권도 경기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10.7.(일)~11.(목)
- 제1회 전국 실버 경연대회 : 충북 청주시 | 10.7.(일)
- 제99회 전국 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 10.13.(토)~17.(수)
- 2018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4 : 영국 맨체스터 | 10.19.(금)~21.(일)
- 2018 미래 인재 양성교육(하반기) : 충남 천안시 | 10.20.(토)~21.(일)
- 제11회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대회 : 경남 창원군 | 10.20.(토)~21.(일)
- 2018 지도자 전문 교육과정 : 전북 무주군 | 10.27.(토)~28.(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18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겸 2019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 : 강원 철원 | 11.5.(월)~9.(금)
- 2018 초등연맹회장기 전국 어린이대회 : 전북 정읍 | 11.17.(토)~21.(수)
- 2018 전국 태권도장 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 : 경기 용인시 | 11.17.(토)
- 제16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전국 생활체육대회 : 경기 용인시 | 11.17.(토)
- 2018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 : 대만 타이페이 | 11.5.(목)~18.(일)
- 2018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파이널 : 아랍에미리트 | 11.22.(목)~23.(금)
- 세계 팀 선수권대회 : 아랍 에미리트 | 11.24.(토)~25.(일)
- 2018 미래 인재 양성교육(하반기) : 충남 천안시 | 11.24.(토)~25.(일)
- 2019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겨루기) : 강원 태백 | 11.28.(수)~29.(목)

스도쿠(SUDOKU)

초급

	8			1		7	5	
4	2			3	9			1
		1		4			9	
7					6		2	
9		2	4			6		7
	1			2	5			9
	3			7		2		
2				6			7	8
	7	6		5			1	

중급

		9	3				4	
2				7				
		4			2		3	
	1				6	3		
8					9			5
		2	1	4			8	
	4		4			6		
				6				3
	5				3	9		

스도쿠 푸는 법

- ① 가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② 세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③ 작은 상자(3 x 3 =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스도쿠(SUDOKU) 퍼즐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아래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맞는 도복과 배송 시 확인을 위해 입을 분의 키(cm)와 상의 크기(100·105 등) 및 전화번호를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② 본인이 전화로 확인한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 ③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편집팀 앞.

초급 정답

7	9	4	1	5	6	8	2	3
8	2	6	3	9	4	7	1	5
5	1	3	7	8	2	9	4	6
6	7	5	2	4	1	3	9	8
2	3	9	8	6	7	1	5	4
4	8	1	5	3	9	2	6	7
9	6	7	4	1	8	5	3	2
3	4	2	9	7	5	6	8	1
1	5	8	6	2	3	4	7	9

중급 정답

5	8	2	7	9	1	4	6	3
3	7	9	4	6	8	2	1	5
4	1	6	5	2	3	9	8	7
2	4	1	9	7	5	6	3	8
9	3	7	8	1	6	5	2	4
6	5	8	2	3	4	1	7	9
8	2	3	1	5	9	7	4	6
1	6	5	3	4	7	8	9	2
7	9	4	6	8	2	3	5	1

제169호 정답 및 정답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15(공덕 래미안 5차 아파트)
502동 103호 조아현(125cm, 010-4753-727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22(태영 아파트)
203동 1502호 김재현(175cm, 010-4596-2613)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89(교성 주공 아파트)
103동 1001호 정진아(170cm, 010-4789-8426)





ADIDAS TAEKWONDO



